

01

제3인간형, 안수길

■ 전체 줄거리

한때 작가였다가 6.25 동란 후 피난지 부산에서 교원 노릇을 하는 ‘석’은 같은 작가였다가 동란 중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던 친구 ‘조운’을 만난다.

‘석’은 친구의 차를 타고 가면서 그의 동란 중 소문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친구가 숨어서 이룩한 대작(大作)에 대해 평을 받으려고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두 사람은 술을 시킨다. ‘석’은 친구가 원하는 술에 금방 취한다. ‘석’은 차 안에서 궁금했던 말을 꺼냈으나, 친구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종이 꾸러미를 내어 놓는다. 거기에는 검정색 넥타이와 ‘조운 선생’이라고 쓰인 봉투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선생님(조운)의 호의는 고맙지만 자신의 길은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장교에 지원했음을 알리는, ‘미이’란 여성의 것이었다.

‘조운’은 ‘미이’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미이’는 문학 소녀였으며, 가정이 부유했고, 명랑한 성격으로 ‘조운’을 무척 따랐다. 동란 이후 집안이 크게 기울어지고 성격도 많이 변했다. 조운은 그녀에게 다방을 차려 주어 도우려 했으나 ‘미이’는 며칠의 여유를 구하더니 새로운 사명을 찾아 간호 장교를 지원했다.

말을 마치며 ‘조운’은 ‘미이’가 전쟁을 겪으며 갈 길을 바르게 찾은 데 반하여 자신은 깊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석’은 ‘조운’에게 가졌던 호기심과 기대감 대신 강렬한 ‘미이’의 인상을 떠올린다.

■ 작품 읽기

미이가 차근차근히 눈물이 글썽하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위하여 무슨 힘이 되어 줄 수 없을까 진정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났네. 더욱이 천생의 명랑성이 감추어지고, 침울하고 암전해진 그 태도가 측은하기 짝이 없었네.

그 명랑성을 돌이켜줄 수는 없을까? 그 날카로운 센스를 그대로 빛내게 해 줄 수 없을까? 그대로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을까? 그때의 내 마음은 사실 순수했었네.

이런 마음으로 미이를 보고 있으려니 이야기를 그친 미이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선생님은 살아가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오금 박듯 말하였네.

나는 뜨끔하였네. 그리고 일부러 내 편에서 더 명랑성을 띠며 응수했네.

“건 미이답지 않은 질문인데. 오오라, 사변통의 불행으로 미이 인생관이 변했군 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백팔십도 전환으로 지금은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지?”

“비관하는 건 아녜요.”

“비관 안 해? 그럼 안심이야. 비관 안 함 역시 낙관이겠군.”

“비관두 낙관두 아니예요.”

“그럼? 중간판가? 중간판 없어졌어.”

“호, 호, 호, 말재주 어디서 그렇게 느셨어요?”

미이의 침울이 풀어지는 듯해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로 하여금 명랑하였던 서울 시절을 회상하도록, 기억에 남아 있는 서울서의 화제를 끄집어내었네.

“이것두 저것두 아님, 세상 나오질 앓을 걸 그랬군. 오빠지 언넌지 모르는 그 애기에게 양보할 걸 그랬어……하, ……하.”

“선생님 기억두 참 좋으시네. 그 말 잊지 않으셨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역시 이 세상에 나온 걸 고맙게 여겨요. 기쁘게 여겨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더욱 안심이군. 그러니까 결국 미이 생각 변한 게 없구면……. 서울 때처럼 명랑해지구 기운을 내라구.”

“생각 변한 게 있다면 이걸까요?”

“뭐? 역시 변한 거 있나?”

“그 어려운 목숨과 형체를 받아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니, 필요 없이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꼭 할 일이 있기에 내보낸 것이 아닐까요?”

“사명(使命)을 지고 나왔다는 말이지?”

“예, 사명이예요. 보람 있는 사명이예요.”

“…….”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으나, 미이는 말을 이었네.

“그러나 제 사명을 바루 찾아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두 있구, 못 찾구 거지처럼 보람 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게라구 생각해요.”

“그럼 미이 사명은?”



“.....”

미이는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였네.

“헤치구 찾아봐야잖아요.”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에 분명한 틈을 타서, 나는 미이를 하루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집에도 찾아가 보았네.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네. 꼼짝 못 하고 누워 있는 미이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장사 하는 정경.

나는 미이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 그러나 미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의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이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이 자신이 눈치챘을 것일세.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 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이의 명량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다음 날 5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 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말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 늘이고, 정한 시간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이 종이꾸러미였었네. 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 장교이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삼 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 부박(浮薄)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千耶萬耶)한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걷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

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운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암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 가는 나는? 나도 사변이 빚어 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 석: 어떤 부류에도 끼이지 못하는 인물. 전쟁 전에는 작가로 활동하다가 피난지인 부산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교사가 된다.
- * 조운: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인물로서 본명은 최춘택이다. 자기 성찰에 충실했던 작가였으나 전쟁 중 자동차 사업가로 변신하여 안일한 삶을 추구한다. 변한 ‘미이’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 * 미이: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실한 인물로서 모 회사 중역의 딸이다. 철부지 문학 소녀였으나 전쟁 중 가족의 죽음 및 파탄을 겪으며 신념의 인간으로 성장하여 간호 장교의 길을 택한다.

☒ 구성

- ① 발단 - 피난지 부산, 안일과 나태에 빠진 석의 삶.
- ② 전개 - 친구 조운의 방문으로 그간의 궁금한 사정이야기를 한다.
- ③ 위기 - 작가다운 태도와 멀어지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두 친구의 자조.
- ④ 절정 - 미이라는 여성의 과거 행적을 들려주는 조운.
- ⑤ 결말 - 석의 깊은 감동과 자책감.

☒ 주제: 지식인의 좌절과 방황 그리고 새 인간형의 탐구

■ 작품 해설

1953년 <자유세계>에 발표된, 안수길의 기념비적 단편 소설로서 초기의 이민 생활을 다룬 만주 체험 소설에서 벗어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문학적 가치 외에 안수길 자신의 문학적 태도와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안수길 자신도 “사변을 통한 지식인의 세 개의 형(型)을 그려 보았다. 세 번째의 인물은 작가가 모델로 되었으나 그것은 개인적 ‘나’가 아니라 전형으로서의 ‘나’라는 점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듯이 이 작품에서는 6.25와 피난 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이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살핀 작가의 문제작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 작가요, 교사인 ‘석’이 제목처럼 작가가 의도한 제3인간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6.25전에는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작품을 써 왔다. 6.25가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는 ‘생활을 위하여’ 교사로 취직하지만, 교사로도 충실하지 못하고 작가로서도 그렇지 못하여 늘 빈민 속에 있다. 그래서 그는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동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하였고, 동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나는 사명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말라 가는 나도 동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라는 자책감에 빠진다.

02

옥단춘전, 작자 미상

■ 전체 줄거리

조선 숙종 때 두 재상 김정과 이정은 각각 같은 나이의 진희와 혈룡이라는 아들을 두었다. 진희와 혈룡은 동문수학하며 우의가 두터워져 장차 서로 돕고 살기로 언약했다. 그 뒤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결국 평양감사가 되었으나, 이 혈룡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노모와 처자를 데리고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이혈룡은 평양감사가 된 친구를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하고 길식을 하다가 하루는 연광정에서 평양감사가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가는 길에 김진희는 이혈룡을 박대하면서, 사공을 불러 그를 죽이라고까지 한다.

이 때,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공을 매수하여 혈룡을 구하여 집으로 데려와 가연을 맺는다. 옥단춘은 혈룡의 식솔들도 보살핀다. 혈룡은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평안도 암행어사가 되어 결인행색으로 평양에 간다. 연광정에서 잔치하던 김진희가 이혈룡이 다시 온 것을 알고는 재차 잡아 죽이라고 하자, 어사 출도를 하여 김진희의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 작품 읽기

이때 옥단춘이 이혈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파(萬頃蒼波) 바라보며 기절할 듯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다 살고 어복중(漁復中)의 원혼되니, 청천(青天)은 감동하사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살려 주소서.”

하고 하늘에 호소할 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번 울리니,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히더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때 북소리가 두 번 울리매, 춘이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임아 임아 서방님아, 이제는 꼭 죽었지 못살겠소. 살려주소. 살려주소.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살려주소. 신명께 맹세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으니, 사공들은 당황히 재촉하니라.

“어서 물에 들어가소. 일시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 죽을 테니 어서 물로 들어가소.”

하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옥단춘이 넋을 잃고,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이면 무죄한 이 인생을 왜 그리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낭군 살려주소.”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엄격하니, 살릴 묘책 없소이다. 어서 바빠 조치하소.”

옥단춘은 단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갈면서 벌벌 떨고,

“에구머니 나 죽는다!”

한 마디 지르고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혈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가로되,

“춘아 춘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훑어보면서,

“애들, 서리 역졸들이!”

하고 부르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며, 우리 같은 고탐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덮을 듯하니라.

“저기 가는 뱃사공아, 거기 타신 여사또님 놀라시지 않도록 고이 고이 잘 모셔라!”

이때 암행어사 이혈룡이 비로소 배 안에서 일어서면서 사공에게 호령하기를,

“이 배를 빨리 연광정으로 돌려 대라!”

사공들이 귀신에 홀린 듯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배를 몰아 연광정 밑으로 대니, 옥단춘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원망스러운 듯이,

“입아 입아, 암행어사 서방님아, 이것이 꿈이런가, 만일에 꿈이라면 깰까 봐 걱정이요.”

어사또가 옥단춘을 위로하며,

“사람은 죽을 지경에 빠진 후에도 살아나는 법인데, 너 어떤 재미 보았느냐.”

하고 여유 있게 말하니, 옥단춘이 비로소 마음 턱 놓고 재담으로 대꾸하니라.

“구중궁궐(九重宮闕)* 아녀자가 어디 가서 보오리까.”

어사또 출도하여 연광정에 좌정(坐定)하고 사방을 살펴보니, 오는 놈 가는 놈이 모두 냇을 잃고, 역졸에게 맞은 놈은 유허이 낭자하다. 눈 빠진 놈, 코 깨진 놈, 머리 깨진 놈, 팔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 옆드러진 놈, 자빠진 놈이 오락가락 무수하다. 그 중에서 각 읍의 수령들은 불의의 변을 당하고 겁넌 거동 가관이다. 칼집 쥐고 오줌 싸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개울로 빠져들고, 말을 거꾸로 타기도 하고, 동

서를 분별하지 못하여 이리 저리 갈팡질팡 도망친다. 오다가 혼을 잃고 가다가 냇을 잃고 수라장(修羅場)*으로 요란할 제, 평양 감사 김진희의 거동이 가장 볼만하니라.

* 구중궁궐 :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 수라장 :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옥단춘 : 빼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닌 기생으로 지혜롭게 이혈룡의 복수를 돕고, 정성을 다해 보필한다.

* 이혈룡 : 선한 품성의 인물이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자 암행어사가 되어 이를 복수한다.

* 김진희 : 걸인이 되다시피 한 친구를 박대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려하는 악한 품성의 소유자이다.

☒ 구성

① 발단 - 조선 숙종 때 두 재상이 각각 같은 나이의 아들을 두었다. 각 재상의 아들인 김진희와 이혈룡은 함께 공부하면서 부모님들의 남다른 우의를 생각하여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다.

② 전개 - 부모님들이 죽은 뒤, 과거에 급제한 김진희는 평양감사가 되었으나, 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이에 혈룡은 평양 감영으로 진희를 찾아간다. 관속들의 저지로 감사를 만나지 못하다가 연광정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는 감사를 찾아 갔으나 오히려 감사는 혈룡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③ 위기 - 이 때 잔치에 참가하고 있던 기생 옥단춘은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곤경에 처해 있는 혈룡을 구출하고, 혈룡과 가연을 맺어 행복하게 지낸다. 옥단춘은 혈룡의 노모와 처자를 보살피며 혈룡에게 공부하여 과거를 보게 한다.

④ 절정 - 혈룡은 암행어사가 되었으나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는다. 연광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던 진희가 걸인 혈룡을 보고, 옥단춘과 함께 강물 속에 던져 죽이려 하자 혈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명하여 김진희를 파직한다.

⑤ 결말 - 혈룡은 옛 정을 생각하여 진희를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진희는 이미 천벌을 받아 벼락을 맞고 죽는다. 혈룡은 우의정까지 오르고, 옥단춘을 둘째 부인으로 삼아 본부인과 함께 부귀를 누린다.

☒ 주제 : 권선징악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신의의 소중함

■ 작품 해설

이 소설은 평양기생 옥단춘의 순정과 절의, 그리고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그릇된 우정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에 찬 주인공의 처지가 마지막에는 행복한 것으로 전환되는 조선시대 소설의 일반적인 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춘향전>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가령 주인공들의 이름이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李夢龍)·성춘향(成春香)에 대하여 이 작품에서는 이혈룡·옥단춘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춘향전>의 신분관계와 <옥단춘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신분관계가 같은 점이 그러하다. 또한 어사출두나 봉고과직 등 결말 부분의 줄거리도 같으며, 두 작품 모두가 율문체인 점 등 <옥단춘전>이 <춘향전>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춘향전>을 모방한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숙종 때 김우항(金宇杭)이라는 사람이 등과하기 전에 불우하게 살다 강계부사로 있던 이종(姨從)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종이 오히려 그를 감금하려고 하자 김우항이 도망쳐나와 기생 홍도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평안감사가 되어 이종의 죄를 벌한 일이 있었다 한다. 이 이야기는 <옥단춘전>의 구성과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혹자는 <옥단춘전>이 김우항설화를 소설화한 것이라 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시대상황으로 보아 몰락한 사대부에 대한 기생의 동정적 사랑, 또는 몰락한 양반들의 암행어사 등 입신을 통한 불우한 처지의 보상 욕구 등의 모티프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모티프들이 결합되어 <춘향전>이나 <옥단춘전> 등의 소설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 춘향전과의 유사점
양반과 기생의 관계, 어사출두, 봉고과직, 인물의 명명

* 춘향전과의 차이점

춘향전	옥단춘전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중심으로 내용 전개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두 친구 사이의 갈등 중심
춘향이 신분제도와 관습에 저항하는 내용이 포함	옥단춘이 신분제도나 관습에 저항하는 내용이 없음
이몽룡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춘향을 만나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임	이혈룡은 이미 정실 부인을 둔 상태에서 옥단춘과 인연을 맺음.

03

주용설, 권근

■ 작품 읽기

손[客(객)]이 주용(舟翁)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津吏)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 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만경(萬頃)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명(命)이 지척(咫尺)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 오래 물에 떠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하니, 주용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던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풀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서리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 풍량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 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뗏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 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하고, 주옹은 뱃전을 두들기며 노래하기를,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빈 배를 띄웠네, 물 한가운데.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 가리.
 한가로이 지내다 세월 마치리.”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는 말이 없었다.

■ 핵심 정리

- ☒ 성격: 비유적, 교훈적, 계몽적
- ☒ 체제: 뱃사람의 삶
- ☒ 주제: 편안함에 젖어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태도 경계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손(客)과 뱃사람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를 던지지 드러내고 있다. 손은 뱃사람에게 지극히 험한 곳에서 사는 이유를 묻는다. 이에 뱃사람은 편안한 곳에서 사는 이유를 묻는다. 이에 뱃사람은 편안한 곳에서 사는 이는 결국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게 될 것이므로 늘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편이 낫다고 했다. 또한, 인간 세상이 항상 큰 물결과 같이 흔들리니 그 속에서 같이 흔들리며 살기보다는 이 물위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안할 때 훗날의 근심을 생각지 아니하며,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을 돌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살 것을 권유하는 교훈적 내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04

미스터 방, 채만식

■ 전체 줄거리

질신 장수의 아들 방삼복은 농사를 짓다 돈벌이를 하려 일본으로 떠났다가 한 10년만에 더 초라해져서 돌아온다. 그 후 서울로 올라와 신기료 장수를 하던 방삼복은 해방을 맞아 영어를 할 줄 아는 덕택에 미군 장교의 통역(미스터 방)이 된다. 방삼복은 S소위의 주선으로 호화 주택을 얻어 살게 되면서 그에게 청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뇌물로 치부를 한다. 한편, 방삼복과 같은 고향의 백 주사는 아들 백봉선이 일제 강점기에 경찰이었던 덕택에 지주이자 고리 대금업자로 치부를 하였는데, 해방이 된 후 부자가 함께 군중들의 습격을 받아 봉변을 당하고서는 서울로 피신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방삼복을 만난 백 주사는 방삼복이 미군 장교의 통역 일을 한다는 걸 알자, 그 미군 장교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고자 한다. 백 주사가 방삼복에게 청탁을 하자, 방삼복은 들어 주겠노라 호언장담한다. 어느날 방삼복은 양치질을 하고는 그 물을 노대 바깥으로 내뱉었는데, 마침 방삼복을 찾아오던 미군 장교가 그 양치물을 뒤집어 쓰고는 방삼복에게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해 댄다.

■ 작품 읽기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옳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증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축,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혈! 그놈에 경제젠 다 어디루 가 뒤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퀘짜 어깨에 멘 채 핫김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러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중략>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 들고 기물스러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 머치? 하우 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장수 영감은, 삼십 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 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씨고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 원.” 하여 주었다.

훅 돌려다보더니,

“오, 켄 유 스피크?”

하면서 사뭇 그러한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장수 코빼뿔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십오 불(이백사십 원) 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투사우전드 이얼스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번은, 경희루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던 건물이나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 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펍 아름답고 짐잡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노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가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오 원에 한 장 사 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마네 집에 치를 이 원에 사 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옮겨오기는 S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 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런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 방삼복 :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신기료 장수를 하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처지였으나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것에 힘입어 광복 직 후 진주한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취직해 출셋길에 오른다.
- * 백 주사 : 전형적인 친일파로, 광복이 되어 군중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뒤 피신해 있다가 방삼복을 찾아와 미군 장교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고 일제 강점기에 누렸던 부를 회복하고자 한다.

* S 소위 : 광복 직후 혼란한 우리나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제3의 인물로, 방삼복을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미군 장교이다.

☒ 구성

- ① 발단 : 백 주사와 술잔을 기울이며 거들먹거리는 방삼복
- ② 전개 : 광복 직후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취직해 출셋길에 오른 방삼복
- ③ 절정 : 아들의 친일 행각으로 광복 직후 몰락한 백 주사가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함.
- ④ 결말 : 자신이 맺은 양친물이 미군 장교에게 떨어져 다시 몰락하는 방삼복.

☒ 주제 : 광복 직후 새롭게 진주한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 작품 해설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주인공 미스터 방(방삼복)과 그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청탁하기 위해 찾아온 백 주사 두 사람이다. 방삼복은 일제 강점기에 외국을 돌아다니기는 하였으나 신기료장수를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물로,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것에 힘입어 광복 직후 진주한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취직해 출셋길에 오른다. 백 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광복이 되어 군중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뒤 피신해 있다가 방삼복을 찾아와 미군 장교의 도움으로 복수를 하고 일제 강점기에 누렸던 부를 회복하고자 한다. 지은이는 이 두 인물을 통해 외세(미국)에 빌붙어 출세를 도모하는 주인공과 같은 모리배들과 친일로 치부했다가 다시 새로운 외세를 이용하여 그 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백 주사와 같은 친일파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인공에게 찾아와 뇌물로 청탁을 하는 상류층들. 그러한 부조리를 용인하는 미군정 등이 이 작품의 풍자 및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지은이는 이를 통해 광복 이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상과 인간상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참고

* ‘미스터 방’의 풍자성

이 작품은 가족, 조국, 독립 등 공동체적 삶의 의미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능력에 맞지 않게 그 사회의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인물의 자기 과시와 허세를 풍자함으로써 당시의 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적 인물이 대접받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미스터 방’이 우연한 계기로 팔자가 바뀌는 과정을 다분히 해학적이면서도 냉소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미스터 방’의 결말

돈과 명예, 권력에 성큼 다가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며 으스스대던 ‘미스터 방(방삼복)’은 무심코 맺은 자신의 양친물이 ‘S소위’의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S소위에게 턱을 가격 당한다. 이후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미완의 결말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삼복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반전을 통해 작가는 ‘삼복’이 하루아침에 얻은 부와 행복이 얼마나 우연한 것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05 국물 있습니다, 이근삼

■ 전체 줄거리

소심하고 어수룩한 김상범은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그에게는 늘 실패와 손해뿐이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장에게 신임을 얻어 임시 사원에서 정규사원이 된다. 김상범은 박용자와 결혼을 결심했으나, 형과 박용자가 결혼하게 된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이후, 출세의 방법에 눈을 뜬 상범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변한다.

그는 아파트 관리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관리인의 돈 5만 원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써 버린다. 또 회사의 상사인 경리과장이 공금을 유용한다는 비리를 사장에게 고자질하여 그를 제거하고 자신이 경리과장이 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강패인 ‘탱크’에게 여자 문제로 협박을 당하던 중, ‘탱크’가 회사의 월급날 경리과를 털기로 한 것을 알고 뒤쫓아 가 사냥용 총으로 그를 살해한다. 이 일로 사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고 서울 시민의 영웅이 되며 상무로 특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사장의 며느리이자, 비서요, 미망인인 성아미가 박 전무와 간통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그녀와 결혼을 하고 사장의 아들 몫으로 남겨둔 상속 재산까지 가로채게 된다. 그런데 성아미는 신혼여행 때 비행기에서 박 전무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고백하고, 다음 날 상범은 성아미가 임신한 아이가 박 전무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신혼여행지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 작품 읽기

김상범 : 아니, 박용자씨 말입니까?
 김상학 : 그래, 아마 너도 반대는 안할 거야.
 김상범 : 저요?아니요..... 아니요.
 김상학 : (팔뚝시계를 보더니) 이런, 시간에 늦겠다! 그럼 내 2, 3일 내에 또 연락할게.
 김상범 : 박용자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김상학 :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구. 약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구. 그때 같이 영화구경 간 것이 인연이 됐어. 그럼, 몸조심해라. (상학이 걸어 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
 김상범 :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테다가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 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 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한 30년..... 나머지 3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잠시) 저는 여태까지는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 왔습니다. 인천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여름에 하도 무덥기에 해수욕장에 나갔죠. 갑자기 저쪽 바위 밑에 옷을 입은 채 기어들어가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자살입니다. 저는 밀짚모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얼굴은 예쁜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래 위에 끌어내서 살렸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는 말 대신에 저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저를 과출소로 연행하더군요.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 쥐어줍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말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 을 회사에서 한 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무대 좌측 사무실에 불이 켜진다. 성아미가 소파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다. 상범이 엽총을 들고 들어와 손질을 한다.)
 성아미 : 조심하세요. 총알은 다 빼고 하세요?
 김상범 : 네, 실탄은 다 뺐습니다.

성아미 : 가끔 사냥도 가세요?
 김상범 : 사장님이 가시면 가끔 따라다닙니다.
 성아미 : 상범씨는..... 아직 독신이세요?
 김상범 :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비서님은 결혼 안 하세요?
 성아미 : 저요?..... 저의 남편이 돌아가신 지 8개월 밖에 안 돼요.
 김상범 : 사장님의 아드님 말이죠?
 성아미 : 결혼 얘기를 꺼내 저의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직 그분을 못 잊고 있어요.
 김상범 :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엽총을 쥔 채 상범이 받는다) 네. 네? 성아미씨요? 계십니다. (수화기 대신 엽총을 내밀며) 박 전무님입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수화기를 준다.)
 성아미 : 네, 저예요. 그분이요? 경리 보는 김상범 씨예요. 편찮아요. 네? 지금요? 아직 사장님도 계시는데..... 알겠어요. 그러로요? 혼자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본다. 이어 사장실로 들어간다.)
 김상범 : (관객에게) 8개월 전에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었던 여자입니다. 박 전무가 전화를 하니깐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런 친구들의 상식, 즉 내가 새 상식이라고 부르는 상식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미가 나와 핸드백을 들고 무대 밖으로 나간다. 상범은 총구를 그의 등에 겨누다. 문이 열리며 사장이 나온다. 상범은 몸을 돌려 뜻하지 않게 이번에는 사장에게 총구를 들이댄다.)
 사장 : 에이크, 이 사람아!
 김상범 : 아이, 죄송합니다. 손질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한 번 쏘고 싶어서.....
 사장 : (총을 받으며) 응, 수고했어. 경리과장은 어디 갔나?
 김상범 : 네, 배 과장은 돈 백만 원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바구니 다방으로 갔습니다.
 사장 : 백만 원? 회사돈을?
 김상범 : 네, 저보고 백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중략>
 김상범 : 배 과장이 약주를 참 좋아합니다. 점심때도 가끔 한 잔씩 합니다.
 사장 : 회사의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상범 : 사장님, 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다고..... 저는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의 발전을 무엇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사장 : 알았어. 자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네. 잘 해 보도록 해.



(사장이 엽총을 들고 들어간다. 상범은 책상에 마주 앉아 일을 시작한다. 잠시 후 배영민이 들어온다.)

배영민 : 무슨 일 있었나?

김상범 : 아뇨.

(영민이 자기 주머니의 담배를 찾고 있음을 본 상범이 재빨리 티 테이블에서 담배를 집어 영민에게 주고 라이터 불을 켜 준다.)

배영민 : 사장님은?

김상범 : 계시는 모양입니다.

배영민 : 아, 이거 여편네 성화에 못살겠군! 여편네 친구가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 입원했는데 백만 원을 좀 빌려 달라는 거야.

김상범 : 그럼..... 아까 다방서 전화하신 분이..... 사모님이신가요?

배영민 : 그래. 여편네들이 자꾸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오면 곤란해. 재수가 없어, 재수가!

김상범 : (관객에게) 네, 재수가 없죠. 재수가 없습니다. 한 달 후 경리과장은 강원도 지사로 발령을 받아 전출했고 제가 경리과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출세가 이렇게 빠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을 버리고 새 상식에 의해 행동한 첫 효과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장의 며느리요 과부요 또한 비서인 성아미와 박 전무와의 관계를 적당히 이용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모든 가능한 출세의 문을 내 손으로, 내 이 두 발로 쫓고 차서 활짝 여는 겁니다.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 상범 : 본래 소심하고 어수룩한 젊은이였지만, 출세의 방법에 눈을 뜨게 되자, 냉혈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변모.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한 세대를 대변.
- * 상학·상출 : 이상을 좌절시키는 현실 앞에서 굴복해 버리는 무기력한 인물. 당대 현실에 청년들이 느꼈을 좌절감을 드러냄. 상학은 동생의 여자를 가로채고, 부모 환갑잔치가 자신의 결혼식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짐.
- * 영민 : 상범의 상사였으나 이후 상범의 모함에 의해 시골 근무지로 좌천되었고 이제는 상범에게 아부하여 서울로 돌아가려 함. 권력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
- * 사장 : 속물적 근성을 지닌 인물로 상범에게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엽총을 선물.
- * 아미 : 사장의 며느리로 전무와 관계를 가짐. 상범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 끝에 그와 결혼하게 됨. 결혼으로는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정적 인물

☒ 구성

- ① 발단 : 선량하고 평범한 젊은이 김상범이 우연한 기회에 사장에게 신임을 얻어 임시 사원에서 정규사원이 된다.
- ② 전개 : 상범은 박용자와 결혼을 결심했으나, 형과 박용자가 결혼하게 된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이후, 출세의 방법에 눈을 뜬 상범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변한다.
- ③ 절정 : 상범은 '탱크'가 회사의 월급날 경리과를 털기로 한 것을 알고 뒤쫓아가 사냥용 총으로 그를 살해한다. 이 일로 사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고 서울 시민의 영웅이 되며 상무로 특진하게 된다.
- ④ 하강 : 상범은 사장의 며느리이자 과부인 성아미가 박전무와 간통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그녀와 결혼한다.
- ⑤ 대단원 : 상범은 성아미가 박 전무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고도 허전함을 느낀다.

☒ 주제 : 현대인의 속물적인 욕망(물질만능주의와 출세주의) 비판

■ 작품 해설

'국물 있습니다' 라는 희곡의 제목은 당시 유행어인 '국무도 없다' 는 말을 반어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국물' 은 돈이나 명예, 이익 등을 의미한다. 주인공 김상범은 우연히 임시 사원에서 정규 사원이 되고 출세를 위한 새로운 상식에 눈을 뜨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인물로 변한다. 최종적으로 김상범은 사장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지만, 진정 자신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 이 작품은 냉혈한 김상범을 비롯해 이기주의적인 형 김상학, 이중적인 성격의 성아미, 돈밖에 모르는 사장, 불륜을 저지르는 박 전무, 복직을 위해 비굴해진 배영민 등의 인물 군상을 통해, 1960년대 산업사회와 더불어 만연해진 출세주의와 배금주의 풍조를 아이러니컬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참고

- 서사극의 특징 - 주인공 상범의 역할
상범이 극중 인물과 해설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관객이 극에 몰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관객에게 소외 효과를 줌으로써 사건 진행에 일정한 거리를 갖도록 하여(감정 이입의 차단)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서사극의 특징 - 무대의 비사실성

이작품의 무대는 우측엔 상범의 아파트, 좌측엔 회사 사무실, 전면은 길거리, 복도, 공원 등으로 나누어 동시 무대를 꾸며 상징적인 무대로 처리하는 장면이 많은데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주의 연극의 시간 개념을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목 '국물 있사옵니다' 의 반어적 표현

당시 유행하던 국물도 없다는 말을 반어적으로 활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물'로 표상되는 물질적 욕망 충족을 위해 달려가는 비정상적인 인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식'의 의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피해자로 살아가던 상범이 부정한 세태에 적응하기 위해 변용한 개념으로 비록 부조리하고 부당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 주인공의 인물 유형 변화과정

이 작품은 평범하던 김상범이 어떠한 인물유형으로 변해 가는지를 통해서, 산업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비판하고 있다.

1. 유형의 변화 -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원인

: 평범한 인간 → 아비하고 냉혹한 인간

2. 출세의 과정 및 (출세의 수단)

임시사원(우연한 기회) → 정식사원(비리고발 및 음해) → 경리과장(배신과 살해) → 상무(협박과 공갈) → 사장 며느리와 결혼

06

돌다리, 이태준

■ 전체 줄거리

창섭은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농업학교로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서울로 가서 의전(醫專)에 들어가 의사가 된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맹장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병원을 운영하여 성공한다.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로 하고 모자라는 돈을 고향의 땅을 팔아 채우고, 부모를 서울에서 모시리라 결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오지만, 그 계획은 의외로 완강한 부친의 반대로 직면한다. 창섭의 부친은 동네에서 근검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논과 밭을 가꾸는 일에 모든 정성을 들이고 아들 학비로 동네 길들을 물론 읍내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다

는 사람이다. 창섭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부친은 장마에 내려앉은 돌다리를 보수하고 있었는데, 창섭이 서울로 올라가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부친은 창섭이 땅을 허술히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만,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 세계와의 결별을 체험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보수한 다리로 나가 세수를 한다.

■ 작품 읽기

'아버지께서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 겨울이면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동네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들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 딸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 수 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견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감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쭙 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 돌을 동아줄에 얹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북편을 흐르고 있어 아래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쭉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너이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돌을 해 오시는 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이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구 튼튼한 돌루 노신 거란다."

그 후 오륙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面)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디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엎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하러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아 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 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 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나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 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 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엽한 것, 엽하기는 하나 삼 만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오천 원쯤은 받겠지 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 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 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 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투돌을 올려놓고 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 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허다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 정이란 게 사람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 아버지 : 일생 동안 농사만 지어 온 농부로, 땅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지니고 있다. 물질적인 것보다 인정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로 자신의 주권이 매우 분명하다. 보수적, 고지식, 융통성 없음
- * 어머니 : 아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촌부이다.
- * 창섭(아들) : 서울에 살고 있는 의사이다. 누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의사가 되지만 현재는 의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돈은 버는 관심이 많다. 서구의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효심이 많다.

☒ 구성

- ① 발단 - 창섭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의사가 된다.
- ② 전개 - 의사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찾아온다.
- ③ 위기 - 아들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자고 제의한다.
- ④ 절정 - 아버지가 아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땅의 소중함을 역설한다.
- ⑤ 결말 - 창섭은 서울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 주제 : 금전적 가치를 숭상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 비판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서구적인 물질적 가치와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가 교차되는 당시의 사회 현실을 한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 보여 준 사실주의 소설이다. 이 작품이 씌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외에도 일본을 통해 서구적인 가치관이 이 땅에 대량으로 들어옴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던 때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농토를 파는 문제로 일어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서 근대적 사고를 추구하는 아들과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 작품의 제목인 '돌다리'는 함축하는 바 큰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돌다리'를 단순한 다리가 아닌 가족사(家族史)의 일부로 보고 있다. 여기서 '돌다리'는 아버지가 글을 배우러 다니던 다리이자 어머니가 시집을 때가마 타고 건너온 다리이다. 또, 조상의 상돌을 옮긴 다리이면서 아버지 자신이 죽어서 건널 다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다리를 보수하는 행위는 파

전해지던 정신적인 문화가 후대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의 표현인 것이다.

■ 참고

● 돌다리가 지닌 의미

돌다리는 모든 것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파악하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가족사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 자신과 조상이 함께 살아온 현상이다. 이러한 돌다리는 농촌 공동체가 가진 전통적 세계를 상징하며, 이는 땅으로 확대되어 고향에 대한 애착을 반영한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관련하여 민족 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 돌다리에 나타난 인식의 아이러니

아들 창섭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이고, 아버지는 전형적인 심성을 가진 구시대의 인물이다. 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땅을 팔자는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안 된다는 신념을 논리정연하게 펼쳐 놓는다. 아들은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신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아버지의 세계를 그것 자체로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그가 느끼는 것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인 것이다. 창섭은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경외하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모순적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인식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이 아이러니는 작중 인물과 작가의 위상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인물이 작가(서술자)보다 우월한 곳에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해순은 돌담에서 전송을 한다. 그들이 바다로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폭풍이 몰아친다. 그들의 배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순은 성구가 돌아올 것을 믿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간다.

그녀는 갯마을의 아낙네들에 섞여 지낸다. 어느 날 밤 해순은 종일 미역바리를 하고 나무둥지처럼 쓰러져 잠이 든 어느 날 밤, 잠결에 압박감을 못 이겨 잠을 깬 해순은 사나이의 옷자락을 휘감아 잡고 성구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지만 그 사내는 성구가 아니었다.

방바위 옆에서 한천을 펴고 있을 때 상수를 만난 해순은 그 날 밤 그 사내가 상수였음을 알게 된다. 상수는 상처를 하고 난 후 떠돌아다니다가 후리막에서 일을 거두고 있었다. 해순이와 상수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돌고, 다시 고등어 철이 와도 칠성네 배는 돌아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성구의 제사를 지내고 해순이를 상수에게 개가시킨다

상수를 따라 갯마을을 떠난 해순은, 채석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상수를 도와, 채석장 대포집의 일을 거들어 주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채석장 감독이 해순에게 수작을 걸며 접근해 오고, 이를 본 상수가 감독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는 또다시 그 곳을 떠난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간 해순과 상수는 화전민이 살던 곳에서 단둘이 살게 된다. 해순은 옛날 자기가 살던 바닷가를 그리워하면서도 상수와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지질 조사를 나온 채석장 감독이 해순의 집을 발견하고 혼자 있는 해순에게 달려든다. 감독을 피해 집밖으로 뛰쳐나온 해순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상수가 감독을 뒤쫓다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만다. 상수의 장례를 치른 해순은 또다시 갯마을로 돌아오고, 이를 성철이 반갑게 맞이한다.

■ 작품 읽기

S#116. 바닷가

(칠성네를 중심으로 아낙들이 걸어온다.)

아낙A : 짐작은 개가 뭘 어쩐다고 망칙한 소문도 다 있재. 칠성네 : 와, 배 아프나..... 지금 세월은 수절하는 게 자랑이 못 된다.

아낙B : 그래도.....

칠성네 : 좌버러라*..... 해순이 같은 젊은 애를 청상으로 늙은 딸가? 차라리 순임처럼 미쳐 죽는 게 나은기라..... 서방 없이 살아서 뭘 할끼고.....

(이때 해순이가 다가온다. 해구를 들고 있다.)

해순 : (땃모르고) 지금들 오십니까?

(아낙 A, B는 새침하다.)

칠성네 : 지금 나가는 길이가?

해순 : 예.....

칠성네 : 퍼떡 다녀옹이라.....

(해순은 의아한 얼굴로 아낙 A, B를 둘러보면서 걷는다.)

07

갯마을, 오영수

■ 전체 줄거리

동해의 H라는 어촌은 어느 갯마을과 같으나 유독 과부가 많은 것이 다른 마을과 다르다. 해순은 뜨내기 고기잡이와 해녀(보자기) 사이에서 난 처녀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바위 그늘과 모래밭에서 바닷바람에 그슬리고 조개 껍질을 만지작거리고 갯냄새에 절어서' 성장한 여인이다. 그녀는 열아홉에 성구에게 시집을 가고,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 가 버린다.

착실한 성구는 혼자 힘으로 홀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를 부양한다. 고등어 철이 돌아오자 성구는 여덟 사람이 한 패가 되어 칠성네 배로 원양 출어를 나간다. 갓 시집 온



S#117. 해순의 집(마루)

(어머니와 성철이가 앉아 있다.)

성철 : 어무니요. 아무래도 형수더러 개가하라고 해야 안되겠 습니까…….

어머니 : 개가야 제 마음인데……. 내가 우에 그런 소리를 하 겠노…….

성철 : 청상으로 늙으라기에는 나이가 아깝기도 하고, 형수는 수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머니 : 하지만서도 네 형 삼 년 상은 보내야 안 되겠나 …….

성철 : 그까짓 혼백도 없는 제사는 차려서 뭘 합니까……. 저 녀이라도 형수 오거든 마땅한 자리에 개가하라고 하시 소…….

어머니 : (무엇인가 생각하는 게 있는 듯) 와, 무슨 소리가 들리더냐…….

성철 : 아니라예…… 상수가 형수를 좋아 하고 있는 눈칩디 다…….

어머니 : 그래? 상수란 놈도 미쳤지…… 첫제사도 안 지난 상 주를 갖고…….

성철 : 어무니예. 요즘 세월에는 수절하는 여자는 없심더…… 형수 장래를 봐서 보내드립시다……. 상수도 형수를 끄찍이 생각하고 있습디더…….

어머니 : …… (한숨을 쉰다.)

S#121. 해순의 집 안방(밤)

(누워 있던 어머니가 들어오는 해순이를 보고 일어난다.)

해순 : 그냥 누워 계시소. 부르셨습니까?

어머니 : 오냐. 게 좀 앉거라!

(해순은 겁을 집어먹은 듯 앉는다.)

어머니 : 성구 첫제사나 지내고 개가를 시키려고 마음먹었다 만…….

해순 : (소스라치게 놀라며) 네?

어머니 : 새파란 청상이 어찌 혼자 늙겠노!

해순 : 어머니!

어머니 : 가면 편한 자리가 있을 낀데, 니도 짐작이 가는 데 가 있을 기라.

해순 : 으흐흐흐…….

(참았던 울음이 터진다.)

어머니 : 얘. 나도 지금까지 수절해 왔다만 그것처럼 참기 어 려운 일도 없느니라. 하긴 말이 있을 때 훌쩍 떠나는 게 편킨 하지.

해순 : 아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 과부가 과부심정 안다카는데, 이걸 가지고 상수를 따라 가거라.

(끼고 있던 은반지를 빼서 해순의 손에 꼭 쥐어 주며)

어머니 : 애야, 상수만한 사람도 쉽지 않을기라.

해순 : 어머니…….

어머니 : 상수야 진짜 바닷놈이 아니래서 마음이 놓인다. 끄 짝이도 예편네를 귀여워했다니까 니도 귀염받고 살 수 있을 기다.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서럽게 느껴 운다.)

어머니 : 객지에 들어온 뜨내기가 돼서 께름칙하다마는……. 바닷놈이 아닌데…… 그만하면 됐지…….

S#122. 동(同) 밖(밤)

(마루에 앉은 성철이도 눈물을 흘리며 방안에 얘기를 듣는 다.)

어머니 E* : 아가야! 성구 아버지가 안 계신데 널 맞어들었구 나……. 그때 얼마나 기뻐는지 아느냐! 그런데 석 달 을 못 채우고 헤어지는구나…….

해순 E : 어머니 안 가요. 전 안 갈랍니다. 어흐흐…….

어머니 E : 가야 한다. 네가 잘 되는 길을 내가 왜 막나? 네 시동생 성철이도 형수를 끄찍이도 생각했느니라…….

(성철이도 눈물을 흘린다.)

S#123. 다시 방 안(밤)

(아직도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해순)

어머니 : 그만 해 뒤라……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새서방 찾아 개가하는 게 조금도 흥이 못된다…….

S#130. 노송이 있는 곳(새벽)

(아침 안개가 흐르고 있다. 상수가 보따리를 깔고 앉아 해 순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해순이 온다.)

상수 : (반갑게) 해순이 잘 왔어…… 잘 왔어…… 어서 떠나 자…….

해순 : …….

(상수는 해순의 허리를 안아 주며 걷는다.)

S#131. 약간 떨어진 곳(새벽)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성철. 마구 눈물이 흐른다.)

성철 : 형…… 형, 형수가 가요…… 형.

(떠나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성철)

S#132. 언덕 위

(올라온 성철이가 사라져 가는 상수와 해순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S#133. 부감*

(멀리 상수와 해순이가 간다. 해순은 차마 바다를 떠나기 어렵다는듯, 몇 번이고 돌아선다. 돌아서면 상수가 바로 세우고, 다시 돌아서면 상수가 바로 세운다.)

*좌버려라 : '치워 버려라'의 사투리. '그만 뒤라'라는 의미.
 *E : 효과음.
 *부감 : 높은 곳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기법.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① 해순 :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여인으로, 열아홉에 성구에게 시집을 가나 폭풍으로 돌아오지 않는 성구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수를 따라 나선다. 상수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바람에 혼자 남아 산골에서 살면서 바다를 그리워하다가 갯마을로 돌아온다. 바다에 신들린 여인이다.
- ② 성구 : 해순이의 첫 남편으로, 착실한 어부로 혼자 힘으로 홀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를 부양하며 살아간다. 고등어 철이 돌아오자 한 패를 만들어 칠성이네 배로 원양출어를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인물이다.
- ③ 시어머니와 마을 아낙네들 그리고 노인들 : 전형적인 바닷사람들로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정적인 인물들. 시어머니는 갯마을에서 과부로 살아온 사람으로, 자신처럼 혼자된 며느리를 안타까워하여, 며느리를 개가시켜줄 정도로 인정이 많음.
- ④ 상수 : 해순이의 두 번째 남편. 밤중에 몰래 해순을 범하고는 해순의 시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해순을 데리고 산골로 감. 채석장에서 일함. 해순을 범하려는 채석장 감독관을 쫓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됨(소설에서는 징용간 것으로 나옴)
- ⑤ 성철 : 성구의 동생. 형수를 진심으로 위하고 아낌.
- ⑥ 해순모 : 갯마을에 와서 결혼생활을 함. 남편과 사별. 해순이 때문에 고향 바다로 가지 못하다가, 해순이를 시집 보낸 후, 자신이 고향 바다로 돌아감. 해순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을 하며 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함.

☒ 구성

- ① 발단 : 경부선 기차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남해안 이천리라는 평화로운 갯마을의 성구에게 열아홉인 해순이 시집간다.
- ② 전개 : 마을 남자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간 성구가 풍랑에 휩싸여 죽자, 해순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성철이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청년 상수와 연애한다는 갖가지 소문에 시달리자 성철은 어머니를 설득해 형수인 해순을 상수에게 개가시키라고 권유한다.

- ③ 위기·절정 : 해순은 상수와 함께 갯마을 떠나 산골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상수가 산에서 실족하여 세상을 떠나고 만다.
- ④ 결말 : 온갖 어려움 끝에 해순이 그리워하던 갯마을로 돌아온다.

☒ 주제 : 존재의 근원인 바다로의 회귀와 원시적이고 건강 한 삶의 추구, 어촌의 토속적 삶에 담긴 서정과 애환

■ 작품 해설

'갯마을'은 오영수의 단편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서, 바닷가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갯마을은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원형이 이루어지는 토속적 공간으로서 주인공 '해순'에게는 이상 세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고등어철이 돌아옴과 함께 주인공이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것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동일시하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결과로, 회귀 본능의 실현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깨닫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토속적이고 서정적인 작품 세계는, 인정이 메말라 가는 현대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 준다.

■ 참고

● 주된 스토리를 형성하는 남녀 간의 성 문제
 해순이가 여러 남자를 거치는 것은, 그녀가 세속적이거나 반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런 성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녀간의 애정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 그 자연적 질서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 바로 해순이일 뿐이다. 원시공동체의 '공유하는 성'의 모습이 갯마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원시공동체로서의 이상향의 이미지인 '바다'
 이 작품의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은 '바다'이다. 해순이에게 바다는 생활의 터전이라는 부수적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인 것이다. 바다가 없이는 한 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바다는 그녀에게 이미 종교와 같은 세계이다. 바다는 자연의 원시성이 살아있는 이상향인 것이다.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갈등이 없는 화합의 세계, 문명적 요소가 없는 원시적 세계, 건강한 생명의 약동이 있는 세계이다.



08

흥, 이광수

■ 전체 줄거리

허승은 보성 전문을 다니는 농촌 출신의 고학생으로 윤 참판의 집에서 가정 교사로 기거한다. 여름 방학동안 살여울에서 야학을 하던 허승은 유순과 언약을 하고 성루 윤 참판택으로 돌아와 윤 참판의 죽은 큰아들 대신 집안 일을 도맡아 시피 한다.

민족주의자인 한민교 선생 집에서 미국 박사 이견영과 심순례는 서로 만나 결혼을 약속하지만, 이견영은 윤 참판의 친척인 윤한은의 손녀 은경과 혼인하기 위해 심순례를 버린다. 갑진과 허승은 고등문관 시험을 치르러 일본에 가지만 허승만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 허승은, 신교육을 받고 미모가 뛰어난 윤 참판의 딸 정선과 혼인을 하지만 시골에 두고 온 유순 때문에 고민을 한다. 허승은 변호사 일에 열증을 느끼고 부귀영화와 개인적 향락에 눈먼 정선에게도 실망을 하던 중에, 유순관과의 일 때문에 정선과 다투고 살여울로 돌아가 농촌 계몽사업에 몰두하여 살여울을 몰라보게 변모시킨다.

허승은 살여울로 찾아온 정선에게 함께 농촌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되고, 정선은 이를 탐탐해 하지 않는다. 허승은 농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병이 들고 만다. 유순의 연락을 받고 살여울에 내려온 정선은 허승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하여 시골에서 살 것을 결심한다.

서울로 돌아온 정선은 살여울을 떠날 때의 마음이 사라지고 갑진과 불륜을 저지른다. 이견영의 편지를 통해 이를 확인한 허승은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 여관을 정하고 외출했다가 친구들을 만나 그들에게 끌려 기생집에 간다. 여기서 허승은 산월을 만난다. 산월은 전문학교를 나온 인텔리 여성으로 본명은 백선희인데, 정선의 친구로 정선의 집을 드나들 때 허승을 만난 바 있어 그를 알아보고 허승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갑진과 간통한 정선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다가 허승을 만나기 위해 살여울로 떠나지만 허승과 길이 어긋나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되돌아온다. 허승은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지만 정선의 태도에 끝내 실망하고 이혼하고 싶을 때 도장을 찍으라며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준다. 그리고 정선이 시집을 때 가져온 재산을 윤 참판 앞으로 공증해 놓고 살여울로 떠난다. 허승은 살여울로 향하는 기차에서 산월(백선희)을 만나 동행하게 된다. 이때 자살하려고 열차에 뛰어든 아내 정선을 발견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 산월과 정성을 다해 간호하지만 결국 정선은 한쪽 다리를 잃고 만다. 이후 정선과 산월은 살여울로 같이 내려가 허승과 함께 농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산월은 유치원을 경영하고 정선도 농촌의 불편한 삶에 서서히 적응해 간다.

그러나 살여울의 부자이며 고리 대금업자인 유 산장의 아들 정근이 등장하면서 조용하던 살여울에 분란이 일어난다. 허승을 받들며 따르는 유순은, 그의 권유로 듬직하고 건강하지만 불같은 성질을 지닌 한갑과 혼인한다. 유정근은 허승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며, 이의 한 계획으로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 즉 허승은 윤 참판의 딸 정선을 후려 혼인했으나, 다방골 여의사와 유순과 산월을 건드려 정선이 이에 반감을 일으켜 갑진과 간통했으며, 산월과 승이 타고 가는 기차에 정선이 뛰어 들었다는 내용을 퍼뜨린다. 한갑은 유정근의 악의적인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임신 오 개월이 된 유순을 구타하여 죽인다. 이 일로 승, 한갑, 선희, 작은 갑은 징역을 살게 된다. 홀로 남은 정선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살여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허승이 없는 살여울 사람들은 정근의 횡포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먼저 출소한 작은갑이 정근을 위협하여 마을의 이익을 되찾으며 작은갑의 헌신적인 행위에 감동한 정근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견영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유학을 떠났던 순례는 귀국하여 독주회를 열게 되고 독주회장에 나타난 이견영과 재회하는 순간 그녀는 기절한다. 순례는 한민교 선생과 함께 정선이 있는 살여울로 떠난다. 그들은 도중에 가차안에서 갑진과 만난다. 갑진은 정선과의 불륜 이후 느낀 바가 있어 검불랑에서 개간 사업 등을 펼치며 그간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었다. 소설은 비록 허승과 한갑이가 아직 감옥에 투옥되어 이혼 상태에서 끝나지만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암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작품 읽기

선희는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에 들어갔다. 선희는 여자라는 특별 대우로 포승은 지우지 아니하였다. 소장실에는 테이블 하나와 교의 둘이 있었다.

수염 깎은 자리가 시퍼렇고 머리가 눈썹 바로 위에까지 내리달린 소장은 선희를 보고 교의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고꾸고가 와까루까?(일본말을 할 줄 아나?)” 하고 물었다.

“너는 기생이라지?” / 하고도 물었다.

“너는 허승의 정부라지?” / 하고도 물었다.

선희는 ‘네’, ‘아니오’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왜 살여울*을 왔느냐?” / 하고 물었다.

“유치원 하려고 왔소.” / 하고 선희는 대답하였다.

“유치원은 왜 해?”

하고 소장은 또 물었다.

“내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오.”

하고 선희는 대답하였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 아 니야?”

하고 소장은 소리를 높였다.
 선희는 대답을 아니하였다.
 “그렇지? 허승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공명해서 제 돈을 가지고 와서 유치원을 하고 야학을 하는 것이지?”
 하고 소장은 한 번 더 울렸다.
 “조선 사람이 하도 못 사니까 좀 잘살게 해 보려고 힘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요? 유치원 하고 야학 하는 것이 무엇이 죄요?”
 하고 선희는 날카로운 소리로 들이쳤다.
 “나마이끼나 유우나!(건방진 소리 마라!)”
 하고 소장은 테이블을 쳤다.
 선희의 대답이 소장의 심증을 해한 것이었다.
 선희는 소장이 자기에게 대하여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대관절 무슨 죄로 나를 잡아왔소. 나는 어린아이들과 글 모르는 부녀들을 가르친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소.”
 하고 선희는 찢어지는 소리를 질렀다.
 선희는 스스로도 놀라리만큼 큰 소리를 내었다.
 이것이 소장의 심정을 더욱 좋지 못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년! 예가 어딘 줄 알구?”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선희의 뺨을 한 번 갈겼다.
 “이년을 묶어라!”
 하고 소장은 분개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사는 포승을 내어서 선희를 묶었다. 그리고 신문하던 조서 끝에, ‘피의자(선희를 가리킴)는 성질이 흉악하고, 언동이 오만하고 교격(矯激)하여* 신문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폭언을 토하고……’ 하는 구절을 써 넣었다.
 선희는 낮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순사에게 끌려서 자리에 돌아왔다.
 “어디라고 그런 버르장머리를 해?”
 하고 끌고 온 순사는 한 번 선희를 노려보았다.
 “오, 경관이란 건 무죄한 사람을 때리라는 것이냐?”
 하고 선희는 대들었다.
 “건방진 년. 이년, 어디 경을 좀 단단히 쳐 보아라.”
 하고 주먹으로 한 번 선희를 때릴 듯이 울르고,
 “허승이!”
 하고 굵단 소리로 부르며, 승의 팔목과 허리를 비꼬려면 포승을 심술궂게 잡아챈다.
 승은 순사에게 끌려 소장실로 들어갔다. 소장은 선희에게 대해서 발한 분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아니하여서 담배를 뽕뽕 빨고 있었다.
 소장은 채 아니 탄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더니 주소, 성명 등을 묻는 것도 다 집어치우고, 앉으란 말도 없이 다짜고 짜로,

“너는 어째서 사람을 죽이게 했어?”
 하고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사람을 죽이게 한 일이 없소.”
 하고 승은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없다?” / 하고 소장은 반문하였다.
 “없소!” / 하고 승은 여전히 냉정하였다.
 “그러면 모강꼬(맹한갑)의 아내 유순이가 왜 죽었던 말이나?”
 하고 소장은 언성을 높였다.
 “유순이가 죽은 것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있을 수 없소.”
 “있을 수 없어?”
 “없소.”
 “모강꼬는 내가 죽이라고 해서 죽었다는데.”
 “그런 몰상식한 일이 있을 리도 없고 맹한갑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소.”
 소장은 화두를 돌려,
 “유순은 네 정부지?”
 하고 승을 노려보았다.
 “그런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아니되오.”
 하고 승은 언성을 높여서,
 “유순은 내가 중매를 해서 맹한갑과 혼인하게 된 남의 정당한 아내요.”
 하고 말끝에 더욱 힘을 주었다.

*살여울 : ‘물살이 급하고 빠른 여울물’ 을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마을의 고유 명사로 사용됨.
 *교격하다 : 성질이 굳세고 과격하다.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① 허승 : 보성 전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지만 한민교 선생의 조선주의에 입각한 귀농의식을 받들어 살여울에 내려가 농촌 계몽에 투신하는 인물
- ② 윤정선 : 윤 참관의 딸이며 허승의 아내로 허영심이 강한 여성. 갑진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려다 한쪽 다리를 잃고 남편의 농촌 운동을 도움
- ③ 김갑진 : 허승의 친구이며 도시 지향의 이기주의자. 일신의 성공과 향락에 젖어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하지만 허승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후에 검불랑에서 농촌 운동에 헌신
- ④ 유순 : 살여울에 사는 농촌 여성. 허승과 장래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허승과 정선의 결혼으로 실연의 아픔을 겪은 후에 살여울에서 허승의 농촌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움. 허승의 주선으로 맹한갑과 정혼하지만 유정근의 이간질로 오해를 받고, 한갑의 매에 맞아 죽게 됨



☒ 구성

- ① 발단 : 여름 방학 동안 야학을 마치고 상경하는 허승. 유순이를 그리워함
- ② 전개 : 허승. 정선과의 갈등 심화로 낙향을 결심함
- ③ 위기 : 정선의 자살 기도. 정근의 밀고로 허승의 투옥. 살여울, 과거의 암울한 생활로 회귀
- ④ 절정 : 작은갑의 헌신으로 마을의 이익 되찾음. 정근의 잘못 시인
- ⑤ 결말 : 허승의 영향으로 귀농해 개간 사업하는 김갑진

☒ 주제 : 피폐한 농촌의 계몽과 귀농의식

■ 작품 해설

‘흙’은 이광수가 편집국장으로서 있던 「동아 일보」에 1932년 4월 12일부터 1933년 7월 10일까지 총 291회에 걸쳐 연재한 소설이다. 이때는 일제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단정치를 다시 강화하던 시기였다. 「동아 일보」는 이런 시대적 암흑기에 ‘브나로드’ 운동을 들고 나와 농촌계몽을 주도하였다.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에서 지식인들이 ‘대중 속으로’를 부르짖으며 대중 계몽을 시도한 지식인 귀농 운동이었다. ‘흙’은 이 운동을 소설화시킨 대표적인 작품이다.

‘흙’의 서사구조는 삼각관계로 짜여진 연애 소설이다. 삼각관계는 대중의 시선을 가장 빨리 끌어들이 수 있는 대표적인 통속 소설의 한 유형이다. 이광수가 삼각관계로 소설을 써나간 것은 이미 그의 최초의 장편 소설이자, 현대문학사의 획기적인 장을 연 기념비적 작품 ‘무정’에서부터 즐겨 이용한 수법이다. ‘흙’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변함이 없다. 허승을 중심으로 도회지의 정선과 시골의 유순이 배치되며, 정선을 중심으로 허승과 갑진이 대립하며, 유순을 중심으로 허승과 한갑이 갈등하도록 인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광수가 자신의 창작 원형을 연애 소설의 기본구조에 둔 것은 일단 삼각관계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독자를 소설에 끌어들이고, 그 사탕발림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는 식으로 소설을 써나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광수의 ‘흙’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각 연애 관계의 표피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겨진 의도로 파악해야 한다.

‘흙’의 심층구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인물들이 종국에는 농촌으로 복귀한다는 대명제의 실천이다. 귀농 사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광수는 농촌 출신 고학생 허승을 소설의 중심 배치하였다. 농촌 출신이면서 가난한 허승을 도회지 윤참관 댁에 가정교사로 등장시켜, 시골 청년의 야망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허승은 농촌의 가난한 청년의 탈을 벗고 도회의 안락과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해 윤 참관 댁의 수치를 감내한다. 그는 마침내 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며, 윤 참관의 재색을 겸비한 딸 정선을 아내

로 맞는다. 이것으로 일단 허승의 상류사회의 편입은 완료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광수가 본격적인 의도를 펼치기 위한 준비 단계나 다름 없다. 진정한 의도는 허승이 상류사회의 물질만능과 향락과 이기주의와 타락한 삶에 회의를 느끼고 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신이 지녔던 욕망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이 허위의 삶을 깨우치고, 분명히 그에서 탈출하여 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내려 온다는 상황 설정은 이광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흙’에서는 허승을 중심으로 도회와 농촌이 대비되는데, 도회의 인물들인 김갑진, 윤정선, 이건영 등이 이기주의, 향락주의, 반민족적 행위를 주도하는 속물적인 인간들이라면, 농촌의 인물인 유순, 한갑, 작은갑을 위시한 살여울 사람들은 구조적 모순에 자기도 모르게 희생되는 희생양들이다. 농촌의 인물들 중에도 고리대금업자 유 산장과, 일체의 앞잡이 순사나 기수는 악의 인물에 해당한다. ‘흙’이 지니는 생명력은 이들 도회의 인물이나 악의 표상들이 허승의 인격에 감화되어 선한 인물로 변모하며, 희생양이 된 농민들이 이상을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

09

금방울전, 작자 미상

■ 전체 줄거리

명나라 초엽에 장원이라는 한 선비가 아들을 낳아 해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뒤에 난리를 만나 피난길에 장원부부가 해룡을 버리자, 도적인 장삼이 해룡을 업고 강남고군으로 달아났다. 또, 김삼랑의 처 막씨는 효성이 지극하여 꿈을 꾸어 옥황상제로부터 아이를 접지받고, 죽은 남편의 혼과 동침해서 금방울을 낳았다.

금방울은 신출귀몰하는 재주로 어머니를 도와 온갖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이웃의 무손이 훔쳐갔는데 불이 일어나 가재도구를 모두 불태웠다. 또 고을 원님인 장원이 막씨를 가두고 금방울을 처치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큰 혼만 당하고 금방울과 막씨를 풀어주었다. 장원의 부인이 병을 얻었는데 금방울이 부인의 생명을 구해준 인연으로 장원 부부는 막씨와 결의형제하고, 그 뒤로는 금방울이 장원부인과 막씨 사이를 오가면서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루는 금방울이 장원에게 난리 중에 잃은 해룡(海龍)의 모습을 그린 족자를 가져다준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때 태조고황제가 난을 평정한 뒤 늙어서 금선공주를 얻었다. 하루는 황후와 공주가 시비와 함께 달구경을 하다가 요귀에게 납치당하자, 황제는 공주를 찾아주면 천하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써붙인다. 한편, 해룡은 장삼의 아내 변씨의 학대로 어려운 일만 당하는데, 그때마다 금방울이 나타나 도와준다.

그러나 해룡은 구박을 못 견디어 변씨집을 나와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금털이 난 머리 아홉 개 가진 요귀를 만나 위태롭게 된다. 이때 금방울이 나타나 요귀에게 먹였으며 해룡은 금방울을 구하려고 간신히 굴속을 기어 들어가 금선수부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 앞에서 피묻은 옷을 빼는 시녀를 만나 그녀가 준 보검으로 요귀를 찔러 죽였다. 해룡이 금방울을 구하고 공주와 시녀들을 무사히 데려오자 황제는 해룡을 부마로 삼았다.

금방울을 잃고 슬퍼하던 막씨와 장부인은 금방울이 다시 돌아오자 기뻐하였다. 막씨와 장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선관이 나타나 딸과 아들을 각각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준다. 꿈을 깨니 금방울은 간 곳 없고 금방울의 껍질에서 벗어난 선녀가 앉아 있었다. 해룡은 나라의 변방이 다시 어지러워지자 순무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게 되었다. 장원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목계 되는 날 밤에,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고 죽자로 인연하여 드디어 부자(父子)가 상봉한다. 이에 황제는 금방울을 황후의 양녀로 삼아서 해룡과 결혼(結婚)시켰다. 해룡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富貴功名)으로 일생을 누리다가 두 부인과 함께 백일승천(白日昇天)하였다.

■ 작품 읽기

깃발과 창칼이 일월을 가리우고 벽력 같은 함성이 산천을 움직이는 곳에 한 사람의 소년대장 원수가 봉(鳳)의 깃으로 꾸민 투구에 황금색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 상방검을 들고 왼손에 백우선을 쥐고 천리 준마를 탔으니 사람은 천신(天神) 같고 말은 비룡(飛龍) 같으며 군용이 정제하고 위기가 엄숙하여 일대 영웅이요 만고(萬古)*의 남자라. 호호탕탕히 나아가니 보는 자 칭찬치 않는 이 없더라.

각설. 호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창에 다다라 원수의 대군을 만나매 마향령 아래 대진하매, 호각이 오색 신우(迅羽)*를 몰아 전진에 서니 허리는 열 아름이요 얼굴은 수레바퀴 같고 머리칼이 누르러 검은 얼굴을 덮었으며 손에 장창을 들고 내달으니 좌에는 설만춘이요 우에는 호달이었다. 각각 신장이 구적이요 얼굴이 흉악하고 형용은 괴이하였고 또한 진중으로부터 일원 대장이 나서니 얼굴은 관운장 같고 곰의 등에 이리의 허리요 잔나비의 팔일러라. 위풍이 늙름하고 위기가 정제하여 당당한 풍도는 사람을 놀래고 현현한* 위엄은 북해를 뒤침과 같았으며 호각이 한번 바라보고 대호(大呼)*하여 말하기를

“구생유취 어린아이가 천시를 모르고 망녕되어 전진(戰陣)에 나와 어른을 수욕코자 하니 네 어찌 칼 아래 놀란 혼백이 되려 하는고?” / 원수가 대노하여 좌우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넌 나를 위하여 능히 나아가 저 도적을 잡아 근심을 덜게 하리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한 장수가 내달으니 이양춘이라. 칼

춤추며 나아가 바로 호각을 돕는 설만춘과 오십여 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걸치 못하더니 문득 설만춘이 거짓 패하여 달아나거늘 이양춘이 승승장구하여 나가며 꾸짖기를

“적은 단지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으라.”

하더니 설만춘이 가만히 활을 쏘매 이양춘이 무심중 따르다가 정히 화살을 왼편 어깨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니, 원수 진영으로부터 장만이 내달아 이양춘을 구하여 돌아가니, 또한 설만춘이 말을 돌려 따르거늘 장만이 크게 노하여 말을 비끼고 설만춘을 맞아 싸와 십여 합에 승부가 나지 않더니 또다시 호달이 나와 좌우를 깨치며 승승하여 들어오니 장만이 패하여 닫는지라. 원수는 장만이 패함을 보고 징을 쳐 군사를 거두고 이양춘을 조리하라 하니, 호각이 명일에 싸우자 하고 옥설을 무수히 하며 좌우로 말을 타고 달리거늘 원수가 크게 노하여 창을 잡고 말을 달려 호각을 맞아 싸와 백여 합에 이르도록 승부가 미결하더라.

양진의 군사가 물뚫듯하여 행로를 차리지 못하니 문득 호각 진중으로부터 징을 치니 호각이 본진에 돌아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내 적장이 나이 어림에 업신여기었더니 이제 보니 그 용력을 당하기 어려운지라 마땅히 계교를 써서 잡으리라.”

하고 진문을 굳게 닫고 기치를 누이며 검극을 거두더라. 원수가 또다시 내달아 싸움을 돋우니 적장 호각이 진문을 크게 열어젖히고 크게 꾸짖어.

“오늘은 너와 자웅(雌雄)을 결하려니와 만약 내 너를 잡지 못하면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오십여 합에 승부를 결하지 못하였더니 문득 호각이 말을 돌려 본진으로 가지 아니하고 산곡(山谷) 중으로 닫는지라. 원수 말을 놓아 따르며 생각하되, ‘저희 비록 간계가 있는 모양이나 내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오.’ 하고 바빠 쫓아 양 산곡 중으로 들어 사로잡고자 할 즈음에, 호각은 보이지 않고 허수아비가 무수히 섰거늘 원수가 크게 의심하여 말을 돌이키고자 하였더니, 홀연히 일성 포성에 이어 두 편 언덕으로부터 불이 일어나 화광(火光)이 하늘에 맞닿고 그런 무수한 허수아비가 다 화약을 써서 세운 것이 많으니 나아갈 길이 없는지라 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기를

“내 도적을 업신여기어 이곳까지 왔다가 오늘 여기 와서 죽을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하고 칼을 줄을 빼어 자결코자 하니라. 이때 문득 서남쪽으로 공중으로부터 금빛이 떠오르며 금방울이 화광을 무릅쓰고 들어와 원수 앞에서 찬바람을 일으키니 충천하던 불꽃이 원수의 앞에는 일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물러가더라. 원수가 금방울을 보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네의 후은(厚恩)을 생각할 양이면 태산이 가볍고 강과 바다가 얕은지라 어찌 다 갚으리오.”

하며 못내 기쁘고 즐거움을 마지 아니하더라. 문득 경각에



불기운이 스러지고 길이 열리는지라 원수가 크게 기뻐하여 금방울을 데리고 길을 찾아 본진으로 돌아오매 제장 병졸이 황황망조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천만 뜻밖에 원수가 돌아옴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신기히 여기어 용약하며 환성이 천지를 진동하더라.

이에 원수가 본진 장대에 앉아 제장 군졸을 불러 말하기를

“호각이 반드시 우리 진을 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계교 위에 계교를 쓰리라.”

하고 다시 제장을 불러 귀에 대어 일어 말하기를 ‘제군은 여차여차히 하여 약속을 잊지 말라!’ 하고 분부하기를 정한 후에 원수가 가만히 진을 다른 데로 옮기었으니 이때 호각이 원수를 유인하여 산곡 중에 에워 놓고 본진으로 돌아와 제장을 불러 말하기를

“장해룡이 비록 하늘로 솟고 땅으로 숨는 재주가 있다하나 어찌 오늘의 불길을 벗어나며 어찌 죽기를 면하였으리오. 오늘 밤에 가히 원진을 치리라.”

하고 이날 밤에 호각이 군을 거느리고 가만히 원진으로 들어가니 진중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빈 채만 남았는지라 호각이 깜짝 놀라 급히 군사를 돌이키고자 하니 문득 한발 포성이 터지며 한 장수가 길을 막으며 칼을 들어 꾸짖어 말하기를.

“적장 호각은 나를 아느냐?”

호각이 황망한 중에 언뜻 보니 장원수라 호각이 대경실색하며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원수의 칼이 빛나는 곳에 호각의 머리가 팔 아래에 떨어지는 것이었고 만춘과 호달 등 여러 장수들이 호각의 죽음을 보고 혼백이 비산(飛散)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본진을 바라보고 달아나니 본체에 이르러 보니 원진에서 기치를 세우고 장만이 내달아 한 창에 호달을 찔러 죽이고 설만춘은 달아나다가 양춘을 만나 일합에 죽인 바 되고 기타 제장과 군졸을 다 무찔러 죽이고 돌아오더라.

* 만고 : 세상에 비길 데가 없음.

* 신우 : 멧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매, 바다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따위가 있음.

* 현현한 :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내다’의 뜻인 ‘현현(顯現)하다’의 오기로 보임.

* 대호 : 큰 소리로 부름.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금방울의 탈을 쓴 금령이 남자 주인공(主人公)을 도와 괴수를 퇴치하고, 액운을 다한 뒤 탈을 벗고 둘이 부부가 된다는 설화적인 요소가 짙은 전기소설로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보이는 작자 · 연대 미상의 전기소설로 '금령전(金鈴傳)'이라고도 한다. 주인공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으로 태어난 장해룡(張海龍)과, 하늘에서 죄를 지어 금방울의 탈을 쓰고 태어난 용녀(龍女)이다. 흉노(匈奴)의 침략 등 온갖 괴란 속에서 금방울은 해룡을 도와 큰 공을 세우게 하고, 해룡은 마침내 국왕의 사위가 된다. 그 후, 금방울이 인간의 액운이 다하여 탈을 벗고 절세미인이 되자 국왕이 중매하여 장해룡과 인연을 맺게 한다. 해룡은 공주와 금방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공주는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고, 해룡과 금방울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중국을 무대로 하였으며, 줄거리가 복잡하면서도 비교적 짜임새가 있는 낭만적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여주인공 금령이 금방울 모양으로 태어나서 별이는 신기담을 흥미 있게 전개해 놓은 전기소설이다. 이 작품의 가치관은 해룡과 금령의 '남녀 결합'과 '부귀획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 작품을 쓴 작가의 가치관인 동시에 독자층인 여성 독자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계층의 행복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금령의 초월적인 힘은 미천하게 태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독자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 해룡과 <김원전>의 김원은 똑같이 요귀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한다는 구성을 하고 있고, 또한 김원의 장자가 해룡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보면 작가가 <김원전>을 모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 작품의 머리 아홉 개 달리 요귀를 퇴치하는 모티브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내용에 있어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금방울의 변신모티브는 <박씨전>에서의 박씨부인의 변신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 참고

☒ 전래 설화의 주요 모티프가 수용됨

- 난생 설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시에 설화, 계모 설화, 변신 모티프

☒ 페미니스트와 여성 의식

이 작품은 여성의 활약을 다룬 소설로 금방울은 여성으로서 막강한 도술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 이것은 여성도 강한 힘으로 나라에 공을 세우고 남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여성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박씨전'과는 달리 금방울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전생의 남편 해룡을 돕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여성관을 반영한 결과이며, 제한된 여성의식의 발로이다. 이런 연유로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는 아쉬운 작품이다.

☒ 영웅 소설의 특징

난리 중 피란길에 부모를 잃음	장삼의 도움	변씨의 계략	금방울의 출현
어린 시절의 고난	제1조력자	고난 시작	제2조력자

☒ 금방울과 해룡의 영웅으로서의 면모

	금방울	해룡
고귀한 혈통	남해 용왕의 딸	동해 용왕의 아들
비정상적 출생	죽은 김상랑의 혼과 막씨가 결합하여 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남	장원의 아내의 입으로 들어가 잉태되어 태어남.
탁월한 능력	아무리 해치려 하여도 살아나며 갖가지 신이한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움.	용맹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감.
고난을 겪음	방울을 낳은 막씨가 놀라 없애고자 함	피란길에 부모와 헤어지고 변씨로 인해 어려움에 빠짐.
위기의 극복과 성공	요귀를 물리치고 천상에서 정한 시한을 채운 뒤, 방울의 모습에서 탈각하여 부마의 부인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림.	요귀를 물리치고 부마가 되며, 헤어졌던 부모와 만나고 금방울과 혼인하여 부귀영화를 누림.

☒ 주제 : 금방울이神通한 능력을 통해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부마의 부인이 되어 행복한 생애를 누림.

보라! 이 세상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난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무리가 허다하지 않은가? 그들은 어느 날에 이르러도 자족(自足)함을 알지 못하고, 전혀 필요치 않은 많은 것을 요망한다. 말하자면, 위에는 위가 있다고 할까, 도달할 수 없는 상층(上層)만을 애써 치어다보곤, 아직도 자기에게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포만(飽滿)함을 알지 못하고 ‘충분하다’ 하는 아름다운 말을 이미 잊은 바, 그러한 도배(徒輩)를 사람은 도와줄 리가 없다.

그런데 또 보라! 이 세상에는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넉넉하고 행복하다 생각하며, 사실에 있어 또 이 느낌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허다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에게겐 명색이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음은 물론이요, 대개는 손으로 벌어서 입으로 먹는 생활이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조차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밑에는 밑이 있으니까 밑만 보고, 또 이 위에도 더욱 가난할 수 있을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박(切迫)된 곤궁 속에 주리고 있는가 생각한다. 이리하여 이 위안(慰安)의 명류(名流)*들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힘과 사랑을 어딘지 다른 곳에 다 두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래가 빈부나 행복의 객관적 표준은 있을 수 없으므로, 빈궁의 문제를 쉽사리 규정하여 버릴 수는 없다. 문제는 오직 조그만 주머니가 곧 채워질 수 있음에 대하여, 구명난 대낭(大囊)*이 결코 차지 않는 물리적 이유에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빈부나 행복의 최후의 결정자는 그 사람 자신일 뿐이요, 주위에 방황하는 제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이 참된 부유를 자손을 위하여 남기려거든, 드디어 한(限)이 있는 물질보다는 밑을 보는 재조(才燾)와 결핍(缺乏)에 사는 기술을 전함에 지남이 없을 것이다. 자족의 취미와 자기의 역량을 어딘지 다른 곳에다 전치(轉置)할 수 있는 정신적 재능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한 부자에게 하는 바 2대 요소이다.

*명류: 널리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대낭: 큰 주머니.

10

청빈예찬, 김진섭

■ 작품 해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에 대한 언급한 글이다. 부자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난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의식을 대조하고 있다. 또한, 결핍의 상황을 자족하며 자신의 역량을 다른 곳에 옮기는 정신적 재능이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 자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

■ 작품 읽기

혹은 부유(富裕)라 하며 혹은 빈곤(貧困)하다 말하나, 대체 부유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며 빈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대체 얼마나 적게 가져야 되느냐? 그러나 물론 이것을 아는 이는 없다.



11

아벨만의 재판, 이근삼

■ 전체 줄거리

중립국의 작은 마을에서 주인공인 아벨만과 루시아가 결혼을 한다. 결혼식 후 열린 마을 회의에서 제3국의 연락관이 전쟁 중의 반역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마을 출신인 연락관은 수십년 전 지주인 아버지가 저지른 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외국으로 도망간 과거를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 끝에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대상으로 선량한 아벨만을 낙점하고 형식적인 재판을 하였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벨만은 적군에게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5년형을 선고받는다. 마을 사람들의 항의로 아벨만은 풀려났으나 유지들이 이에 책임을 지고 수감된다. 작가는 연락관의 과거를 밝히려겠다고 협박하여 이들을 석방케 한다하고 재정관과 부인은 아벨만에게 자살한 것처럼 꾸민 뒤 몰래 떠나라고 중용한다. 아벨만은 올바른 재판을 하자며 강변하며 자존심을 지키려하고 아벨만과 루시아 부부는 죽고 마을사람들은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 작품 읽기

앞부분의 줄거리 | 전쟁을 겪은 중립국의 작은 마을에 해방군 사령부에서 총독 격의 연락관이 부임하여 마을 유지들에게 전범자의 자율적인 색출을 명령한다.

교장: 근데…… 전범자 처리 문제는 어떡하죠?
여사: 그건…… 형식적으로 적당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령부의 체면만 세워주면 될 텐데…….
미망인: ……없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기가 저도 피난을 못가고 적지에서 산 몸이라 큰소리는 못 치지만.
작가: 그 연락관이 좋아하지 않을 걸요.
읍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량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사령부의 후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작가: 그러니 살기 위해서 전범자를 하나 둘씩 만들어 제물로 바치자, 이거군.
읍장: 표현이 과합니다.
여사: 글썸…… 부인도 계시고…… 재정관도 있지만…… 일단 적군 점령 하에서 산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소, 교장?
교장: 그럴 것 같군요.

중간 부분의 줄거리 | 마을의 유지들은 적군이 점령해 있던 동안 마을에서 지낸 사람 중에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청년인 아벨만에게 간청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

유지들 중에서 교장이 재판장 역할을, 재정관이 검사 역할을 맡는다.

재정관: …… 적군이 후퇴할 때 피고는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 못 할 이적 행위입니다.
교장: 피고는 적군에게 식량을 주었나?
아벨만: 천만에요. 뺏겼습니다.
교장: 그걸 누가 증명하지?
아벨만: 사실이 그런 걸요. 적병 다섯 명이 총을 들고 들어와 식량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더군요.
읍장: 그래도 거절을 했어야 할 것을
아벨만: 거절요? 읍장님도 거절은 못 했을 겁니다.
읍장: 왜?
아벨만: 몰라서 묻습니까? 몇 년 전에 읍장님 집에 강도가 들어갔죠? 강도 두 명이 칼을 들이대고 노래를 하라니까 읍장님은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춤도 추었다면서요? (사람들이 빙그레 웃는다)
읍장: 저놈이! 그건 강도였어! 강도도 우리 동포야! 적군은 아니었던 말야! 이걸 묵과할 수 없는 법정 모욕이야! 용서할 수 없어!
아벨만: 읍장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뭐 봐주는 줄 알고 법정에서 달라고 간청할 때는 언제고…….
읍장: 듣기 싫다! 저 검사는 후퇴하는 적을 생포까지 했어. 난 뭐야! 그 따위 총부리가 무서워 식량을 내준 주제에.
교장: 자, 진정하시오.
읍장: 진정? 당신은 재판장이 아뇨? 저런 놈을 보고도…….

이때 밖에서 군중들의 ‘아벨만 만세’ 라는 환호성이 들려온다. 모두 놀란다.

교장: 저래서는 안 되는데. 주민들 때문에 하는 일인데. 오히려 입장이 난처하군.
읍장: 바보들 같은 게! 우리의 심정도 모르고.
교장: 뭐…… 또 물어 볼 것이 없습니까?
미망인: 아벨만.
아벨만: 네.
미망인: 할 말이 없나?
아벨만: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읍장님, 미안합니다. ……말을 하면 또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교장: 그럼 재정관, 아니, 피고……도 아니구…….
읍장: 검사. / 교장: 검사. 구형 같은 것이 있어야지.
재정관: 글썸…… 이 재판 자체가…… 약식이고…… 약식이고…… 약식이라기보다는 좀 석연치도 않고…….
작가: 하기가 신고는 우리가 하니까.

재정관: 구형을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저는 구형을 포기하겠습니다.

교장: 이해할 만해. 그럼…… (종이를 돌리며) 아까 설명대로 무기명 기표를 해 주시오. (모두 종이를 받고 서로 얼굴을 본다) 자…… 기표가 끝났으면 이리로 넘겨 주시오.

종이가 넘겨진다. 교장이 계산을 한다. 표정이 굳어진다.

교장: 음…… 이견……

읍장: (종이를 넘겨보며) 음…… 그대로 읽을 수밖에. 평균치를 내시지.

교장: …… 아벨만, 일어나게. (아벨만이 일어난다) …… 본 재판은 피고의 유죄를 확인한다. 피고는 우리의 동향인이요, 평소부터 그 성실함을 잘 알고 있지만 전시 중에 범한 이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특히 피고는 나의 옛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인 내가 이 선고를 내리게 되었으니 그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 사제 간의 정도 외면하고 이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그럼 이것으로……

심판관들이 어색하게 일어나 각자 마음속의 놀라움을 감추기에 애를 쓴다. 재정관이 서류를 꺼안고 불쑥 나가 버린다. 밖에서 ‘아벨만 만세’ 라는 함성이 들린다.

■ 핵심 정리

⊗ 특징

신랄한 풍자와 강렬한 아이러니가 돋보임

⊗ 구조

- ① 발단 : 마을 회의에서 전쟁 중의 반역자를 처벌하기로 함
- ② 전개 : 회의 끝에 아벨만을 재판할 것을 결정함
- ③ 위기 : 유지들이 아벨만 대신 수감되고 아벨만 풀려남
- ④ 절정 : 재정관과 부인은 아벨만 떠날 것을 중용함
- ⑤ 결말 : 아벨만은 죽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묵인함

⊗ 주제 : 전쟁으로 황폐화된 인간의 위선과 이기심 풍자

■ 작품 해설

전범 재판을 소재로 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힘없고 선량한 개인을 속죄양으로 만드는 권력층의 비겁함과 위선을 치밀한 극적 구조로 그린 희극이다. 등장인물인 ‘작가’를 통해 마을 유지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희극성과 강렬한 아이러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수의 힘에 의해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짓밟히는 한 인

간의 처참한 종말을 통해 사회 정의와 진실을 무엇인가, 생존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원칙으로 소수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에 있어서 다수결 원칙은 오류를 범하기 쉬운 법이다. 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철저히 위장된 마을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12

곡예사, 황순원

■ 전체 줄거리

‘나’는 가족과 함께 대구의 변호사 저택의 헛간에서 피란살이를 시작하는데, 주인집에서 구공탄을 들이는 장소로 헛간을 사용하겠다고 쫓아 내자 대구 시내를 전전하다가 결국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다. 처제가 세 들어 있는 모 변호사 집에 얹혀 지내게 되었지만 또 방을 비워 다라는 요구를 받는다. 제때 방을 비우지 못하자 변호사 영감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변호사의 딸들이 방을 점거하고 비워 줄 것을 채근하다. 방을 구할 수 없어 애걸하며 버티자 급기야 집주인은 전기까지 끊으며 압박을 한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며 노래를 부르다가 ‘나’는 자신들이 위태로운 곡예를 하는 ‘곡예사’라고 생각하게 된다.

■ 작품 읽기

안방에 들어갔다 잠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됐다 보다 됐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 달란다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다미 여덟 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고는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 달라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한다는 말이,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티하겠다는 것도 못 하고 있단다는 것이다. 나는 간이 서늘해움을 느꼈다. 금손목시계라니 문체가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갔던 돈은 어쨌느냐니까, 죄우간 딸들 책이라도 한 권 사 보라고 놓고 오긴 했다고 한다. 이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이 돈은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 가 하루를 보낸다. 이곳 피란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 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엘 들러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뺨치고 섰다. 이 녀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딸은 사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 와 자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의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 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티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그러는데 이 말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라 없이, 이삼 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을 한번씩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 시선들이 멀리서 찬 눈초리였던 어쨌든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전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 내게는 이들의 오빠 되는 청년이 내 따귀를 몇 번 갈기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달린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응접실 앞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가를 매만져 주고 있다.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초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학교에서는 동료들에게 또 방 애길 해 보았다. 상급생에게도 점잖지 못한 소릴 해 보았다. 학교가 파한 후에는 차도 안 팔아 주는 다방에 앉아, 아는 친구를 붙들고 구차한 이야기 또 했다.

그리고는 남포동에 와서 장사 간 애들을 기다렸다. 어둑 어둑해서야 애들은 왔다. 시장의 애 엄마는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먼저 들어갔을 것 같다. 곧장 가기로 했다. 남포동서 경남중학 뒤에까지 오는 동안 아주 깜깜하게 어두웠다.

철관으로 된 대문을 밀어 보니 안으로 잠겼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대문에서 마주 보는 우리 방이 새까맣다. 아마 애들 엄마는 아직 시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애들 이모가 일찌감치 어린것들을 채우느라고 불을 끄고 있는 것이리라. 아내를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나는 애들을 데리고 애 엄마가 돌아오려면 으레 그곳을 거쳐야 하는 개천가로 나와 쭉그리고 앉았다.

둘쨌놈이 곁에 와 붙어 앉는다. 큰놈도 와 앉는다. 좀처럼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둘쨌놈 남아가 앉은 채 꼬박꼬박 준다. 이렇게 초저녁인데 꼬박꼬박 준다. 열두 살짜리 어린 육체로써 자기 하는 일이 고된가 보다. 나는 그만 검은 하수구 개천으로 고개를 돌리고 만다. 담배를 꺼내 문다. 성냥이 일어서지 않는다. 공중에서 검은 빗방울이 듣기 시작한다.

큰놈 동아가 혼자 일어나 집 쪽으로 간다. 잠만에 뛰어들면서, 어머니도 돌아오고 대문도 열었다고 한다. 큰놈이 문앞에 가봤더니, 방 안에서 어머니 말소리가 들려 불렀다는 것이다.

방에 들어가 알아보니, 전등은 고장인지 고의인지 저녁부터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녀 전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특수선으로, 물론 지금도 다른 방엔 모두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잠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었다.

애들 이모가 혼잣말처럼 내일은 어느 다리 밑으로라도 나가고 말아야겠다고 한다. 이모의 말이, 여지껏도 그래 왔지만 오늘은 이 집에서 더 어린것들을 못살게 굴더라는 것이다. 이모네 일곱 살짜리 큰놈과 우리의 여섯 살짜리 끝놈이 어찌 다 노래를 부른다든가, 변소에라도 가려 복도로 나가면 시끄럽다고 썩 소리를 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일곱 살짜리가 여봐란 듯이 보무당당히 복도를 행진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할 때, 이쪽 애들이 따라만 해도 다시 고함 소리가 연발되더라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보기에 안된 것은 우리 선아가 역시 계집애는 달라, 동생 애들이 주인한테 꾸지람 듣는 게 보기에 안된 듯, 조금만 애들이 소리를 내도 안타까와하는 모양이 차마 옆에서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애들 이모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죽여 가며 운다. 내 가슴속도 화끈 불이 붙는 걸 느낀다. 그건 대구서 선아의 고무신 한 짝을 잃었을 때에 느꼈던 분노와는 또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여하한 전술을 바꿔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참는 수밖에 없다. 그저 그 전술을 최대한 피할 도리를 강구하면서.

- * 서면 : 부산에 위치한 지역 이름.
- * 회양목 : 회양목과의 상록 활엽 관목. 높이는 7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인데 두껍다.

■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피란지에서 거처할 집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상과제와 각박한 인심 사이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피란지에서 삶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황순원의 전 작품 가운데서도 월남민인 작자 자신의 자전적 요소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피란 생활에서 겪는 셋방살이의 어려움과 아내를 물론 아이들까지 장사에 나서야 하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 자신의 삶이 곡예를 해 나가는 뺨에로의 삶과 같다고 느

끼는 모습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다.

❑ 작가 : 황순원은 86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일평생을 문학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으로 살았다. 작가는 작품으로 이야기한다는 신조 아래 시, 소설 이외의 어떤 잡문도, 어떤 잡투도 거부했던 그는 유년기의 순수한 세계를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로 형상화한 환상적 경향의 소설과 전쟁 및 이데올로기가 남긴 비극적 현실과 비인간화를 비판하는 경향의 소설들을 발표했다. 곡예사는 이 중 후자의 경향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피란지에서의 삶의 고달픔

13

해산바가지, 박완서

■ 전체 줄거리

‘나’는 외머느리가 둘째 딸을 낳아 속상해하는 친구와 함께 산모의 문병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산모를 문병 온 친지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팽배한 남아선호 사상과 성차별에 혐오를 느끼고 친구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다. 병원 잔디밭에 앉은 ‘나’는 결혼할 무렵의 과거를 회상한다.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간다는 친정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결혼한 ‘나’는 별다른 시집살이 없이 살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이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속마음과는 다르게 효부인 척 위선을 떨던 ‘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심신이 황폐해졌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의 친절 식구들의 권유에 따라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맡길 노인 수용 시설일 암자를 찾아 나선 ‘나’는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보고 ‘해산바가지’를 떠올린다. ‘나’가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낳은 동안 정갈한 해산바가지를 이용하여 한결같이 출산 후 간호를 해 주신 시어머니의 차별 없는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한 ‘나’는 남편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나’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방법을 바꾸어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여 건강을 되찾고, 3년 후 평화롭고 순결한 시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하였다.

■ 작품 읽기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마침 가을이었다. 눈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로 가엔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게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맡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뒷도리틀 벗어

게 땀이 배어 있는 게 보였다.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다. 구멍가게 좌판엔 비닐 통에 든 부엌 막걸리와 라면이 진열돼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엔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씩여 있었다.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 없이 낭패스러웠다.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병 마개를 비틀었다. 등허리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 있었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색색 가지 꽃이 오색의 나비 떼처럼 하늘났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했다.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조금도 호방해 보이지 않고 조바심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결눈질했다.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랴까요?”

“당신 시장하오?”

“아뇨, 당신 술안주 하게요.”

“안주는 무슨……”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봐요.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똥찬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났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보고 선달이구만,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 오게 했다.

“잘 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테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이야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 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뽀얀 젓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켕졌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



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이하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연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 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명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 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 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 작품 해설

☒ 등장인물

- ① 나 : 시어머니의 치매에 효부인 척했던 여인
- ② 시어머니 : 손녀 넷과 손주 하나를 똑같이 한 생명으로 간주하고 정성스레 뒷바라지했으나 말년에 노망으로 고

생한 여인

- ③ 남편 : 묵묵히 아내의 뜻을 따르면서도 어머니를 이해하는 아들
- ④ 친구 : 며느리가 둘째도 딸을 낳아 상심하는, 나의 고고 동창

☒ 구성

- ① 발단 : 친구의 며느리가 두 번째도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친구와 함께 감
- ② 전개 : 내리 네 딸을 낳아도 늘 인자한 미소로 대해 주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
- ③ 위기 : 시어머니의 노망과 효부인 척했던 나의 이중성격
- ④ 절정 :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하고 찾아 나섬
- ⑤ 결말 : 해산바가지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포기함

☒ 이 작품은 아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해산 준비와 산 구완을 해 주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남아선호사상과 그에 따른 성차별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소설이다. 또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나'가 '해산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소설에서는 새 생명을 맞이하던 시어머니의 경건한 자세를 통하여, 늙고 망가진 생명을 보내드리는 자식으로서의 바람직한 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자세

14

서편제, 이청준 원작

■ 전체 줄거리

1960년대 초, 어느 산골 주막에 30대 남자(동호)가 도착한다. 그는 주막 여인의 판소리 한 대목을 들으며 회상에 잠긴다. 그의 어린 시절 마을에 한 떠돌이 소리꾼(유봉)이 찾는다.

유봉은 동호의 어머니인 과부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은 함께 마을을 떠난다. 유봉이 데리고 있던 양딸 송화와 함께 네 식구가 살다 동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유봉은 송화에게 소리(노래)를, 동호에게 복을 가르치며 유랑한다. 송화와 동호는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며 자란다.

그들은 유봉과 함께 소리를 팔아 먹고 살지만 전쟁으로 궁핍한 세월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냉대와 멸시 속에 희망없이 살던

중, 동호는 유봉과 싸우고 떠나버린다.

동호가 떠난 뒤, 송화는 소리하기를 거부하고, 유봉은 '소리의 완성'에 집착하여 송화의 눈을 멀게 만든다. 유봉은 죽고, 눈먼 송화는 밀바닥 삶을 살아간다. 세월이 흐르고, 동호는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송화와 유봉을 찾아다닌다. 그가 마침내 송화를 다시 만났을 때, 송화는 그의 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그는 북을 친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그들은 다시 헤어지고, 송화는 어디론가 유랑의 길을 떠난다.

■ 작품 읽기

91. 염전 주막 방 안

천가가 문을 열어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동호, 송화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천가, 문을 닫는다.
송화의 B.S.■

동호: 소리를 쫓아 남도 천지 안 돌아 본 데가 없는 위인이오. 소리만 있어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소.

송화: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요.

동호: (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송화, 자세를 고쳐 앉는다.

동호: (북을 앞으로 잡아끌며) 북을 잡아본 지 오래되서..... 장단이나 맞을는지 모르겠소.

동호, 북을 뚫뚫 친다. <중략>

93. 염전 주막 방 안

동호 O.S.■ 송화

송화: 이 말이 지듯 마듯 산호주렴을 건쳐 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루 아이고 아버지

송화 얼굴

송화: 심 봉사 이 말을 듣고 먼눈을 희번덕거리며 / 에이 이거 웬 말이나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 무남독녀 외딸 하나 / 물에 빠져 죽은 지가 / 우금삼년인디 / 아버지라니 누구여 / 아이고 아버지 / 여태 눈을 못 뜨셨소 / 아버지 눈을 떠서 어어서 나를 보옵소서

소리하는 송화 / 북 치는 동호

송화 / 동호

소리하는 송화 / 북 치는 동호

동호 O.S. 송화 / 송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호

94. 염전 주막 안(아침)

문이 열리고 천가가 밖을 내다본다. 송화는 뒤에 앉아 있다.

95. 염전 길

동호,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천가: (소리)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화: (소리)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제 아버 솜씨 그대로였어요.

96. 염전 주막 안

천가: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헌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천가: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이 맺혔단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화: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 냈어요. / 천가: 어떻게?

송화: 제 소리하고 동생의 북으로요.

천가: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만은.....

버스 소리 들려온다.

97. 염전 길

동호, 버스가 서자 차에 올라탄다. 차 떠난다.

천가: (소리) 나도 밤새워 들었는디 자네 소리하고 저 사람 북장단이 어우러졌을 때 서로 몸을 대지 않고도 상대방을 희롱하고 어쩔 때는 서로 몸을 보듬고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

98. 염전 주막 안

버스 떠나는 소리 들린다.

송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지요?

천가: ...한...삼년 되었제.

송화 B.S.

송화: 제 팔자를 생각해 보면 당치도 않게 편한 세월이 너무 길었나 봐요. 이제 그만 몸을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천가: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했네만..... 다시 흠아비로 돌아가는구만. 정해진 곳은 있는가?

송화, 고개를 젓는다.

천가: (소리) 정해지거든 알려 주소. 내 짐을 부쳐 줘세.

■ B.S.(bust shot) : 가슴 위까지 촬영하는 기법.

■ O.S.(over the shoulder shot) : 한 배우의 어깨너머로 상대 배우의 모습이 나오게 하는 기법.



■ 작품 해설

원작 '서편제'는 이청준의 <남도 사람>이라는 연작 소설집 중에 있는 한 편이다. <남도 사람>에는 '서편제'(1976), '소리의 빛', '선학동 나그네', '새와 나무', '나시 태어나는 말'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소설 '서편제'보다 1993년 만들어진 영화 '서편제'에 더 익숙해 있다. 사실 영화 '서편제'의 원작을 소설 '서편제'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화 '서편제'의 원작은 소설 '서편제'에다 이 작품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소리의 빛'을 합치고, 거기에다 새로운 내용까지 덧붙여 각색한 것이다.

어쨌든, 이 작품은 이청준의 단편 소설 '서편제'를 바탕으로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전라남도 보성의 소릿재라는 곳에 있는 주막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남도(南道) 예인(藝人)들의 예술혼(藝術魂)과 한(恨)을 짙은 향토적 정서와 함께 잘 표현하고 있다.

현실과는 전혀 타협할 줄 모르고 딸을 득음(得音)의 경지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녀의 눈까지 멀게 만드는 유봉의 집념은 그 자체가 무서우리만치 철저한 장인(匠人) 정신이자 예술혼의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가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는 송화에게는 숙명적인 한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집을 떠났지만, 결국 누이를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없었던 동호를 통해서, 끈끈한 인간의 정과 함께 이들의 예술혼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서로가 애타게 만나고 싶어했지만 막상 만나서는 하룻밤 소리로 그 한을 달래고, 변연히 알면서도 다시 남남인 것처럼 헤어져야만 했던 이 작품의 결말은 저절로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지고는 또 그렇게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며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었던 것이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수많은 관객들이 눈시울을 적셔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심화 학습

☒ 소설 '서편제'와 시나리오 '서편제'의 차이
'각색 시나리오'란 다른 갈래의 작품을 시나리오로 개작한 것을 말한다. '소설'을 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소설과 영화가 이야기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 있는 차이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첫째, 인물과 장면 제시 방법에서 소설 '서편제'는 서술자의 진술로 직접 제시하고 있지만, 시나리오에서는 장면과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

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언어 표현 방법에서 소설 '서편제'는 서술자에 의한 산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나리오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 서편제(西便制)

판소리를 부르는 방법(법제)의 하나이다. 섬진강 서쪽인 광주, 나주, 보성 등을 중심으로 전승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박유진의 법제를 계승한 것인데, 특히 보성 지역이 그 중심지였다. 원작 소설에서 소릿재가 있는 곳이 보성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동편제 소리가 웅장하고 장식음 사용을 기피하는 데 반해, 서편제 소리는 애잔하고 장식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5 제비바위 골짜기의 정경, 박지원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박지원의 산문으로 제비바위 골짜기에 집을 지어 살면서 협소하지만 한가로이 쉴 만한 공간에 대해 자족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집 앞 왼편에 있는 제비바위와 둔덕 아래로 흐르는 아름다운 엄화계를 소박하지만 정겹게 표현한다. 마을에서 외롭게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즐거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작품 읽기

제가 언덕과 골짜기 하나씩 일군 지 오늘에서야 9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그저 양손을 불끈 쥐고 마음은 고달프고 재주조차 어쭙잖으니 어디 성취한 것이 있겠습니까. 겨우 자갈밭 몇 이랑에 초가삼간을 가졌답니다.

그러나 낭떠러지 절벽과 감싸 안고 있는 골짜기에 초목이 뻗뻗이 들어차 산의 초입에는 자그마한 길조차 없답니다. 산골짜기의 입구에 들어서면 산자락은 모두 간데없고 홀연히 눈앞의 모양은 새롭게 펼쳐집니다. 산등성이는 평평하고 기슭은 야트막하여 아리답습니다. 흙 빛깔은 희고 깨끗하며 모래알은 투명하고, 지세는 넓게 툭 트였는데 남향으로 조그마한 집을 엮었습니다. 엮어놓은 집이 매우 협소하지만 그래도 생각에 잠겨 거닐다가 쉴 만한 공간으로서 그 안에 갇출 수 있어 안성맞춤입니다.

집 앞 왼편으로 깎아지른 듯 서 있는 푸른 절벽은 그림 병풍을 둘러친 것 같고, 바위틈은 속이 뻗뻗뻗 떨어져 절로 암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비들이 그 속에 둥지를 틀었으니 이것이 제비바위 [燕巖] 이지요. 집 앞으로 100여 걸음 떨어진 곳에는 높고 위가 평평한 둔덕이 있으며, 둔덕은 모두 바위가 층을 이루어 우뚝 솟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래로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여기가 낚시터입니다. 시냇물을 거슬러 오르면 뽕얀 자갈들은 울룩불룩한 모양이 마치 먹줄을 통겨 깎아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잔잔한 호수를 이루고 어떤 곳은 맑은 소를 이루고 있는데 노는 물고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양 저녁노을이 비치고 경치와 어울리며 그림자가 물에 반사되어 바위 위에 비치니 여기가 채색한 그림과 같은 골짜기라는 뜻의 엄화계(嚴華溪)입니다.

그러나 산이 굽이치고 물이 겹겹이 돌아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없답니다. 큰길은 7, 8리 나가야만 비로소 개소리와 닭소리가 들리지요. 지난 가을부터 모여들어 이웃집을 이룬 것도 서넛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더기옷에 얼굴은 귀신 형상이고 떠들썩한데다 신색이나 태도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오로지 숲을 굽는 일만 하고 농사는 짓지 않는답니다. 오랑캐와 이웃하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나 할까요.

호랑이와 표범과 이웃이 되고 족제비와 날다람쥐가 벗이 되니 그 험하고 외지고 외롭게 떨어져 있음이 이와 같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곳이 즐거워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 풍찬노숙(風餐露宿) :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테에서 먹고 잠.

16 나룻배 이야기, 하근찬

■ 전체 줄거리

읍내와 마을을 유일하게 이어주는 수단인 나룻배의 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가는 마을 청년들을 실어 날라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바우는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모두 죽는 건 아니라고, 다 잘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전쟁터로 가는 기차를 보며 만세까지 부른다. 그런 그의 바람과 달리 전쟁터는 사뭇감으로 점찍었던 두철이를 도깨비로 만들고, 양생원의 외동아들 천달이는 하얀 뺨가루로 부숴버린다. 지뢰가 뭔지도 모르는 삼바우는 그런 그들을 나룻배에 싣고 마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들 용팔이는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 못한 동식도 수만이라도 있는데 양복쟁이와 어깨에 총맨 사내는 또 삼바우의 나룻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와 젊은이들을 데려가려 한다. 이 순간 삼바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항거는 그들을 나룻배에 태워주지 않는 것 밖에는 없다.

■ 작품 읽기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갖다 대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빨간

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우리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낮은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게?”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어른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능게?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카능게? 부러 카능게?”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댕기는 사람인 줄 아능게? 허허…….”

“하아,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물리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능교, 편지? 배(裵)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까? 곤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 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 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끊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뼈다귀가 뭐 어찌고저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없이 울락 한이 없었다. < 중략 >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 쪽 발로 땅을 광!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각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겨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뚱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옳지!”

삼바우는 공동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 올렸다.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닳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 강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게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 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씹 훔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코방귀를 팡 끼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델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해썩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데려가라고 만든 줄이나?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배(裵)삼바우 : 나룻배 사공. 하근찬 소설 속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육체적 불구자는 전쟁으로 인해 도깨비처럼 흉칙하게 불구가 된 두철의 설정으로 나타난다. 수난이대에서는 그저 전쟁의 상처로만 여겨지던 ‘불구자’의 설정이, 이 소설에선 두철이 육체적 불구로 인해 건강했던 예전과는 달리 비뚤어진 심리를 갖게 되고 그리하여 두철에게 연정을 품던 갑분에게도 괴물같고 무서워보이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른다.

한 육체를 앓아가 흉물스런 상처만 남기고 그 상처로 사람들의 정신도 상처받고 흉물스러워진다는 논리이다. 이미 괴물로 표현된 두철이 천달의 유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연민과 동정을 위한 작가의 장치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 구성

발단 : 전쟁터로 떠나는 마을 청년들

전개 : 모랑댁의 죽음

위기 : 불구가 되어 돌아온 두철(도깨비 형상)

절정 : 유골이 되어 돌아온 천달

결말 : 낯선 인물들을 경계하는 삼바우

☒ 주제 : 전쟁의 부당한 폭력성 고발

■ 작품 해설

전쟁이 우리 민족과 공동체에 준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마을은 강을 건너야, 즉 나룻배가 있어야 다른 곳으로 가거나 올 수 있다. 여기서 사공으로 나오는 삼바우는 전쟁으로 징집되는 마을 청년들을, 마을로 들어오려는 양복쟁이와 총을 멘 사람을 마을로 또는 밖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뢰를 밟아 도깨비 같은 형상이 된 두철이의 망가진 얼굴과 천달이의 죽음에서 분노를 느꼈던 그는 사람들을 징집하려는 양복쟁이와 총을 멘 사람을 그냥 두고 강길을 끊어버린다. 더 이상 마을 청년들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바우에게는 크나큰 저항이지만 마을 청년들은 또 차출되어 전쟁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대의 시대 현실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의해 파괴된 민중들의 삶과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다루고 있다.

■ 하근찬 소설에서의 전쟁

농촌 사람들의 삶을 다룸에 있어서 전후 작가의 한 사람인 하근찬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50년 전쟁의 파괴의 흔적이다. 그의 작품으로서 동시대의 전후 작가들이 흔히 그랬듯이 전쟁을 전쟁현장에서 다룬 것은 거의 없다. 그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전쟁이 국토의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끼친 상흔이다. 아버지와 아들에 서로 다른 전쟁통에 불구의 몸이 되는 재앙을 다루고 있는 <수난 이대>에서부터 작가의 관심은 전쟁의 야수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작가적 출발을 도모하고 있다. <나룻배 이야기> <홍소> <흰 종이 수염> 등이 모두 전쟁의 직접 피해자를 다루고 있다. <나룻배 이야기>의 두철이도 <흰 종이 수염>의 아버지도 불구의 몸으로 돌아온다. 더욱 기막힌 것은 불구인 그들을 도와주는 아무런 사회적 장치도 없다는 점일 것이다. <홍소>에서는 많은 전사자들이 배경으로 나오고 이들의 가족에게 재앙의 소식을 차마 전달하지 못하는 마음씨 약한 우체부의 얘기가 나온다. <불

은 언덕>은 전쟁이 끝난 후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얘기이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파괴적 영향력으로 인한 황폐성이 하근찬 소설의 주요 모티프이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작가의 반응, 아니 작가가 대변하고 있는 농촌 사람들, 즉 민중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거절이다. 재앙과 쓰라림을 가지고 올 뿐 그들의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전쟁을 그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한다. 전쟁은 그들의 원수요, 재앙의 썩이다. 그것을 어떠한 이름으로도 합리화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거부의 태도는 그것이 농촌 민중들의 자연 발생적인 반응과 태도를 허위의식으로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뚝뚝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집 영장을 마을을 전하러 오는 경관의 배타기를 거절하는 <나룻배 이야기>의 결말은 실효성 없고 부질없는 사보타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유머 속에 표출된 가장 뼈대 있는 저항 문학의 실례라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비슷하게 인분으로 저항하는 <분(糞)>도 유머러스한 문학적 저항의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문학 작품에 있어서의 인물과 행동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외부 현실에 대한 일직선적인 대응 관계에 의해서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흔하지만) 상징적인 대응 관계로 해서 빚어지는 수가 많다. 그 점 <나룻배 이야기>나 <분(糞)> 속에 드러나 있는 상징적인 거절은 문학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암시적인 저항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점 하근찬 문학은 전후에 나온 가장 탁월한 반전 문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50년의 전쟁이 끼친 파괴적 영향력과 그 문화적 의미를 하나의 상징적 축도로 보여 주고 있는 <왕릉과 주둔군>이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깊은 산마을 단위에서 보여 주고 있는 <산울림>에서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시 올 수도 있는 무의미한 살상에 대해서 가장 큰 소리로 거절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하근찬은 가장 뼈대 있는 전후의 증인 작가요 반전 작가라 할 것이다.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이 주었던 민중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하근찬의 소설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이범선과 김성환이 보여주었던 조금은 관념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적인 우리 민중의 현실적인 피해를 절감하게 해주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넓은 세계로 통하게 한 이야기였다.

몽고 땅에 간 만수 외삼촌은 어떤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그리고 몽고인 주인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은 이리 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며, 이리 떼는 직접 총격을 받으면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속성을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 셋의 죽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총을 빼 든 일본인은 ‘대일본 제국 신민의 숨씨’ 를 보여 주겠노라며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리 떼를 향해 집을 나섰다. 만수 외삼촌과 몽고인은 어서 돌아오라고 외쳐댔지만 잠시 후 몇 발의 총성이 울리고 잠잠해졌다. 만수 외삼촌은 일본인이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은 만수 외삼촌 앞에 일본인의 권총을 내밀었다. 권총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양면에는 이리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 작품 읽기

지금까지 내 기억에 남은 이분의 인상으로는 얼굴이 만수 어머니와 같이 가무잡잡하던 것, 몸집은 보통이나 키가 작은 편이었던 것, 그 작은 눈이 때로 이상하게 빛나던 것, 그러면서도 껍은 친근감을 느끼게 하던 것 따위로, 이분의 내면생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아는 게 없다. 그저 오래 전부터 만주랑 흥안령 땅에 가 있었던 것과 그리고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만은 만수의 얘기로 알고 있었으나, 무엇 때문에 이분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하기는 그때의 내 나이가 나이였으니까. 그리고 설혹 내가 그런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나이와 기회가 있어 이분의 생활이란 걸 알고, 그것이 여태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여기다 그것을 일일이 쓰려고는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관계가 없는 한.

내가 우리의 한 간 방에서 이분을 처음 대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다. 처음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분을 꼭 두 번, 그것도 둘쨏번은 만수 어머니의 장례 때 만수 아버지 곁에 고개 숙이고 서 있는 것을 본 것뿐이니 이 한 간 방에서 이분을 대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인 셈이다.

곧 이분은 우릴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만주땅의 스릴한 마적 이야기며 불가사의한 중국 사람과 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북만주 눈보라 치는 밤에 송냥이의 울음소리, 마구간의 말이 추위에 발 옮겨 쪼느라고 언 땅에 내는 소리, 늦은 나그네 지나가는 썰매 방울소리를 들으며 저절로 처량해져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정작 이렇게 돌아오면 되레 그때의 일이 그리워진다는 만수 외삼촌 자신의 이야기. 이런 만수 외삼촌은 만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 만수를 데리고 다시 대륙으로 갔다. 그 뒤에 만수가 그냥 대륙에 있는지 혹은 소원이던 마도로스 ■가 되었는지는 몰라

17 이리도, 황순원

■ 전체 줄거리

만수와 ‘나’ 는 만수네 단칸방에서 꿈과 동경을 키워 나가던 중, 어느 추운 겨울 밤 만수 외삼촌으로부터 그가 실제로 겪었던 ‘흥안령 저쪽 이야기’ 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도.

그런데 만수 외삼촌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방문을 열고 벽에다 새로 큰 들창까지를 뚫어 보다 넓고 새로운 세계로 통하게 한 이야기는 흥안령 저쪽 이야기다.

중략 부분 줄거리 | 몽골 땅에 가서 어느 집에 묵게 된 만수 외삼촌은 비슷한 나이의 일본인 객을 만나게 된다. 한밤중에 몽골인 주인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집 부근에 이리 떼가 나타난다.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객은 자신의 사격 솜씨로 이리 떼를 격퇴시키겠다고 권총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만수 외삼촌은 귀를 기울였다. 이제 들려올 총소리에. 그러나 총소리는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웬일일까? 주인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눈치였다. 드디어 총소리가 들려왔다. 꽤 먼 데서, 뒤이어 애 울음소리 같은 짐승의 비명 소리도.

주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이거 큰일났다. 꽤 멀리 간 모양인 걸. 어디에 이런 요소가 들어 있었는가 싶은 표한한 ■ 빛을 얼굴에 떠올리며 그는 밖으로 뛰어 나갔다.

만수 외삼촌도 뒤따랐다. 밖은 그새 대륙 특유의 기후 변화로 부쩍 차진 공기가 얼굴에 와 부딪혀 술 먹은 뒤의 머리를 정신 들게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하건만.

주인이 무턱대고 소리를 질렀다. 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어서 이상한 고함을 냈다 몇 번 쳤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리 떼가 되도록 속히 일본인 객 가까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함인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총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주인이 총소리 난 데를 향해 빨리 돌아오라는 소리와 함께 예의 이상한 고함을 연거푸 지르며 그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만수 외삼촌도 그 뒤를 따랐다.

다시 총소리가 몇 방 재계 계속됐다. 그러고는 딱 그쳤다. 그러자 총소리 난 지점 주위에서 들리던 야릇한 비명 소리에 섞여 그 지점을 향해 휘익 몰리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주인이 후딱 발을 멈추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거 다 틀렸다. 그리고 돌아서 만수 외삼촌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돌아오자 주인은, 그 객 미친 사람이 아니었느냐고, 글썽 일껏 일러 줬는데 어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하면서, 다시 그 어수룩하고도 선량한 얼굴로 돌아온 눈에 눈물까지 따우는 것이었다.

만수 외삼촌은 너무 창졸간에 당하는 일이라 지금 일이 거짓말같이만 느껴졌다. 좀 전까지 그렇게 당돌하게 앉아 있

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될 말인가. 그는 주인더러 총소리 나던 곳에 인가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일본인 객이 마지막 총알을 다 쏘고는 거기 어디 인가로 뛰어 들어갔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주인은 십 리 안팎 이 근방에는 인가라곤 없다고 했다. 그냥 만수 외삼촌은 인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 나무라도 있어서 그리 올라가 있을 것만 같은 것이었다.

좌우간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만 새면 뛰쳐나가 보리라. 그 객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엇을 하러 이런 데로 왔던 자이건, 그리고 우연이라면 예서 더 우연한 일이 없을 하룻저녁 그것도 서너 시간밖에 더 안 되는 동안의 나그네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 있어 주기만 바라는 마음이었다. 설사 그 사람이 어떤 자만의 웃음을 띠우고 어떤 누구를 깔보는 태도를 하고서라도.

만수 외삼촌은 진정 그래 주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기다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며칠째의 피로에다 아까 먹은 술기운이 차차 되살아 올라왔다 사라지면서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만수 외삼촌이 눈을 떴을 때에는 벌써 날이 환히 밝았을 때였다. 늦었구나 하고 일어나는데 집주인은 벌써부터 만수 외삼촌이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눈앞에 무엇인가를 내뱉는 것이었다.

권총이었다. 묻지 않아도 어제 그 객이 가졌던 권총이었다. 정말 죽었구나 하는 실감이 그제야 만수 외삼촌의 가슴에 와 안겨졌다.

주인은, 이것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 그 근처에는 머리칼 한 오라기 형질 한 조각 남겨져 있지 않더라고 했다. 만수 외삼촌은 순간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전율과 함께 뒤이어 그 짐승을 향한 어떤 증오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주인은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권총을 만수 외삼촌 앞에 내민 채 자세히 보라고 했다. 권총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 마도로스: 주로 외항선의 선원을 이르는 말.
- 표한한: 성질이 급하고 사나운.

■ 작품 해설

1960년 <백민(白民)>에 발표된 단편소설. 일본인이 몽고 지방에서 이리 떼에 총질을 하다가 흔적도 없이 죽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중심 내용으로, 이것을 '만수 외삼촌' 이 '나' 에게 들려주는 액자 양식을 취하고 있다. 하찮은 '이리' 마저도 그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반발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느끼게 한다.

<이리도>는 민족의 심성을 부각시키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치우쳐 예술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성을 비껴나기 위해 작가는 이 작품에 액

자식 구성 방법을 도입했다. 또, 서술 시점의 변화를 보여 주기도 하는데, 과거를 회고하는 도입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나가는 ‘나’가 서술자이다. 그리고 내부 이야기는 이리에 얽힌 사건을 직접 경험한 ‘만수 외삼촌’ (‘그’)이 서술자가 된다.

이 작품은 외면 구조에서 드러난 것처럼 단순히 한 일본인의 무모한 행동과 처참한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몇 가지 상징물에 의해 그 주제가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

중심 이야기의 인물은 한국인, 몽고인,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곧 당시 삼국(三國)의 역사적, 지정학적인 대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적 배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권총만으로 이리 떼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리 떼를 공격한 살상용 권총은 한반도를 강제 침략한 일제 침략성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이리 떼를 모두 없애겠다고 무모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던 일본인은 이리 떼의 공격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이때 권총에 새겨진 이리의 이빨 자국은 침략자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의 상징인 동시에 일제 침략 행위를 엄중히 고발하고 경고하는 의미를 지닌다.

황순원의 소설 <이리도>와 <목님이 마을의 개>는 민족의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장애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곧 민족정신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리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그린 작품이다. 액자식 구성으로서 생명에 대한 의지와 이를 장애하는 것에 대한 증오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줌으로써 민족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동물의 본능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옹호하려는 범생명적 휴머니즘의 바탕 위에서 씌어졌다. 간결한 표현과 함축적인 결말이 특이하다.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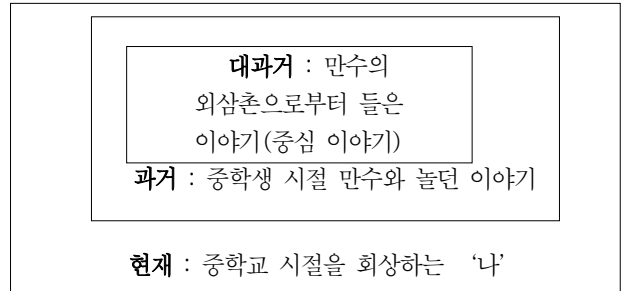
☒ 제목의 의미

‘이리도’는 인물의 대사인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에서 따온 것으로, 미물인 짐승도 위협에 적극 저항하는데 우리 민족도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한민족의 저항 의지와 생명력을 표출해야 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이 소설은 액자 형식을 취하여 외부 이야기는 ‘나’가 과거에 겪은 일을 회상하며, 내부 이야기는 ‘나’가 누군가(만수 외삼촌)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시점의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현재 - 과거 - 대과거’의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대과거(만수 외삼촌의 이야기)는 그 일을 겪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나’)의 서술을 통해 간접화되면서 현실과는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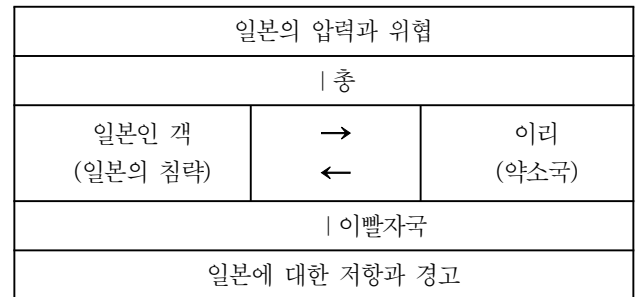
멀어져서 이야기에 대한 강한 인상으로 전해주기 위해 세세한 묘사와 시간적 흐름을 과감히 생략하고 상징적으로 들려주게 된다. 대화와 설명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기법은 황순원의 소설에서 간간히 나타나는 형식으로 독자가 서술자인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 사건의 내면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 인물과 소재의 상징성

중심 이야기(‘만수 외삼촌’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한국인((만수 외삼촌), 몽고인(주인), 일본인(일본인 객))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곧 당시의 역사적, 지정학적인 삼국의 대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적 배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권총만으로 이리 떼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리떼를 향하여 공격한 살상용 권총은, 한반도를 강제 침략한 일제 침략성의 상징물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리떼를 섬멸하겠다는 무모하고 강압적인 일본인은 이리 떼의 공격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권총에 새겨진 이빨 자국은 침략자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의 상징이며, 동시에 그것은 일제의 침략 행위를 엄중히 고발하고 경고하는 의미를 지닌다. 몽고라는 땅의 상징성은 일본의 침략 행위가 내뺏치던 극점이다.

작가는 동물(이리)의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을 위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 본연의 욕구는 본능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8

후산가서, 길재

■ 전체 줄거리

이 작품은 길재가 벼슬직에 물러난 후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은 한문 수필이다. 벼슬을 하기 전의 자신의 모습과 벼슬한 후의 모습을 글로 남기고 있다. 고려의 멸망으로 자신이 이루려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또한 욕심 없이 은거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말하기도 한다.

■ 작품 읽기

하늘이 사람을 낼 적에 복덕을 두터이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혹은 군자가 되어 귀해지고 혹은 소인이 되어 천해지니 무슨 까닭인가. 그리고 또 귀하여 귀해지고 천하여 천해진 것은 이치로 보아 예사로운 일이지마는 더러 귀하다 천해지고 또 혹은 천하다 귀해지는 것은 운명으로 그런가 보다.

예로부터 높은 벼슬아치의 자식들은 부귀 속에서 나고 자라 말과 수레가 도보로 다니는 괴로움을 대신해 주고 하인들이 부지런히 일하므로 제 손발을 쉬게 하기에 족하며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제 몸을 보양하고 춥고 더운 때를 따라 알맞은 옷을 입는다. 이미 나자마자 임금이 알게 되고 자라면 임금이 임명하여 두터운 국록(國祿)과 지위가 난데없이 이르고 높은 벼슬이 저절로 더해지는 등, 그 알아줌이 이같이 쉽고 그 귀해짐이 이같이 만족하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쌓아 온 공로와 길러 온 은혜 때문인 것이다.

그 대신 서민의 자식들은 들에서 나고 자라 몸은 젖고 발은 흙투성ियो 입어도 몸을 채 못 가리고 먹어도 몸에 영양될 것이 없어 춥고 주려 거의 죽게 될수록 정신을 극도로 써서 마음을 분발하고 성정을 참는 것이다. 그리고 공로가 나타난 뒤에야 관원이 알아주고 관원이 안 뒤에야 조정에서 듣게 되고 조정에서 들은 뒤에야 임금이 써 주는 등 그 알아줌이 이같이 어렵고 그 성취함이 이같이 더디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로가 체계서부터 시작될 뿐, 아무런 쌓아 오고 길러 온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농촌에서 나고 자라 더할 수 없이 천하고 더할 수 없이 미약하여 나이 겨우 팔, 구세에 나무하고 염소 치고, 좀 더 자라서는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어 고학 십년에 벼룩 입고 나물 먹기를 태연히 했고 밭 갈고 김매기에 몸이 젖고 발이 더러워져도 역시 태연했었다. 다만 힘 들어 밭을 갈고 정성껏 학문을 닦아 아래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위로 임금을 섬기되 어버이는 즐겁게 하고 임금은 요순이 되게 하며 당우(唐虞) ■ 때에 백성 삼대 때의 세상 ■을 만들자는 것, 그것이 내 평소의 뜻이었던 것이다.

그랬으나 불행하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때를 만나 십년공부가 쓸려버리고 말았다. 슬프다. 하늘이 하는 일이니 무엇이랴 이르리오. 그러므로 방황하고 탄식하다 훌쩍 마음을 돌려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달 아래 관 벗어 걸고 바람 앞에 시를 읊으며 하늘과 땅 사이를 우러러보고 굽어보고 세상 밖을 방랑하며 살아 그 시대의 책임을 지지 않고 길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보전함이니 이라고 보면 과연 하늘을 찌르고 우주 밖으로 벗어나서 나가는 것과 같다. 어찌 천 필(千匹) 말 만 석(萬石) 쌀을 지닌 부귀인들 부러워할 것이라.

- 당우: 중국 역사에서 이상적인 태평 시대.
- 삼대 때의 세상: 태평성대.

19

철쭉제, 문순태

■ 전체 줄거리

‘나’는 6 25 때 아버지를 학살한 원수를 갚기 위해 굶주림 속에서 신문팔이를 하는 등 모진 고생과 싸워 끝내 검사가 된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다. 아버지를 죽인 ‘박판돌’은 사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앞세우고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지리산 철쭉제가 열리는 세석평전으로 간다. 화엄사 계곡을 올라 노고단, 벽소령, 연하천 등을 경유하는 산행에서 나는 박판돌의 저열함에 혐오감을 느끼고, 나와 박판돌의 관계를 아는 지관 박영감은 둘을 화해시키려 한다.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내고 유골을 수습하는 중 박판돌은 사라진다. 나중에 ‘나’ (박 검사) 앞에 나타난 박판돌은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짓밟혔는지를 이야기한다. 그의 어머니 님순이가 노비로 있을 때, ‘나’의 조부 박 참봉에게 몸을 빼앗겼다. 박판돌의 부친 박쇠의 아내가 된 후에도 박 참봉은 수시로 몸을 빼앗았다. 그러다가 사실이 탄로나자 박쇠를 무마하여 대신 자기네 족보에 올려 준다고 약속하고서 박 참봉의 아들인 ‘나’의 아버지가 박쇠를 지리산 속으로 끌고가 엽총으로 살해해 버렸다는 것이다.

박판돌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 (박 검사)는 자신이 박판돌에게 복수할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을 깨닫게 되고 산을 내려와 헤어질 때 악수를 청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진다.

■ 작품 읽기

“그러니까, 족보 때문이었단니까요. 할아버지는 어린 아들한테 중 문서를 주면서, 천한 사람이 중 문서만 갖고 있으면 뭘 허느냐는 것이었답니다. 면전을 하려면 중 문서

보다 족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나 같아서 면천을 할 수가 없으니, 박 참봉댁에 들어가서 종 문서를 돌려주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해서라도 족보에 이름 석 자를 올려주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보슈 천한 종의 자식을 우리 박씨 족보에 올려요?”

나는 갑자기 창자가 뒤틀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쓰아붙었다.

[중략 줄거리] 나는 내 아버지를 살해한 박판돌과 함께 아버지가 묻힌 곳을 찾아간다. 도중에 나는 박판돌의 아버지인 박쇠와 나의 할아버지인 박 참봉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아버지가 박쇠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라도 박 참봉의 울가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까지 족보 없으면 못살게 뭐나면서 한사코 참봉댁에서 나가 지리산 속에서 화전이라도 일구며 살자고 남편을 졸라 왔었다고 하였다. 녀순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쇠는, “사람이 목구멍에 목을 것만 넘기고 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뭣이여. 푸나무도 다 뿌리가 있는 뱀인디 향차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근본을 못 찾으면 사나 마나여. 나는 어쩌든지 참봉 어른 눈에 속 들어갔고 내 이름 석 자가 버젓하게 족보에 오르게 할 거여.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 생겨난 보람을 허는 거여.” 하면서 입지 않게 마누라를 나무라곤 하였다.

녀순이가 울면서 토해 낸 피맺힌 이야기를 듣고 난 박쇠는 여전히 벽을 향해 돌아앉은 채 두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우드득 우드득 쥐어뜯으며 소리 안 나게 끁끁대고 울부짖던 것이었다.

날이 밝자 그는 녀순이의 잘라진 손을 헌 옷에 둘둘 말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왕시루봉이 마주 보이는 솔매 마을 뒤, 각씨바위 옆에 녀순이의 잘라진 손을 묻고 돌아와, 방안에 붙박혀 이를 갈며 끁끁 앓았다. 밤이 되자 박쇠는 낮을 허리춤에 낀 채 박 참봉이 기거하는 사랑채 큰마루 앞을 배돌며, 박 참봉이 나타나기만을 여수고 있었다. 그는 족보고 뭐고 죽고만 싶었다.

이튿날 아침, 앓고 누워 있는 녀순이 옆에서 땀돌질 하듯이 갈고 있는 박쇠를 조 서방이 데리고 나갔다. 조 서방은 박쇠를 박 참봉이 기거하는 큰 사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큰사랑에는 박 참봉이 언제나처럼 발그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를 본 박쇠의 손에 힘이 불끈 솟으면서 목구멍이 짹 메어 왔다.

조 서방이 쇠말뚝처럼 서 있는 박쇠를 박 참봉 앞에 앉도록 하였다. 박쇠가 사양질할 때 설맞은 멧돼지한테 접근하듯 목에 힘을 주고 두 눈을 부릅뜨며 참봉 앞에 앉자, 참봉이 문갑의 빼랍에서 먹글씨가 씌어 있는 부역에서 칼질을 할

때 받치는 도마 토막만한 종이 두 장을 꺼내 박쇠 앞에 내밀었는데, 한 장은 누렇게 색깔이 바래고 희치희치 닳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옥양목처럼 깨끗한 것이었다. 박쇠는 얼추 두 장의 종이를 보고 누렇게 바랜 종이는 바로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내준 종 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나는 네 애비 종 문서고, 또 하나는 족보에 오를 너와 네 아들놈의 이름이니라.”

박 참봉은 불과하게 술기운이 오른 것처럼 발그레한 얼굴에 알 수 없는 웃음을 슬며시 머금어 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아, 족보에 올릴 자네 부자 이름이라고 허시잖는가!”

옆에 있던 조 서방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떡거리며 대신 흰 종이를 집어 쑥떡 뭉쳐놓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박쇠 앞에 들이댔다.

“자네 이름이 쇠 철 자에 소리 성이니 박철성이고, 자네 아들놈이 판단할 판 자에 돌 돌이니 박판돌일세.”

조 서방의 말에 박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 부자의 이름이 씌어 있는 백지를 받아들고 눈을 껌뻍거리며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서 닭의 똥 같은 눈물이 백지의 먹글씨 위에 푹푹 떨어지자, 그는 눈물 때문에 글씨에 어룡이 생길까봐, 때 묻은 소맷자락으로 종이에 묻은 눈물을 꺾꺾 찍어냈다.

“올 가을에 맨드는 대동보에 실릴 네 부자 이름이니라. 처음엔 네놈만 올릴려다가 네 아들놈까지 올려주기로 작정했으니 그리 알아라. 자, 종 문서하고 이름 지은 것치고 갖고 가거라. 이것으로 우리덜 지난 일들은 잊어뻘자.”

그러면서 박 참봉은 녀순이를 읍내 의원한테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하라고 돈까지 주었다.

박쇠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조 서방이 다그치는 대로 종 문서와 그들 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녀순이 치료비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허리를 굽적거리며 큰사랑에서 나왔다.

박쇠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행랑채 녀순이가 앓아 누워 있는 그들 방에 돌아와서도 방바닥에 그들 부자 이름을 적은 종지와 아버지의 종 문서를 펴놓고 가슴에 오랫동안 훌쩍훌쩍 한을 풀 듯 쿠루루루 쿠루루 한숨까지 섞으며 온몸을 쥐어짜듯 울고 또 울었다. <중략>

긴 이야기를 끝낸 판돌이는 무겁게 머리를 들어올려 동굴의 천장처럼 칙칙하게 내려앉아 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 하나 돌아나지 않은 어둡고 답답한 하늘이었다.

긴 이야기를 토해낸 판돌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 자꾸만 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나도 마음이 별 없는 하늘처럼 숨가쁘게 답답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산상(山上)의 밤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늪처럼 썩썩하게 괴었다.



■ 작품 해설

☒ 등장 인물

- ① 나 : 검사. 학살된 아버지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는 인물.
- ② 박관돌 : 아버지를 죽인 나의 원수로, '나'의 집 하인 출신. '나'의 집의 머슴. 6·25 때 특세하여 사료 공장 사장이 됨.
- ③ 박쇠 : 박참봉의 하인으로서 순박하고 성실하며 장구치는 제주도 뛰어나다. 아내를 대가로 평생 소원이었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는 처절한 소망을 가졌지만 결국 박참봉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 ④ 남순이 : 착하고 순박한 여자 하인이다. 박쇠와 결혼하여 아들도 얻지만 박참봉의 성적인 노리개가 되고, 결국에는 남편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당한다.
- ⑤ 박참봉 : 여자 하인인 남순이를 성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일이 들통나자 족보에 박쇠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올려 주기로 하고 무마시킨다. 봉건적인 체제 아래 상층의 기득권을 누리며 하층민을 수탈하는 인물이다.
- ⑥ 참봉아들 : 사냥을 좋아하고 풍류스럽지만 성질이 사납다. 아버지 박참봉의 일을 완전히 감추려고 박쇠를 살해한다. 그러나 그 대가로 6·25 전쟁 때 박쇠의 아들 박관돌에게 응징을 당한다.

☒ 1982년에 발표된 문순태의 대표작이다. 6·25전쟁 때 아버지를 죽인 박관돌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검사가 된 '나'가 박관돌과 함께 지리산 세석평전을 찾아 가는 4박5일간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서술한 전후 소설이다.

철쭉이 만발한 지리산에서 펼쳐지는 비극적인 가족사는 '나'와 '박관돌' 사이의 원한 관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봉건적 신분 제도와 6·25 전쟁 등에 얽힌 우리 역사의 비극적 면모를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철쭉제'의 상징적 의미다. 철쭉의 그 붉은 시각적 이미지는 한(恨)을 상징한다. 그리고 '제(·제사, 축제)'는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철쭉제'라는 제목은 불행한 과거로 인한 한을 풀어내는 화해와 용서의 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검사가 되어 돌아온 '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박관돌을 앞세워 아버지의 유골을 찾기 위해 지리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이는 오래 전 박관돌이 자신의 부친 유해를 찾기 위해 '나'의 아버지를 앞세우고 지리산을 올랐던 것과 흡사하며 이러한 두 인물의 행위는 '아버 찾기'의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지리산 철쭉제를 배경으로, 산행 중 알게 되는 두 집안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그 화해의 방안에 대한 모색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우리 민족이 갖는 비극적인 역사의 상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지리산의 장엄함과 잘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봉건적이 신분 제도와 6·25

전쟁이라는 역사의 비극이 단순히 과거적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민족적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이질적(異質的)인 것에서 동질성(同質性)을 회복하려는 작가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철쭉제」에서 그가 찾은 것은 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비극의 극복이다.

■ 참고

☒ 제목 <철쭉제>가 상징하는 것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지리산'은 일종의 해체의 공간으로, 주인공 나와 박관돌 사이에 대립되던 요소들을 통합시키고 있다면, 지리산 안에서 행해지는 철쭉제라는 행사는 두 인물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개가 된다. 내년 철쭉제 때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내가 아버지의 새 무덤 옆에서 가져온 철쭉꽃을 관돌에게 주는 행위는 모두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필요 인해 더욱 검붉은 색을 띠는 철쭉이야말로 한을 넘어서 그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는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 주인공 '나'의 심리 변화

아버지를 죽인 박관돌에 대한 증오심(첫날) →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박관돌의 말에 움츠러들(둘째 날) → 박관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 것인지 고민함(셋째 날) → 박관돌에게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느냐고 다그침(넷째 날) → 박관돌로부터 그의 가족사를 듣고 나서 죽은 아버지 대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생김(다섯째 날) → 박관돌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신청함(마지막 날)

20

반씨전, 작자 미상

■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시절 절강(浙江) 땅에 사는 위윤(魏允)·위진(魏眞)·위준(魏準)의 세 형제는 각각 반씨(潘氏)·채씨(蔡氏)·맹씨(孟氏)로 아내를 맞았다.

위씨가(魏氏家)의 모부인 양씨(楊氏)는 어진 만며느리인 반씨를 모함하는 채씨와 맹씨를 엄히 근신하도록 했다. 이에 양심을 품은 채씨는 세도가인 친정아버지 채봉(蔡鳳)과 짜고 예부상서로 있는 반씨의 남편 위윤 및 반씨의 친정아버지인 병부상서 반옥(潘玉)을 유배보낸다.

이에 모부인 양씨는 울분에 세상을 떠난다. 반씨의 아들 위흥(魏興)은 채씨를 비롯한 두 숙모와 숙부에게 맞서지만 결국 어찌저 못하고, 모자가 함께 집을 나와 양부인의 묘막에서 지낸다. 이 무렵 죽은 양부인과 이적선(李適仙)이 차례로 나타나서 이들 모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또 한차례 채씨의 모살(謀殺)에서 벗어난 모자는 반씨의 친절에 몸을 의탁한다. 이어 위홍은 장사(長沙)에 유배중인 부친을 찾아가려다 서왕모(西王母)의 계시로 경사(京師)로 가 과거 응시를 기다린다. 그러는 사이에도 위진·위준 형제 내외는 장씨를 사주하여 반씨의 친절을 습격한다. 반씨는 몸이 묶인 채로 물속에 뛰어들어 한 거북의 도움으로 장사의 남편과 상봉한다.

한편, 위홍은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천행으로 양친의 서신도 접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죽은 양씨 부인의 현신으로 채씨의 독살 계획을 피한 그는 황제의 큰 지우(知遇 : 남이 자기의 성품·재능 등을 잘 알아 대접함)를 입어 부마가 된다. 위기에 닥친 채봉 등이 위홍을 모함하는 글을 올렸지만 허사였다.

이에 위홍은 죽은 외조모의 계시에 힘입어 장씨 형제를 문초하니 그 사이 죄상이 모두 탄로나게 된다. 채씨·맹씨는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하고 장씨형제도 목을 베고, 위진·위준 형제는 복해로 유배보낸다. 그 뒤 위씨와 반씨 두 집안의 착한 이들이 오래 부귀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 작품 읽기

일일은 양부인이 채 씨와 맹 씨를 불러 왈,

“너희들이 각각 타문의 여자로 내 집에 들어와 의로써 동생이 되니, 어찌 연분이 중하지 아니하랴. 마땅히 형제의 도리를 온전히 하여 가도(家道)를 밝히면 한 가문의 행복이거늘, 반 씨의 없는 허물을 만들어 대의를 모르고 불의를 행하고자 하니, 이 어찌 가문의 불행이 아니리오. 차후로는 삼가고 조심하라. 너희들이 만일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본가로 보내리니, 개과한 후 오게 하리라.”

채 씨가 듣고 왈각 성을 내어 얼굴빛을 달리하고 왈,

“존고 ■의 말씀이 지극히 마땅하시거니와, 첩들이 진실로 모해하온 바 없삽거늘, 금일 존고의 이르심을 듣자오매 반 씨가 아첨하는 말을 곧이 듣고 오직 첩들만 그르다 하시니 억울하오며, 소첩들이 본디 각 집의 자손으로 존문에 들어와 주야로 조심스럽게 가사를 섬기온즉, 혹 불미한 일이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실지라. 첩들이 본디 골육지친 ■이 아니니 어찌 각별하온 정이 있사오리이까. 존고께서 삼자를 두고 장성한 후 지극하온 자에 다름없을 듯하오매, 그중 입신하온 며느리는 애중하시고, 입신하지 못한 며느리는 정이 없어 박절하심이 이같이 과중하시며, 친모자지간도 여차 하시거든, 하물며 남의 집 자손을 골육같이 하라 하시니 어찌 순종하오며, 애증을 두지 아니하시면 손아랫사람이 어찌 화복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존고께서 먼저 불초하온 자식들을 그르다 하오시니, 첩들이 어찌 억울치 아니하오리이까.”

양부인이 듣고 대로 왈,

“네 어찌 내 말에 대답하여 이렇듯 면박하느냐. 너희가 대의를 모르고 이같이 무례하면서도 또 자식을 애중한다 하니, 더욱 무식한 말이라. 내 어찌 자식에게 애증을 두리오. 너희가 감히 시모를 업신여겨 포박함이 이와 같고, 또 시숙에게 청원하니, 모름지기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 수행 후에 다시 돌아오라.”

말을 마치고 분함을 이기기 못하여 시비를 꾸짖어 채 씨와 맹 씨를 물리치고 두 아들을 불러 책 왈,

“너희가 잘못하여 며느리가 존고를 업신여겨 말대답이 여차여차 불순하기로 가증을 소요케 하니, 노모가 저희를 불러 여차여차 책하다가 도리어 면박을 당하니 전고에 없던 바이라. 천한 집이나 여차한 행실이 있으려니와, 사대부의 집에서 어찌 이리하리오. 이는 다 너희가 잘못된 죄로 나에게 이같이 불공함이 막심하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네 부친이 돌아가신 후 비루한 인생이 뒤를 좇지 못하고 구차히 살아 있다가 이런 욕을 당하니, 모름지기 원스럽고 부끄럽도다. 금일부터는 너희가 아내를 데리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 말라.”

위진이 땅에 엎드려 왈,

“소자가 불초하와 불초한 여자가 대의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 이렇듯 불공하음은 도시 소자들의 불효라. 소자들이 외당(外堂)에 있삽기로 이 같은 세세한 일을 모르옵고, 비록 부부간 금슬이 있사온들 어찌 저희를 따라가 리이꼬. 각각 본가로 보내시고 불초들은 죄를 용서하심을 원하나이다. 형이 또한 조만간 올 것이니, 그때에 소자들의 불초하온 죄를 다스리소서.”

양부인이 탄식하고 왈,

“큰아들이 있으면 가증의 법도가 어찌 이렇듯 어수선하리오. 제 이미 서울에 가 있는 지 오래되, 필경 나랏일 많아 쉬 돌아오지 못함이로다. 네 말대로 채 씨는 궤히 본가로 돌려보내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맹 씨는 잠시 보류하여 가내에 두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라.”

위진 형제 큰소리로 왈,

“어머님의 하고가 지극히 온당하오시니 명을 받들겠나이다.”

하고 즉시 침실로 물러나오니, 채 씨가 원통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 위진이 들어옴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큰소리로 왈,

“나는 각별히 저지른 죄 없거늘 한갓 반 씨의 아첨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무죄한 사람을 내치라 하시니, 첩이 존문에서 쫓겨나기는 원통치 아니하되, 첩의 죄가 선조에 미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그대는 첩을 다시 생각지 말고 어진 숙녀를 취하여 존고를 받드소서. 이제 첩은 천하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어찌 일시라도 머물리오.”

하고, 즉시 시비를 본부로 보내어,

“시가의 폐인을 데려가소서 하라”

하니, 위진이 채 씨의 언사가 순하지 아니함을 보고 말이



무익할지라. 즉시 외당에 나와 탄식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중략>

차시에 채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는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가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하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운의 죄상을 아뢰니, 이때 위운이 서울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정직(淸廉正直)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운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서 벼슬을 둔우어 예부상서를 시키시니, 위운이 천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구궐정성지회 ■가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중형 직금량 반희가 궐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운을 보고 인사 후 이르되,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알려주되, ‘반옥이 병부상서로서 성총을 가리어 상별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천자를 속인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운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라고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이까.”

- 존고(尊姑) : ‘시어머니’ 를 높여 이르는 말.
- 골육지친(骨肉之親) : 부자, 형제 등의 육친(肉親).
- 구궐정성지회(久闕定省之懷) :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드리는 일을 오래 하지 못해 생긴 마음.

■ 작품 해설

<반씨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동서갈등은 고부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입신만을 절대시하는 공명주의적 가치관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 입신한 위운 부부에 대한 양부인의 편애가 채씨댁의 반감을 유발하고, 이것이 고부간이라는 가정내적 위계에 억압되면서 동서갈등으로 전이되어 나타난 것이다. 양부인의 편애에 대한 반감이 반씨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으로 바뀌어 표출되면서 동서갈등이 빚어지고, 여기서 가문내의 복잡한 갈등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문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그것이 관념적으로밖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가문주의가 걸음으로는 더욱 강조되면서 실제로는 현실과 유리된 채 차츰 관념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위씨 가문의 내적 갈등은 채씨 가문과의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가문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데, 여기에는 가풍이나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주의 의식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양부인이 채씨의 잘못을 친정 가풍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출척하자, 이를 가문에 대한 능멸로 받아들인 채씨 가문이 위운을 탄핵하여 보복하고, 여기서 두 가문간의 존망을 건 대결이 빚어진다. 가문의 명예 훼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가문주의 의식이 한 집안의 문제를 정쟁으로까지 비화시키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대부들의 삶이 철저히 가문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수와 조카의 살해도 주저하지 않는 위진 형제의 태도는 이를 한층 극명하게 보여 준다.

<반씨전>은 사대부 가문의 고부갈등·동서갈등을 새롭게 주목하여 조선후기 사회 문제들을 폭넓게 제기해 놓고도, 이를 관습적 서술시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다. 작자는 가문주의나 공명주의의 병리현상들을 진지하게 문제삼는 대신, 이를 당대 통념에 기반한 단순한 선악대결로 형상화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이념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문주의와 공명주의 이념이 표면에 부각되면서 작품에 담긴 현실적 의미들은 대부분 묻혀버리고, 작품세계는 권징적 관념성만 강하게 드러난다. 심각한 현실문제들을 관습적인 관념적 서술시각으로 형상화함에 따라, 관념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작품세계가 관념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참고

☒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후기의 부정적 현실

<반씨전>은 공명주의와 가문주의가 팽배해 있던 조선후기 사대부 사회의 풍토와 그 병리현상들을 폭넓게 보여 주고 있다. 가문공동체의 삶과 의례(儀禮)를 특히 중시하고, 예문을 교조적으로 실천하려는 형식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가문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종통 및 가묘를 중시하는 풍토 등이 그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가문창달 풍조와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 가문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지배이념의 교조적 실천과 혈족간의 유대 강화로 나타난 것이다. 가문간의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되어 감정적 대결로 치닫는 것이나, 입신이 절대가치화되어 인간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정은 동일하다. 경쟁적 가문창달 풍조가 자기 가문만 명문시하는 배타적 태도와 가문 이기주의, 입신출세의 공명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조선후기 정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입신만을 절대시하는 심각한 가치관의 왜곡 현상을 낳고 있던 당대 풍토를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서사 전개상의 특징

① 가정 소설로, 전처 자식과 계모 간의 갈등이나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다른 가정 소설과는 달리 동서 간의 갈등을 그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② 이 작품은 악인(惡人)들의 개과천선보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두고 쓰였기 때문에 황제가 악인들을 처형, 훈시함으로써 가정의 비극을 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악인들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 다른 작품에 비해 철저하다.

③ 이 계통의 다른 소설에서보다 비현실적인 처리부분이 훨씬 빈번히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반씨와 위흥이 무력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양부인의 혼령 및 선녀·산신이적선(李謫仙)·거북 등에 의한 천우신조(天佑神助)가 3회의 내용 속에 무려 여덟 차례나 거듭된다.

④ 도교적인 색채가 짙게 가미된 작품이다. 죽은 뒤에 지속적으로 기이한 행적을 불러일으키는 양부인은 본래 낙포(洛浦)의 선녀라 했다. 그 뿐 아니라 옥경(玉京)에서 죄를 얻어 인간 세상에 내쳐졌다가 다시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다 했고, 반씨와 위홍을 돕는 모든 신적(神的) 존재들도 그녀의 부탁 아래 움직이고 있다.

21

거룩한 직업, 이근삼

전체 줄거리

장식 없고 인상을 주는 학자의 침실 겸 서재에 시퍼런 식도를 든 도적이 한밤중에 침입한다. 잠에서 깨어난 학자는 초인종을 누르려하나 도적은 이미 초인종을 끊어놓은 상태였다. 값 나가는 물품이 없자 도적은 시간 낭비를 했다고 학자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 도적은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학자와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도적은 학자의 카운 셀러가 되기도 하고 훈계하는 선배가 되기도 한다. 도적과의 대화 속에서 학자는 새로운 세계를 본다.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도적은 위선의 세계에 굳게 갇혀있던 학자로 하여금 위선의 벽을 허물게 한다. 그래서 학자는 자신이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기도 한다. 도적은 학자에게 안방에 묶어둔 아내를 풀어주라고 하고, 스리슬쩍 사라져 버린다. 아내를 풀어주고 돌아와 보니 도둑은 온데간데없다. 도둑과 술을 나눠 마셔 얼큰해진 학자는 아내에게 안주를 만들어나오라며 술을 더 마신다. 아내가 안주를 만들러 간 사이 테이블에 있던 문화사 공책을 집어 던지며 자신의 세계가 허위와 잘못된 체계로 이루어졌음에 깨달은 것이다.

작품 읽기

무대

학자의 침실 겸 서재로 사용되는 장식 없고 초라한 인상을 주는 방. 무대 상부에 문이 있고 관객석과 마주보이는 상부 벽에는 퇴색한 책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비교적 큰 책상이지만 책은 반 정도밖에 책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책은 대개가 낡은 것들이며 양서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책장 위에는 마시다 남은 정종병 하나와 그 옆에 두서너 개의 소주병이 있으며 오징어의 긴 다리과 북어의 꼬리가 몇 개 관객들 눈에 보인다. 이 책장 앞에 역시 낡아 빠진 안락의자 두 개가 비스듬히 마주 향해 있으며 그 앞에는 나지막한 티 테이블이 있다.

블이 있다. 무대 오른쪽에 폐업한 병원에서 싸게 얻어 온 듯한 철제의 고물 [침대]가 있고, 그 위에서 이 집 주인이요, 또한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대학 선생을 해 온 학자가 정신없이 자고 있다. 무대 왼편에 있는 창문으로부터 파란 달빛이 들어와 무대의 일부가 희미하게 보인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안방에서 구식 패종시계가 두 점을 친다. 어떤 가을철의 새벽 두시를 말한다. 문이 가만히 흔들린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시꺼먼 사내가 들어선다.

<중략>

학자: 당신 고향은 어디요?

도적: 빌어먹을 소리를 한다. 내 고향을 알고 내 이름을 알면 뭘 하겠다구? 거리서 만나면 인사를 하려구?

학자: 아니, 그런게 아니라 말씨가 묘해. 영 고향이 어딘지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도적: 내 말버릇이 사납단 말이군. 훌륭한 도적이 되려면 이 말 훈련을 해야 해. 그래야 꼬리를 잡히지 않거든.

학자: 이 직업은 몇 년 동안이나 해 왔죠?

도적: (여전히 술을 마시며) 한 2년 될까…….

학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도적: 내가 걸릴 것 같아? (회상이나 하듯) …… 참! 별의별 직업을 다 가져 봤군. 중학교를 나오자 금융 조합의 서기 노릇…… 철물상 회계원…… 동회 사무소 서기…… 군대 생활…… 인쇄소 식자공…… 밀수업…… 화물차 조합 이사…… 동회장 임후보…… 그러구 지금 직업…… 참 변화무쌍해. 그래도 지금 직업이 제일 편하구 격에 맞는 것 같아.

학자: 아니, 화물차 조합 이사까지 한 양반이…….

도적: 그렇지, 일본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밀수를 했더니 돈이 좀 생겼거든.

학자: 동회장 임후보도 했다면서요?

도적: 자꾸 나가 보라구 하기에 나섰지. 그렇지만 안됐어. 응, 술이 다 떨어졌다. 자, 좀 더 받게. (학자의 빈 병에 다시 자기의 술을 부어준다.)

학자: 난, 이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요. 동회장 임후보까지 한 분이…….

도적: 내가 장관을 했으면 어때? 그래서 도적이 돼서는 못 쓰나?

학자: (차차 주기에 차) 도적이 아니고도 만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난, 난, 이해가 안 돼.

도적: 15년째 쓰는 낡은 공책을 가지고 학생들 돈을 도둑질하는 자네보다는 내 도둑질이 훨씬 남자답고 보람이 있는걸. 도둑질해서 벌어먹기란 매일반이니 차라리 본격적인 도둑질을 하는 것이 떳떳하단 말이야.

학자: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어째서 도둑질이란 말요? 특히 신성한 직장에서 말이요.

도적: 내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나흘을 소비했다고 하잖았



나? 고생을 했어. 뿐인가, 이렇게 술도 내고 있어. 내 노력의 대가도 못 받는 판이야. 난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엄숙한 마음으로 해. 내게는 다시 없이 신성한 직업이야. (술을 마시고 나서) 오늘은 내가 자네를 좀 가르쳐 줄까? 오래 살아 보니까, 인생의 비극이란 다른 것이 아니더군. 자기에 알맞은 일을 골라잡지 못한다는 거야.

학자: 그럼 이 도적이란 직업은 당신에게 알맞은 일이지? 난..... 난..... 도저히.....

도적: 과거의 많은 직업 중에서 제일 알맞지. 이렇다면 난 쥐로 태어났단 말야. 과거엔 이 쥐가 비둘기나 소나 또는 물고기 행세를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 일이 될 수 있나. 쥐로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위대한 거야. 최소한 쥐 행세는 할 수 있으니 떼떽하지. 쥐는 원시 시대나 원자 시대나 매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훔쳐 먹고 살았던 말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숙명이지. 쥐가 호랑이 행세를 하려는 것이 비극이란 말야. 쥐는 가만있어도 이빨이 자꾸 돋거든. 그러니 아무 데나 가서 그 이빨을 갈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빨 때문에 자기가 죽거든. 그래서 큰 집 대들보에도 갈고, 비싼 양복장 뒤에도 이빨을 갈아 구멍을 뚫지. 오늘 밤처럼 자네 집에도 들어왔구.

학자: 그러다가 붙잡히면 어떡해?

도적: 성의껏 일을 하는데 왜 붙잡혀? 설사 붙잡혀도 할 수 없는 일이지. 후회될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큰일 날걸. 수많은 경관, 군인, 재판관 친구들이 당장 실직을 할걸. 그 친구들은 나를 잡으려고 야단이지, 부잣집 놈들은 경관, 군인들을 잡으려고 야단이지.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주요 등장인물인 ‘학자’와 ‘도적’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15년째 같은 가의 노트로 강의하는 학자는 이에 대한 도적의 비판을 듣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만과 생활의 안이함을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도적’과 ‘학자’ 사이의 주객전도된 행동은 관객으로 하여금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 경직된 상태의 학자와 여러 직업을 거치고 자신의 도적질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유연성 있는 도적을 대조시킴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웃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풍자적으로 논평하기 위한 극적 도구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품이 발표된 1960년대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참고

☒ 「거룩한 직업」의 서사극적 요소

「거룩한 직업」은 서사극의 기법적 측면보다 서사극의 정신적 측면을 내용에 담고 있다. ‘학자’는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만과 생활의 안이함을 인식하게 되고 ‘강도’와 ‘학자’ 사이의 주객전도된 모순의 행동은 관객에게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비판하는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한다. 서사극론에서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인식의 전이가 발생하도록 요구하며 모순의 세계를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 중 도로 장면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는 극중인물의 사회적 체스처를 귀납적으로 하나씩 조립하여 전체적인 인물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배우가 착안하는 것은 인물의 심리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다. 그러므로 인물의 모순된 성격은 사회적 행동에서 나오고 그것은 다시 사회적 현상의 모순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물의 모순성은 사회적 가변적 모순성을 반영하게 되며 인물의 행동도 이러한 생의 현실에 일치함에서 생겨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물은 그가 속한 사회의 구조를 해명하는 수단이 되며 인물의 통일적인 형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모순의 통일로서의 인물 속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물의 모순성은 항상 사회적 관련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강도’와 ‘학자’의 모순성은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반영하며 60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거룩한 직업」이 발표된 1961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서사극은 잘못되고 모순된 모습들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칠 뿐 희망적인 모습이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모습들 속에서 관객은 이성을 갖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단을 유도해가는 과정이 바로 서사극인 것이다. 제시된 장면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확보해 가는 것을 서사극의 교육극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직업」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읽히는 것과 공연을 전제로 하는 대본의 역할보다 아무나 극중의 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비판력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22

영월 영감, 이태준

■ 전체 줄거리

성익의 집에 평소 왕래가 없어 생사조차 모르고 지냈던, 친척 아저씨뻘 되는 영월 영감이 찾아온다. 영월 영감은 어지러운 사회라 생각되어 소신을 갖고 첩거하다가 다시 삶의 목표를 돈을 버는 것으로 정하고 조카에게 돈을 빌려 금광을 사서 금을 캐는 사업을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브란스 병원에서부터 영월 영감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성익은 병원에 들러 입원 보증을 서고 영월 영감과 금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금을 금답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를 개탄하고, 젊은 나이에 처사처럼 행동하는 조카뻘 되는 사람을 나무라며 영월 영감은 끝까지 사회를 위해 쓰일 노다지를 향한 꿈을 버리지 않는다. 영월 영감은 입원 중에도 양평에 있는 금광에서 곧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성익은 양편 일대를 둘러보지만 금은커녕 자연만 훼손하고 있는 풍경만 눈에 들어온다. 다시 병원에 들른 성익은 간호사로부터 영월 영감이 폐색증이 심해져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전해 듣는다. 성익은 영월 영감의 두 아들에게 전보를 보낸다. 그리고 성냥갑만한 금광석을 하나 산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성익은 영월 영감한테 자신이 산 금광석을 내보인다. 영월 영감은 금광석을 부둥켜안고 감격의 겨워 놀란다. 그러다가 유언도 없이 운명하고 만다. 성익이 사온 금광석을 광산에서 캐온 금덩어리인 줄 알고 그것을 품에 안고 죽어간 것이다.

■ 작품 읽기

성익은 얼른 마루 아래 놓인 이 아저씨의 지까다비 ■ 생각이 났다. 이분이 금광을 하시는 것이나 아닌가? 하였으나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말을 먼저 받았다. 아무튼 비록 행색은 초췌할 망정 생사조차 알리지 않다가 십여 년 만에 찾는 조카에게 자기 개인 밥값 같은 것이나 궁해서 돈 말을 할 영월 아저씨로는 믿어지지 않았다. 성익은 할 수 없이 무리를 해서 모아 온 고완품(古玩品)에 손을 대었다. 고려청자 찻종 하나와 단계석(端溪石) 베틀 하나를 이튿날 식전에 들고 나가 천 원은 못다 되고 칠백 원을 만들어다 드리었다. 돈이 칠백 원이란 말만 들었을 뿐, 영월 영감은 헤어 보지도 않고 빛 낚은 양복 조끼 안주머니에 넣더니 저녁때가 가까웠는데도 떠나야 한다고 나섰다. 비는 그저 지직지직 내리었다.

“애장품을 없애 줘 미안타. 그러나 그런 건 누가 보관든 보관돼 갈 거구…….”
 하면서 마당에 내려 화단에서 비에 젖는 고석(古石) ■을 잠깐 눈주어 보더니,

“어디서 구했니?” / 하였다.
 “해석입니다. 충남 어느 섬에서 온 거라는데 파는 걸 사왔 습니다.”
 “넌 너의 아버님 너무 닳는구나! 전에 너의 아버님께서 고석을 좋아하셔서 늘 안협(安峽)으로 사람을 보내 구해 오셨지…… 그런데 난 이런 처사 취미(處士趣味)엔 대반 대다.”
 “왜 그러십니까?”
 “더구나 젊은이들이…… 우리 동양 사람은, 그중에도 우리 조선 사람이지, 자연에들 너무 돌아와 걱정이야.”
 “글쎄올시다.”
 “자연으루 돌아와야 할 건 서양 사람들이지. 우린 반대야. 문명으루, 도회지루,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루 자꾸 나가야 돼…….”
 이렇게 영월 영감은 목소리가 더 우렁차지며 얼굴이 더 붉어지며 가을비에 이끼 끼는 성익의 집 마당을 부산하게 나섰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월 영감이 금광 밭과 작업 중 머리에 돌을 맞아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고, 성익은 영월 영감을 찾아가 금광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영월 영감은 쉽게 낫지 않는 상처에 조바심을 내며 빨리 금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의사가 나간 뒤 한 시간이나 지나서다. 속으로는 그저 그 생각이었던 듯,
 “내가 지금 사십만 깎애두! 사십만…….”
 고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이론이 그렇지, 그것 아무는 데 며칠 상관이 될라구요.”
 “어디 이것뿐이나? 매사에 일모도원(日暮途遠) ■이다! 년 올에 몇이지?”
 “서른둘입니다.”
 “서른둘! 호랑이 같은 때로구나! 왜들 가만히들 있니?”
 “…….” / 한참 침묵이 지나서다.
 “너 낼 산에 좀 갔다 와다우.” / “산에요?”
 “광산에 가, 그새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두 좀 알구, 나온 걸 어떤 돌이구 간에 한 가지씩 가져오너라. 잊지너 꿈엔 돼지를 다 봤는데…….” / “돼지요?”
 “미신이나 금광 허는 사람들이 돼지 보길 바라지들…… 돼질 보면 금이 난다구들, 허허…….”
 영월 영감은 차츰 제 빛이 돌아오는 입술에 빙그레 웃음을 띠었다.

성익은 아저씨가 일러준 대로 이튿날 자동차로 양평(楊平)을 지나 풍수원(豐水院)이란 데로 왔다. 여기서는 사람을 하나 사 가지고 동북간으로 고개라기는 좀 큰 산을 넘어 아저씨의 광산을 찾았다. 다복술이 깔린 평평잡한 산허리에 서니



군데나 생흙이 밀려 나와 사태난 자리처럼 쌓였다. 가까이 가 보니 흙이 아니라 모두 돌이었다. 곳곳 ■과 화약고도 이내 나타났으나 사람이라고는 질푼 서너 명만 보였다. 질푼꾼들에게 서덕대를 물으니 곳 속에서 작업 중이라 한다. 곳 속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바닥이 질고 천반에선 여기 저기 기름과 철분에 시뻘건 샘물이 낙숫물 떨어지듯 하여 달리 차리지 않고는 들어설 수가 없다. 우선 서덕대를 좀 나오라고 이르고 땀이 나 들이려 냉장고 같은 시원한 곳 초입에서 있었다. 곳 속은 키 큰 사람은 모자가 닿으리만치 낮다. 통나무로 좌우 벽선과 천반을 버티어 들어갔다. 간드레 불을 든 질푼꾼들이 한 삼십 간 들어가서는 꼬부라져 사라지고 만다. 거기까지는 수평이다. 그 뒤는 캄캄하여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뿐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쿠웅쿠웅 바위 울리는 소리가 은은히 돌아온다. 그쪽은 저승과 같이 아득하고 신비스럽다.

‘저 속에서 금이 난다!’

성익은 담배를 피워 물고 생각하였다.

그 몇 만분지, 몇 십만분지의 일인 금을 얻으려 산을 헐고 바위를 뚫고…… 그 적은 비례의 하나를 찾기 위해 몇 만 배, 몇 십만 배의 흙을 파내고 돌을 쪼아 내고…… 성익은 고개를 기다랗게 내밀어 광산 전체를 쳐다보았다. 까맣게 울려다보이는 석벽도 이 산의 봉우리는 아직 아니었다.

‘하나를 위해 구만 구천구백구십구의 헛일을 해야 하는…….’

성익은 한숨이 나왔다. 어렸을 때 풀기 어려운 산술 숙제를 받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이내 또, 아저씨의 ‘사람이란 그다지 계획력에 미약한 거냐.’ 하던 말도 생각한다.

‘계획? 나 자신에겐 지금 무슨 계획이 있는가?’

성익은, 곳곳 퇴장에 걸터앉아 아무 의식이 없이 머무레한
 ■ 눈으로 건넌산을 바라보는, 그 풍수원서 데리고 온 사람의 꼴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었다.

- 지까다비: (일본 버전 모양의) 노동자용 작업화.
- 고석(古石): 괴상하게 생긴 돌.
-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늙고 쇠약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이르는 말.
- 곳막: 광부들이 쉬거나 연장을 두기 위하여 구덩이 밖에 지어 놓은 집.
- 머무레한: 눈알이 생기 없이 멀건.

■ 작품 해설

<영월영감>은 시대의 뒷자리에 소외된 노인을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성격화하여 회고 취미에 빠진 젊은층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치려는 이색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실제 주인공은 영월영감(박대하)인데, 그의 기이한 행적과 옛

것을 통해 현재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상고주의 정신이 성익의 시선에 의해 객관적으로 묘사된다.

영월영감은 젊은 시절 군수를 지냈고 키가 훗칠하고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데가 있는 호걸형 사내이다. 그는 종적을 감추었다가 15여 년만에 조카인 성익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발파사고로 이난 입원 때문에 그 동안 영월영감이 가족들과의 소식도 두절된 채 골몰했던 사업이 금광개발이었음이 밝혀진다.

산금장려정책이 일제의 만주사변 돌발로 야기된 자국 내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던 이런 상황에서, 금광을 찾아 15여 년을 돌아다닌 영월영감은 일확천금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물질 숭배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뒤 성익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그가 자본주의 시대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영월영감은 '금은 곧 힘이며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가 느닷없이 흥겨운 노래를 끌어내는 데서 속마음의 일단이 드러난다. 타락한 지배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경제력에 있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그는 체험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는 일제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자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과 굳은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천분의 일 혹은 만분의 일의 확률에 자신의 모두를 건 영월영감이 투기꾼이 아닌 이유는 그의 치밀한 계획성과 확고한 신념에 근거한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피하는 그는 바로 온고지신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옛것에 켜켜이 쌓인 먼지와 녹, 그리고 곰팡이를 소거하고 앞날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는 온고지신의 상고주의 정신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정신이야말로 쓰라린 일제 말기를 살아건디는 우리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일 것이다. 영월영감은 금광사업에 성공하면 그 자본으로 과연 어떤 사업에 착수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금광사업에 결국 실패한 채 폐혈증으로 죽고 만다. 그러나 영월영감의 죽음은 미래에의 확고한 신념이나 전망을 갖지 않은 채 현실과 적당히 손잡고 살아가는 젊은층에게 준엄한 자기 반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성익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소모적인 자기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

❖ 작품의 결말이 갖는 의미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익이 영월영감의 맞상제인 '봉익'에게 나이를 물었고, 그말을 듣고 성익은 눈을 감고 잠깐 멍청히 흔들리다가 중얼거리었다. "서른! 서른둘! 호랭이같은……."

성익의 반성적 독백 뒤에 전개될 구체적 행동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는 작가가 여백의 상태로 남겨 두고 있어서 선불리 예단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월영감> 이후의 작품에 일관되게 현실자각과 자기성찰의 주제가 표출된 점으로 미루어 성익의 독백이 공허한 푸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즉 성익의 자기반성은, 그것이 자신의 내면적 요구에 의해 대두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일깨움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라는 한계가 있긴 해도, 젊은이가 자기의 소극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현실인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영월영감의 구세대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충분하다 하겠다. 이미 육체는 쇠락하여 젊은이에게 골동품 취급이나 받는 노인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하는 적극적 의식을 가진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거꾸로 젊은이의 무기력을 꾸짖으면서 자기성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돌다리」와 「영월 영감」에 나타난 인물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벼슬을 한다는 것이 치욕임을 알고 일제에 대항할 만한 힘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금광에 매달리는 영월영감이나, 땅을 빼앗기는 일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과 등가(等價)로 생각하여 끝까지 땅을 지키려는 창섭 부친은 모두 구세대의 인물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현재의 질곡을 타개하려는 정신은 상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표나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인(私人)으로 생활하면서도 정작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서는 공인(公人)으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다. 한 세대의 중추를 감당했으나 급변하는 시대의 격랑에 밀려 후진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던 노년 계층이 자신의 지분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의연한 모습은 시세(時勢)에 흔들려 정체성을 상실한 젊은 계층에게 살아 있는 교훈으로 커다란 의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상고주의(尙古主義)'가 일제와 등치(等値)되는 근대주의에의 반동이라는 일차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때 더 큰 의의를 내포하게 된다면, 영월영감과 창섭 부친은 그 전범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할 만하다.

그런 한편 복덕방이란 조그만 공간에 갇힌 노인들은 대체로 예전의 의기나 기개 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현실의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 쏟는 부정적 노인으로 묘사된다. 이태준은 흔히 사라져가는 것들, 특히 전통적인 것이나 노인층에 따뜻한 동정의 시선을 보낸 작가로 평가되지만, 이 작품의 경우 노

인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태준이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노인은 사회에서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를 잃지 않은 이들이었지, 이들과처럼 금전의 노예가 된 인물까지 포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 비판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속이 밝아 전통적 가치관을 상실한 노인과 신여성의 부정적 측면이며, 그 점을 부각시켜 그들의 현실 지향적 사고를 고발하려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통적 가치관을 수호해야 할 노인층마저 물신(物神)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식민지 현실을 반영적으로 풍자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태준이 창조한 노인들이 "변해가는 역사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같은 환경의 도전 앞에서 맥을 못추는 인물들, 그리고 다만 지나간 옛날의 추억만을 되씹는 패배자들"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오히려 이태준의 노인은 급변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지만,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부정적 인물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사라져 가는 옛것에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던 이태준이 노인을 작품의 주동 인물로 형상화하여 추구하려 했던 것은 '온고지신'의 해석과 적용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23

숙향전, 작자미상

■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때, 스무 살 김 전이 친구의 벼슬길을 전승하려 마을을 나가다가, 어부들이 잡은 거북을 보고 나서서 살려 준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강에서 배가 뒤집혀 모든 사람이 죽으나, 김 전은 바로 자신이 살려 준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고 '수(壽)'자와 '복(福)'자가 새겨진 진주 두 개도 얻는다. 연초 땅에 사는 장희의 딸과 결혼하여 월선궁 숙향을 낳았다. 관상가 왕규가 숙향을 보고 '월궁 향아의 인간이며, 오 세에 부모와 이별한 뒤 이십 세에 다시 부모를 만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칠 십에 죽음'을 예언한다.

숙향이 5세 되던 해 금나라가 쳐들어와 숙향 일가가 도망하던 중, 김 전 부부는 숙향을 잃어버렸다. 도적들은 어린 숙향을 거두어 마을에 버리고 떠나는데, 숙향에게 선녀가 나타나 앞으로 십오 년 동안 다섯 번의 죽을 고비가 닥칠 것이라 일러준다. 마침 자식 없는 장승상이 숙향을 거두어 기른다. 숙향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여 일할 자리를 잃은 장승상댁 종사향은, 숙향이 장승상댁의 폐물을 훔쳤다고 모함한다. 장승상 집에서 쫓겨난 숙향은 슬퍼하며 표진강에 몸을 던진다. 이 때 사향은 벼락에 맞아 죽고, 물에 빠진 숙향은 선녀가 구해 준다. (이 선녀는 김전이 전에 살려준 거북임) 이리저



리 떠돌던 숙향은 갈대밭에서 불을 만나 죽게 된 순간 화덕
진군이 구해 주고, 마고할미가 거두어 수를 놓아 팔며 함께
살게 된다.

병부상서 이 위궁의 아들 선이 태어날 때, 선녀가 나타나
선이 숙향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다. 이 때 장성
한 선이 우연히 숙향이 놓은 수를 보고 숙향을 찾아 나선다.
어떻게 마고할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김 전 부부에게
갔으나 그들은 숙향을 다섯 살 때 잃은 뒤 소식을 모르고 있
었고, 숙향을 키우던 장승상덕에서도 숙향이 죽은 것으로 알
고 있었다. 다시 마고할미를 찾아가 숙향을 만난 선이 고모
의 주관으로 결혼하려 하는데, 선의 아버지 이 위궁이 먼저
정한 혼처(양왕의 딸)가 있음을 들어 결혼을 반대한다. 아들
선이 말을 듣지 않자, 지방 관리로 있는 김 전으로 하여금
숙향을 죽이도록 명한다. 자기 딸인 줄 모르는 김 전은 숙향
을 옥에 가둔 채 죽이지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 이
때 마고할미는 청삼살개를 남겨 두고 하늘로 올라간다.

숙향이 옥에서 풀려났으나 마고할미가 없으므로 방황하다
가 선의 어미를 만나는데, 숙향이 수를 잘 놓고 법도가 있는
것을 본 선의 어미가 오해를 풀고 아들 선과 함께 살도록 해
준다. 과거에 급제한 선을 따라 부임하던 숙향은 장승상을
만나고, 친부모 김 전도 만나 비로소 혈육의 정을 나눈다. 양
왕의 딸 매향은 선을 못 잊어 괴로워하니, 이에 양심을 품은
양왕이 황제의 불사약을 구하는데 선을 추천하여 가게 한다.
선은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며 불사약을 구하여 온 뒤 양왕
의 딸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맞는다. 선과 숙향은 늙어 칠십
세에, 신선이 따로 준 약을 먹고 하늘로 올라간다.

■ 작품 읽기

양왕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딸의 굳은 의지를 황제께
아뢰었다.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매향은 왕의 딸인데,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된다면 남들로
부터 조롱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면 이를 면할 수 있겠
느냐?”

곁에 있던 매향 남자가 이렇게 여쭙었다.

“어른께서 말씀하시는데 구태여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사오나, 부모님도 계시니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저는 이선의 둘째 부인은커녕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이제 다
른 가문에 시집간다는 것은 여자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
옵니다. 저는 기필코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되기를 바라나
이다.”

왕이 말했다.

“네 뜻이 그러하나,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튿날 궁궐에서 조회가 열리자 양왕은 이선의 아버지인

위왕을 보고 말했다.

“왕이 지난날 덕의 아들을 내 딸과 혼인시키자고 약속하
시고, 이렇듯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예의에
맞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위왕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과연 그 일은 신의를 저버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
니다. 그때 제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서울로 올라온 사이
에, 제 누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제 누님께
서는 자식이 없는지라 평소에 선을 자식처럼 사랑하셨는
데, 이번에 제게 기별도 없이 선의 혼사를 정하셨습니다.
그 일은 진실로 제가 일부러 약속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
옵니다. 하오나 대왕께서 먼저 이 말씀을 꺼내셨으니, 송
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연을 황제께서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선과 숙향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양왕은 다른 곳에서 좋은 사위를 정하시게.”

양왕이 아뢰었다.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다면 구태여 위왕과 다투
겠사옵니까? 다만 신의 딸이 꼭 이선과 혼인하겠다고 고
집하오니 진실로 민망할 따름이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경의 여식이 얼음처럼 차고 굳은 정절을 지녔으니, 그 인
연도 끊을 수 없겠도다. 이선이 어진 사람이라 사람마다
섬기려 하고, 그 벼슬도 부인을 두 명 얻을 수 있는 초공
의 지위에 있으니, 위왕은 양왕 딸과의 혼사를 허락하시
게.”

위왕이 공손히 엎드려 아뢰었다.

“황공하옵니다. 성상께서는 이선을 불러들이소서.”

황제께서는 즉시 이선을 불러들이셨다.

이선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였기에 일부러
병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며 망설였다. 정렬부인 숙향이 말했
다.

“황제의 명령은 지극히 중요하운데, 병이 들었다는 핑계로
망설이시니, 이 무슨 연고입니까?”

상서가 말했다.

“오늘은 양왕께서 황제께 조회를 드리는 날이러오. 황제께
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는 다른 일이 아니라 양왕께서 그
딸과 내 혼사 문제를 어전에서 결정하려고 한 일인 듯합
니다. 그래서 내가 난처하여 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상공께서는 저를 위해 이렇게 처신하시지만, 이는 신하
된 도리로 마땅치 않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라면 비록 죽
을 곳이라 해도 피해서는 안 될 일이운데, 하물며 좋은
인연을 정해 주시려는데도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듯
합니다.”

“내 비록 그릇된 일인 줄은 알지만, 이 일은 거절하는 것
이 나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왕께서 처음에 청혼한 것은 부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사오며, 상공께서 벼슬하지 않은 선비로 있을 적에 아버님께 허락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상공께서도 저와 혼인할 때에 알리지 않고 하셨던 일이니 깊이 생각하소서. 저는 상공 덕택에 부모님과 만나고, 지극한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아들딸을 낳았으니, 이밖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상공께서 황성으로 가셔서 부인을 맞이해 오시고 저를 내쫓는다 하여도 저는 조금도 서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새로 맞이한 부인이 질투가 심하다 해도 상공께서 잘 알아서 대접해 주신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어 원망을 품겠습니까?”

상서가 말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부인은 다시 말을 꺼내지 마시오.”

상서는 끝내 가려고 하지 않았다.

황제께서는 정말로 중한 병이 든 것으로 여기시고 어의를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하셨다. 상서는 정말로 병이 깊은 척 하면서 어의에게 진맥하도록 하였다. 진맥을 마친 어의가 황성으로 돌아가 황제께 아뢰었다.

“이 상서의 병은 위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잠잠히 있었으나, 양왕은 매우 화가 나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 작품 해설

조선 시대에 쓰여진, 지은이와 집필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한글 소설이다. 다만 영조 30년인 1754년에 만든 만화본 <춘향가>에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총 80여 면으로 되어 있으며, 도선 사상에 입각해서 쓰여진 소설로서, 전체 줄거리가 도선적인 전기성(傳奇性)을 띠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결말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 김전과 그의 부인 장씨는 늙은 나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 뒤 숙향을 낳았다. 하지만 숙향이 세 살 되던 해에 피란길에 숙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숙향은 사슴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해 장승상 댁에 이르고, 장승상은 숙향을 딸로 삼았다.

숙향을 시샘한 시비 사향이 숙향을 죽일 흉계를 꾸며, 숙향은 도둑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다. 이에 숙향은 죽음 결심하지만 용녀와 화덕진군, 천태산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마고할미 집에서 살았다.

어느 날 숙향은 꿈 속의 광경을 수로 그렸는데, 이것을 할미가 시장에 내다팔았으며, 그 수를 본 이선이 숙향과 만나 가연(佳緣)을 맺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서는 김전으로 하여금 숙향을 죽이게 했는데 김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어 그녀를 죽이지 못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선의 숙모가 이상서에게 숙향에 관한 일을 알려 주었다.

마고할미가 세상을 떠난 뒤 숙향은 이상서 부부와 만나고, 이선이 장원급제한 후 이선과 숙향은 화목하게 지냈다. 그 뒤 이선은 황태후를 위해 선약을 구해 이 공으로 초왕(楚王)이 되어 숙향과 부귀를 누렸다.

줄거리 속에 남녀 주인공의 도선적인 출생담은 물론, 숙향이 난리 중 울고 있을 때 황새가 와서 날개로 덮어 주고, 잔나비가 와서 삶은 고기를 물어다 먹이며, 까치가 숙향을 구원해 줄 장승상 댁에 있는 마을로 숙향을 인도했고, 청조(靑鳥)가 숙향을 천상으로 안내해서 후토부인을 만나, 전세(前世)인 천상에서 지내던 일들을 기억하고, 후토부인이 주는 사슴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장승상댁으로 갔다는 것은 모두 도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작품은 도선 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남자 주인공 이선이 서역 봉래산 선계로 약을 구하러 가면서 온갖 마물(魔物)들의 방해를 받는 것은 중국 소설 <<서유기>>의 모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작품은 상계(上界)에서 내려온 남녀 주인공들이 온갖 고난 끝에 지상에서의 연분을 맺는 과정을 표현한 애정 소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담보다 여자 주인공인 숙향의 고행담을 더 표현했다.

남녀 주인공이 영물(靈物)이나 선인(仙人)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많고 이들이 내용 흐름을 이어 주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이 도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숙향의 고행담을 통해 여성이 수난당하는 당시의 사회 모습을 지은이 나름대로 깊이 인식했으면서도 그 해결책을 도선이라는 초월적인 힘에서 찾으려고 한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도선적인 표현을 빼면 평범한 작품에 불과하지만, 이 작품이 도선 사상에 입각해서 쓰여졌다는 것으로 볼 때 종교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숙향전>은 숙향의 삶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녀가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설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위적이며 현실적인 장애를 뛰어넘어 남녀간의 자유로운 애정을 이룬다는 점에 이 작품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당시 여성 독자층이 변화된 의식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사회적 요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 작품은 이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설이 성행하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



24 세 가지 유익한 벗, 유방선

■ 작품 해설

여말 선초의 문인으로 학문이 깊었던 유방선의 수필이다. 세종 연간에 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자문하기도 했지만 병으로 인해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수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친구인 이이립이 벗으로 삼은 세 가지 사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군자의 세 가지 벗이 될 만한 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 작품 읽기

나의 벗 이이립이 기해년 가을에 물러나기를 청해 남방으로 돌아와 영천 서파리(西坡里)에 살았는데 서파삼우(西坡三友)란 호는 그때 지은 것이다. 세 벗이란 확대경과 빨잔과 쇠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말했다.

“내가 벗들과 떨어져 혼자서 사니, 사람들이 나를 벗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거니와 나도 또한 굳이 벗을 구하려 하지 않았네. 이제 세 물건으로 벗을 삼으니, 확대경으로는 불을 일으켜 무엇을 끓이는 일을 맡게 하고, 빨잔으로는 술을 채우게 하고, 칼로는 생선을 다듬어 스스로 술을 붓고 스스로 마시니, 이내 취하고 또 배부르다네. 생선과 쌀이 나는 시골에서 소요하면서 태평성대를 즐기고 있네. 이것이 내가 이들을 벗으로 취한 이유일세. 자네가 이 뜻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고맙겠네.”

내가 말했다.

“벗이라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진실로 벗할 만한 덕이 있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벗삼을 수 있는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들도 물건으로서 벗을 삼은 이가 많았네. 그러나 물건 중에 취하여 벗으로 삼을 만한 것이 이것들만이 아니거늘, 반드시 이들로 벗을 삼은 것이 어찌 입과 배를 채울 계책 때문이었겠는가? 자네가 말한 바는 겸손한 표현일 뿐일세.

내가 보기에 확대경은 불을 취하는 기구인데 한 번 불을 붙여 꺼지지 않게 하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는 마치 마음의 밝은 덕이 한 번 밝아져 그치지 않게 하면, 그 밝음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일세. 이 불을 취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공이 있을 것이니, 어찌 불을 피우는 화덕에만 그치겠는가?

빨잔의 재료는 바로 빨인데 빨은 가운데가 비었고 안으로 향하며 아래로 임하는 길이 있고, 거기에 담긴 술이 맑거나 탁하거나 다 포용하는 아량을 가지고 있네. 이 술잔을 사용하는 사람이 술잔의 이와 같은 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도를 즐기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일세. 어찌 석

잔 술의 의미를 알지 못할 염려가 있겠는가?

칼이라는 것은 쇠인데, 쇠의 기운은 가을과 통하고 그 덕은 예리함에 있으니, 그 예리함을 물체에 활용하여 진평 ■은 고기를 공평하게 잘 나누었고, 그 예리함을 정치에 적용하여 여회 ■는 사건을 처리함에 결단을 잘 내렸네. 이 칼의 용도를 살피건대, 칼을 쓸 때에는 결코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네. 그것은 칼을 쥐고 있는 한 누구도 감히 자네가 하는 옳은 말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일세.

이 세 가지 벗들이 안으로 몸을 닦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갖추고 있으니, 공자가 일컬은 유익한 벗과 맹자가 논한 ‘고인을 벗으로 한다.’는 말이 본래 이것이라 생각되네.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가히 벗을 취하는 법을 안다고 이를 만하네. 각자의 덕을 취하여 잘 쓴다면 그 효과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일세.

훗날에 그대가 조정에 초빙되어 대신의 직책을 받고, 백관을 등용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하여, 일세를 다스려 위로는 군왕의 덕치와 교화를 돕고 아래로는 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벗들의 힘을 입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네.”

- 진평: 한나라 고조 때의 공신이며 정승.
- 여회: 당나라 태종 때의 정승으로 일을 잘 결단하기로 이름이 났음.

25 이별의 김포 공항, 박완서

■ 전체 줄거리

소녀는 미국에 있는 고모의 초청으로 곧 한국을 떠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박물관 구경에 나선다. 그러나 서울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소녀의 할머니인 노파는 곧 먹을 것, 입을 것이 지천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국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박물관 구경이 시원찮다.

소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다. 삼촌들과 고모가 어떻게든 외국으로 뜨기로 작정하고 그 연줄을 찾고 수속을 밟느라 쓰다닐 당시의 그들 공통의 몸짓—흡사 뒷에 걸린 들짐승의 몸부림이나 난파선 쥐들의 불온한 반란이 저러려니 싶게 지랄스럽고 발악적인 몸짓들이 잊히지 않는 것이다. 소녀는 그 당시 삼촌들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웬일인지 삼촌들의 발목에서 절그럭절그럭 쇠사슬 끄는 소리라도 났던 것처럼 기억돼 소름이 끼친다.

그렇게 삼촌과 고모는 발악적으로 한국을 떠났고 드문드문 편지가 날아들었다. 소녀는 삼촌들이 소원대로 이 나라를 떠

나 어느 만큼은 이 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조국인 이 나라는 어떤 뜻을 지니게 되었을까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편지에는 김치에 대한 거의 환장할 것 같은 허기증 외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곧 삼촌들과 고모의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노파가 며칠 있으면 떠난다. 그러나 소녀는 떠나는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떠나는 날까지의 시간이 마냥 싫다. 삼촌들 때도 늘 그랬듯이 떠나는 날만 받아 놓으면 문득문득 버터에 스테이크라도 먹은 듯이 느긋느긋해지면서, 아주 이 집 식구와는 처지가 달라진 듯한 여유 있는 얼굴을 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노골적인 연민까지 베풀려 드는 데야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물관의 관람이 끝나갈 무렵 노파는 돌부처를 전시해 놓은 곳에서 법열과도 같은 희열에 찬 표정으로 전시된 불상을 향해 정성껏 절을 되풀이한다. 전시장을 나온 노파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내고 비행기에 오른다. 그러나 비행기에 오른 노파는 기체가 이륙하는 충격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몇 백 년 묵은 거대한 고목이 뿌리 채 몽땅 뽑히는 충격이다. 급기야 노파는 뿌리 뽑힌 고목과도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를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한다. 노파는 노파의 아들들이 이를 갈며 싫어했고 진저리를 치며 놓여나기를 갈망했던 이 땅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든가를 생각하며 조국을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기만 한다.

■ 작품 읽기

드디어 노파가 떠날 날도 내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파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도 흐릿한 밤은 못 되었다.

노파는 마지막 밤을 맡준주인 길남이와 자고 싶었다. 꼭 그리고 싶었다. 아직 어리고 하나밖에 없는 사내놈이라 오나 오나 해서 길러서 그런지 제 에미만 바치고 할미를 통 안 따르는 놈이었지만 하룻밤만 같이 자면 잘 사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놈을 꼭 껴안고 그 신통하고 대견한 귀물인 고추도 좀 주물러 보고, 잠결에 하는 발길질도 당하고, 이불도 덮어 주고 토실한 뺨에 뽀뽀도 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밤새도록 그놈을 품에 품고 있고 싶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노파가 떠나는 날이 며느리 친정 어머니 환갑날이라고 며느리는 전날부터 친정으로 갔다.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비행장으로 곧장 나올 속셈인 모양으로 딸들에게 저녁에도 할머니 불고기 해 드리고 내일 아침에도 할머니 불고기 해 드리는 거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효부 노릇을 한바탕 하고 갔다.

길남이만은 꼭 떼어놓고 갔으면 싶었는데, 길남이는 막무가내 제 에미 치마꼬리를 안 놓고, 그래도 에미가 딱 떼어놓으면 젓먹이도 아니겠다 못 떼어놓을 것도 없겠는데 “그래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 오늘 밤은 꼭 쉬셔야지.” 하고 큰 선심이나 쓰듯이 데리고 가버렸다.

노파는 밤새도록 그제 서운해서 몰래 울었다. 자고 나고 그제 무슨 한(恨)처럼 묵진한 응어리가 되어 가슴에 걸려 있었다.

며느리는 다음날 비행장에도 겨우 시간 전에 대 와서 남편과 딸들에게 어서어서 할머니 배웅하고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 환갑상 받으시는 데 잔 드려야 한다고 설쳤다.

배웅을 빨리 하게 하려면 빨리 갈밖에 없겠다 싶어 노파는 또 한 번 야속하다. 노파는 길남이를 외락 껴안았다. 아프다고 울려고 했다. 할 수 없이 놓아주고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쥐었다. 또 아프다고 울려고 했다.

소녀는 할머니가 입고 있는 촌스럽게 번들대는 합섬 양단 치마저고리와 은비녀가 삐딱하게 꽂힌 조그맣고 허술한 쪽과, 목에 걸어 거북하게 앞가슴에 늘어져 있는 BONANZA란 흰 글씨가 새겨진 빨간 솔더백과, 그리고 걸치장의 부조화가 딴 여행객들과 이루는 또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부조화의, 끝내 길남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못 끊는 것무른 노인을 지켜보면서 거의 육체적이라 수도 있는 아픔을 가슴 깊은 곳에 느낀다.

떠나는 편에서나 떠나보내는 편에서나 이견 정말 못할 노릇이다 싶다. 차라리 삼촌들처럼 다시는 돌아오나 바라, 내 어디서 오증을 깔겨도 이놈의 고장에다 겨냥하고 깔길걸 어찌고 폭언을 퍼부으며 의기양양 걸어나가는 것을 보는 편이 속 편했던 것 같다. 소녀는 막연하나마 삼촌 세대의 위악(偽惡)을 이해할 것도 같다.

시간이 없다고 어서어서 나가시라고 며느리가 재촉을 했다. 제 친정에미 환갑상 받을 시간에 늦겠다는 건지 비행기 뜰 시간에 늦겠다는 건지 분명치 않은 채, 가슴에 걸려 있는 뜨거운 응어리를 시원히 풀지도 못한 채 노파는 딴 사람들과 휩쓸려 출국의 최종 절차를 마치고 비행기가 보이는 광장으로 나섰다. 비행기가 있는 데까지 타고 갈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남이 하는 대로 버스에 올라탄다. 모두 젊은이들 뿐이다.

한 젊은이가 할머닌 어디까지 가십니까고 상냥하게 말을 건다.

“그 뭐라나, 미국의 어디메드라? 참, 쌍포리코라던가.”

“네, 샌프란시스코요. 저도 그리로 가는데요.”

젊은이가 광대같이 우스꽝을 떨며 노파를 껴안았다. 노파도 반가워서 젊은이 손을 덥석 잡았다가 놓으면서,

“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이러구 있을 게 아니라 버스 떠나기 전에 식구들에게 든든한 동행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지. 이 늙은일 혼자 떠나보내고 발길들이 안 돌아설 텐데.”

노파는 허겁지겁 버스를 내린다. 노파는 그냥 가족들을, 특히 길남이를 다시 보고 싶을 뿐이다. 버스에서 내린 노파는 송영대 밑으로 달려가 송영대를 쳐다보며 악을 쓴다.

“애들아, 마침 쌍포리코까지 같이 갈 동행을 만났다. 아주 친절한 젊은이야. 내 걱정들은 마라.”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다. 낮은 사람들이 킬킬거릴 뿐이다. 다시 쳐다봐도 송영대에 밀집한 사람 중 낮은 얼굴은 하나도 없다. 벌써 환갑집으로 가버린 모양이다.

다시 확인하고 싶으나 시야가 자꾸만 부영게 흐려져 그제 여의치 않다. 별안간 송영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져서 숨듯이 다시 버스에 오른다. 버스를 내려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동안 내내 노파는 혼돈 속을 가듯 눈앞이 지척을 분간 못 하게 부영고 의식조차 흐리멍덩하다. 아까의 젊은이가 노파를 부축해 주려다 말고 탄 젊은이들과 섞여서 시시덕댄다.

마침내 기체가 이륙하는 것을 노파는 심한 충격과 함께 의식한다.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노파 하나만의 것인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다.

몇백 년쯤 묵은 고목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몽땅 뽑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받는 고목의 충격이 바로 이러하리라. 노파의 의식이 비로소 혼돈을 헤치고 뿌리 뽑힌 고목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한다.

비행기 속의 젊은이들은 노파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을 뜨는 마당에 일말의 애수조차 없이 다만 기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도 동류의식을 느낄 수 없다. 노파는 외롭다.

“할머니 울잖아? 애기같이, 우리도 안 우는데. 울지 마 우린 같은 처지야.”

아까의 젊은이가 광대 같은 표정으로 어리광을 떨며 노파를 웃기려 든다.

하긴 저들도 뿌리 뽑혔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들은 묘목이다. 어디에고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묘목이다. 그러나 난 틀렸어. 난 죽은 목숨이야.

노파는 노파의 아들들이 이를 갈며 싫어했고 진저리를 치며 놓여나기를 갈망했던 이 땅의 모든 구질구질한 것까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잘 안다. 노파는 마치 자기 시신(屍身)을 보듯 이 숨막히는 공포로 뽑혀 나동그라진 거대한 나무와 지상으로 노출된 수만 가닥의 수근(樹根)이 말라비틀어지는 참담한 모습을 환상하며 심장을 쥐어짜듯이 서럽게 운다.

■ 작품 해설

1970년대의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산업화의 여파로 인해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좇아 앞뒤 가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근본의 부정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이 배금주의의 영향으로 자신의 뿌리조차 부정하였던 당시의 세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

☒ 욕망의 나라, 미국

70년대 한국인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소녀의 삼촌들과 고모는 모두 한국을 떠났다. 그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는 지긋한 가난이 싫다는 것과 한국에 남아서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나도 풍족한 행복의 나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만 같은 꿈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소녀의 눈에 비친 삼촌들과 고모는 아메리칸 드림에 목을 맨 속물적인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미국은 삼촌 같은 사람들에게 열린 꿈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으로 떠나려 했던 삼촌들을 받아 준 곳은 정작 독일과 팔일 뿐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향한 70년대 한국인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읽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적인 것은 미국, 미국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삼촌들이 미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갔다는 사실이다.

☒ 한국을 떠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이들에게 한국을 떠나가게 했을까? 삼촌은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라고 했고, 고모는 ‘똥을 치는 일’ 일지라도 한국보단 먹고 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떠났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기를 쓰고 한국을 떠나려 했던 이들을 단순히 욕할 수만은 없다. 단순히 그들의 허영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노파가 비행기에 올라 서럽게 울었을 때, 노파가 이제 자신은 뿌리 뽑힌 삶이라고 서럽게 울었을 때, 한국에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배제된 이들의 서러움을 읽어 낼 수 있다. 즉 삼촌들과 고모, 그리고 고모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노파의 모습 속에서, 막연하게 미국을 동경하고 맹렬하게 조국을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소외된 이들의 맹목적인 울분을 어렵뜻하게나마 보게 된다. 선명치는 않지만.

26

소망, 채만식

■ 전체 줄거리

나는 7년 전 동경에서 대학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남편 없는 시택에서 살았다. 3년 후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신문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5년 후 시택에서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함께 2년 동안 살았다. 남편이 신문 기자 노릇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작년 초가를 신문사에 사직원을 내버린다. 신문사에서는 남편에게 나오라고 여러 번 재촉했으나, 남편은 신문사의 재촉을 거절한다. 신문사를 사직한 뒤 남편은 건너방에 누워서 책과 신문과 잡지 읽기에 전념한다. 내가 말을 걸면 웅변조로 나를 몰아세운다. 남편은 가끔 화동 서씨를 찾아가곤 한다. 유월 그믐께 남편이 쌀가게에 가서 봄부터 밀린 외상값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 후 남편은 쌀가게 앞을 피하여 화동 서씨 집에 갔다. 이른 여름에 친정 어머니가 그곳 해변에 와서 쉬라고 편지를 해서 내가 남편에게 친정에 가자고 졸랐으나 남편이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거절해 버린다. 내가 남편에게 서울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남편은 내가 하등 동물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남편은 지금 세상이 무너진다고, 또 세상이 옛이야기 같다고 말한다. 얼마 전 내가 남편에게 아들 태호를 데리고 삼청동 수영장에 가서 몸을 식히고, 시원한 솔밭에서 독서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에게 속물이라고 욕하며 속물들과 돼지처럼 지낼 수 없다고 말한다. 오늘(말복) 정오에 내가 남편에게 안양에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나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을 하루만 즐겁게 해 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것이 천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가 죽어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인간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말이 전설같다고 말한다. 나는 남편이 성가시지 않게 죽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개죽음이라고 말하고, 남편은 오늘날 미국이 1차 세계 전쟁 때 2천만 명의 죽음의 대가로 번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남편에게 무더운 건너방에서 나와 시원한 마루나 안방에 누우라고 말한다. 남편은 나에게 하등동물이라고 욕하며 자기를 괴롭히는 더위와 싸운다고 말한다. 나는 닭을 사오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남편이 나에게 쌀가게 주인에게 외상값을 팔월 그믐께 갚겠다고 말하라 한다. 나는 그대로 쌀가게 주인에게 남편의 말을 전한다.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닭을 사가지고 한 시에 돌아온다. 집이 비어서 남편이 화동 서씨에게 간 것으로 짐작한다. 닭과 칼국수를 삶고 있으니 남편이 겨울 양복과 겨울 모자를 쓰고 들어온다. 내가 남편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자 남편이 종로에서 당

당하고 통쾌하게 서 있다가 저속한 곤충들이 웃거나 멍하게 쳐다보는걸 보다가 쌀가게 앞을 유쾌하게 지나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한다. 남편이 닭국수 한 그릇 반을 먹는다. 언니가 나에게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언니의 남편이(형부) 들어온다. 나는 남편의 정신병 치료에 관해 의사인 형부와 의논하려고 하다.

■ 작품 읽기

애개개!

그이는 이 집 아저씨더러 하등동물이라다우. 병자 고름 굵어서 돈이나 모을 줄 알지, 세상이 곤두서건 인간이 돼지가 되건 감각두 못 허구, 거저 맛있는 음식에 좋은 옷, 편안한 집에서 호박 같은 마나남이나 이뻐허구, 그런 것밖에는 아무 것두 모른다구, 하하하. 언니두 그런 줄은 아는구려?

참, 결혼을 하면 남편 성질을 닮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봐? 우리가 어려서는 언니가 되려 신경질루 감정이 섬세허구 잔 결벽이 유난스럽구 했는데, 그러구 나는 털팽이⁽¹⁾구. 안 그랬수? 그랬는데, 시방은 꼭 반대니.

아무튼 나두 언니처럼 의사허구 결혼이나 했드라면 시방 썸 언니 부러워 앓구서 엄범덤병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갔을 거야.

네에, 옳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언니한테 졌습니다. 가치는 어디루 갔든지 간에 당장 언니가 날보담 팔자가 좋구, 그걸 내가 한편으루 부러워하는 게 사실은 사실이니깐요.

그러나저러나 대체 어떡허면 좋수? 이 일을

나 혼자서 두루두루 생각다 못해 이 집 아저씨허구나 상의를 좀 해 볼까 허구서, 부르르 오기는 왔어두, 상의를 하자면, 그새 통히 토설을 얹던 속사정을 다야 자상하게 언니한테랑 설파를 해야 하겠구, 그랬다가 그런 줄을 그이가 알든지 헐 양이면, 성미에 생벼락이 내릴 테구, 멀쩡한 사람 가져다 미친놈 만들려구 험다구. (중략)

병원? 진찰?

흥! 그런 말만 내보우. 생사람 하나 죽구 말지 안 돼요. 안 되구,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여기 아저씨가 누구 잘 아는 이루 신경과 전문 의사가 있으면 미리 짜구서, 그런 눈치 저런 눈치 볼 게 아니라, 놀러 온 양으루 어물찌억허구, 좀 보아달래야지, 내 억척으루는 천하없어두 병원에는 데리구 가는 장사는 없어요.

이거 봐요 글썄, 오늘은 이런 재주를 다야 부러보잖았수?

오정이 조끔 못돼서야. 태호 병어리를 털으니깐, 제법 일원짜리두 두 장이나 나오구, 죄다 해서 한 오륙백 원은 돼요. 옳다구나, 태호허구두 구누를 해가지구서는 모자가 건넌방으루--그 양반이 농성을 허구 있는 그 한중 가마 속이었다--글러루 처억 쳐들어갔구려.



들어가설랑, 아 날두 이렇게 몹시 더웁구 이에두 벌써 며칠째 어디를 가자구 조르구 허니깐, 우리 가서 수박두 먹을 겸, 물에두 들어갈 겸, 안양이나 잠깐 갔다가 오자구, 듣자니 사람두 그리 많지도 않구, 조용한 자리두 얼마든지 있다더라구, 며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주워 보태가면서 은근히 추실르지를 안했다구요. 태호는 태호대루 내가 외워준 말을 강한다는 게 '안양' 먹으러 '수박' 가자구 조르구 앉았구.

침에는 대답두 안해요. 그래두 자꾸만 앉아서 조르니깐, 겨우 한달 소리가, 태호 데리구 갔다 오구려, 이러는군!

그리면서 슬며시 돌아놓는데, 글썽 잠뱅이만 입구 알몸으로 누웠던 등허리가 땀이 어떻게두 지독으로 났는지 방바닥이 흥그은해요. 오죽해서 내가 걸레를 집어다가 닦았으니. 천주학이라구는!

일 글른 줄 알면서두, 그리지 말구 같이 갑시다. 당신두 같이 가서 소풍두 허구 그래야 좋지. 우리 둘이만 무슨 재미루다가 가겠수. 자, 어서 일어나서 우선 냉수루 저 땀두 좀 씻구, 그리라구 비선⁽²⁾ 허듯 얘기달래듯 하니깐,

"재미?"

암말두 않구, 한참 있다가, 따잡듯 시비조야.

"재미라? 게 입자네 재미 보자구 나는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런 억지소릴라컨 내지두 마시우!"

나두 그제서는 속에서 부애가 치밀다 못해 대구 쓸밖에.

"원, 놀러 가는 게 어쩌니 고통이며, 당신 말대루 설렁 고통이 된다구 합시다. 당신 좀 고통받구서, 며 나는 둘째야. 저 어린 것 하루 실컷 즐겁게 해주면, 그게 못할 일이 우?"

"그것두 천하사를 도모하는 노릇이라면"

"에구! 거저"

"....."

"글썽, 여보!"

"....."

"당신 이러다가 아닐 말루 죽거나 하면 어떡허자구 그러시우?"

"헐 수 없겠지. 인간 목숨이 소중한다는 것두 요새는 전설 같아서 까마득허이!"

"드끄러워요! 내가 어디 가서 기두 맥두 없이 죽어버려야 당신이 정신을 좀 채릴러나 보우."

"알망거리지⁽³⁾ 않는 여편네는 넉넉 만금 값이 있어. 아닌게 아니라, 아씨의 그 다변은 좀 성가셔!"

"그렇다며는, 아무래두 나는 죽어야 하겠구려? 당신 성가시지 않게, 또 정신을 버쩍 좀 차리게. 소원이라면 죽어드리다."

"나를 위해서? 죽는다"

"빈말이 아니라, 두구 봐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두 개죽음일 경우가 많아! 제일

차 세계대전 후에, 아메리카 녀석들이 무얼루 오늘날 번영을 황재했게! 귀곡성이 이천만이 합창을 하잖나! 억울하다구. 생때같던 장정 이천만 명!"

"아이구 답답이야! 이 답답. 체에발 덕분 하느라구 저기 마루나 안방으루라두 좀 나가서 누워요. 체에발."

"그만 입 다물지 못해? 이 하등동물 같으니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되사리구 일어나 앉어요, 화가 나설랑.

"이 동물아! 내가 이렇게 꼼짝 앉구서 처박혀만 있으니깐, 아무 내력없이 그리는 줄 알아? 나는 이게 싸움이야, 이래빠두. 더위가 나를 뻘으니까, 누가 못 견디나 보자구 맞겨누는 싸움이야 싸움!"

내 원,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옥신각신해야 되려 그이 신경에만 해롭겠어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지. 속두 상허구, 허는 깐으루는 자기 말대루 태호나 데리구 안양이라두 곧 가겠어. 그렇지만 어디 그럴수가 있어야지. 내가 애가 풀신 삭이구 말았지.

- (주) (1) 털쟁이: 성질이 침착하지 못하고 덤벼거리는 사람.
- (2) 비선: 비손.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소원을 빌.
- (3) 알망거리다: 알망곳은 짓을 자꾸 하다. '알망곳'다는 '성품이나 행동이 지나치게 약삭빠르고 까다롭다.'의 의미임.

■ 작품 해설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한 평범한 아내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의 아내인 언니에게 쉼 없이 수다를 떠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1인칭 독백 형식으로 진행되는 소설에서 남편은 이 소설의 제목처럼 젊은 나이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곧 남편은 비정상적인 시대에 현실 상황을 모르고 하루하루 개인적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등동물이나 벌레라고 경멸하며 비정상적인 행동들-여름에 뜨거운 방에서 꼼짝 않는 것, 무더운 한낮에 겨울옷을 입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남편이 절박한 시대로부터 도피하기를 거부하고 시대적 의무와 고통을 감수하려는 것인 동시에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맞서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인 아내와 다른 사람들은 인식 능력이 모자라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체면식 소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소설 또한 풍자 소설로 잘못된 시대 현실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 풍자하는 것이다.

■ 참고

☒ 남편의 인식과 태도

남편은 1930년대의 세계 강대국들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거나,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국제 정세를 알고 있고, 따라서 도 한 차례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전쟁 목적을 추구하는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사람의 목숨을 뺏는 전쟁을 치러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세상이, 특히 한국이 망해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적 상황을 모르고 하루하루의 개인적 만족이나 가족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동물, 벌레, 속물이라고 경멸하는 것이다.

남편이 세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제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대될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책신문잡지를 읽는 것을 뜻한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화동의 서씨도 남편과 같은 높은 수준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석된다. 남편의 식욕도 왕성한 것으로 보아, 그의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제목의 언어적 아이러니

언어적 아이러니는 이 작품의 제목과 해설자의 말 속에 나타난다. 이 작품의 제목으로 채택된 ‘소망’이라는 말은 ‘젊은 나이에 미친 남편’을 뜻한다. 그러나 해설자의 남편은 미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소망’은 이 말의 본래의 의미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뜻을 강조하는 언어적 아이러니이다. 그 뿐 아니라 ‘소망’은 또다른 의미를 함축한다. 즉 이 말은 해설자의 남편이 미친 것이 아니라, 유럽 강대국보다 늦게 강대국이 된 젊은 강대국 일본의 전쟁 정책이 미친 것처럼 어리석다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 이 작품의 제목은 ‘소망’의 동의어로서의 소망(희망) 즉 일본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기대를 암시한다. 그러나 후자의 두 의미는 아이러니가 아니라 비유와 말장난에 가깝다. 따라서 후자의 두 의미는 풍자의 내용이 된다.

☒ 이 작품의 중심 공간인 ‘건너방’ 과 ‘병원 안’

‘건너방’은 서쪽에 앞문이 있고, 처마 끝에 함석 채양이 붙어 있다. 이곳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정오가 지나면 불별이 쪼이고, 함석 채양이 더운 기운을 내뿜는다. 신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곳이고, 심리적으로도 답답한 곳이다. 이 공간은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서술자(아내)의 정신 상태를 암시한다. 작품 전체의 의미 차원에서 이 공간은 확대되는 전쟁과 대량 살상으로 몰고 가는 정치적 억압과 이에 맞서려는 남편의 정의롭고 고독한 의지를 상징한다.

‘병원’은 서술자 언니의 주거 공간이고 언니 남편의 직장이자 서술자가 언니에게 남편의 정상적 행동을 비정상적 행동으로 왜곡되어 전달되는 현재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에 불안해하는, 인식능력이 모자라는 현대적 개인들의 비정상적(병적)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곳이다.

27

임종(臨終), 염상섭

■ 작품 해설

뇌일혈로 쓰러진 병자가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는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진통제와 강심제 따위로 겨우 연명해 가는 형편이다. 병자는 병세가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병자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병원비나 장례비 걱정을 한다. 병자는 이런 가족들의 태도를 서운히 여긴다.

병자가 퇴원을 원하자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를 퇴원시키지만 병자는 퇴원 후에 곧 죽고 만다. 병자가 죽자 모인 가족들은 죽은 사람의 유언과는 상관없이 장례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치르기 위해 서로 말다툼을 한다. 또, 병자는 원래 불교를 믿었으나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의 권고로 성당의 세례를 받는다. 하지만 입관하는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의식을 치른다.

■ 작품 읽기

(가) 성한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여 가거나, 저희들의 사정만을 생각하거나 말거나, 정신이 말짱하고 원체 체력이 든든하던 병인은 지치고 살이 야위기가 하였지만, 좀체 자기가 그렇게 쉽사리 훌쩍 넘어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큰 산소의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마는 장비는 터무니없고, 이런 세대에 무어 볼 거 있소. 간략히 화장을 해서 떠나 갖다 묻두룩 하우."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러한 유언도 하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정한 산에 올라가 날려 보내도 좋겠다는 지나는 말도 하여 가족들을 놀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 기회에 미리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 나가거나 하는 불안은 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쭈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있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히 소복되리라는 새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사실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한 통에 C라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는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병인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낯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은 몰랐습니다그려. 지금 ××재단을 설립 중인데 물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싶더군요. 그야 이사자리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공교히 이렇게 누워 계셔서 안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만 나십쇼."

C청년은 병인의 기를 돋아 주려고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하여 주고, 또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는 말눈치였다.

"흥, 그런 이야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게야 되겠마는 하여간 그 축들 만나건 잘 부탁해 주우. 어, 오늘 C군이 찾아 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두 인제 운이 터려는군! 힘 좀 써 주슈. 꼭 부탁하우."

병인은 젊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한 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의사가 임종이 임박하니 퇴원하라고 하자 가족들은 한약을 잘 쓰면 염려 없다고 꾸며 병인의 퇴원을 서두른다. 자동차를 불러 타고 퇴원하던 중, 병인은 갑자기 위독해져 사망한다.

(나) 발치께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과수택은,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삼일장이나 오일장이나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라신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서 삼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그야 우리 형세에 삼일장이죠마는,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두 아버지 곁으로 들어가시겠는데요."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혹은 이 과수택도 뒤미처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은 입 밖에 냈을는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 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거던, 자기 문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 놓고서 거기 못 문힐까 보아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말이 삼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구,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¹⁾이 문제로군."

호상차지⁽²⁾의 걱정이었다.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샀만 해도 두 대에 사만 환은 예산을 잡아야 할걸."

홍제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오륙천 환에 너끈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찾았던 사만 환 예산이란 엄청나다는 말눈치였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도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르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 하여간 하룻밤 하루 낮을 안팎에서 북작대고 들볶아쳐서 제 시간에 성복제⁽³⁾도 지냈다. 성복제를 지내고 나니까, 알아누웠던 명호의 재종형이 지팡이를 짚고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허!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쉼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들고 염불을 시작하였다. 한 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염불을 끝마치고는, 이 늙은이는 품에서 흠치적 흠치적 백지에 기름하게 쓴 봉투를 꺼내서 관상명정⁽⁴⁾을 쳐들고, 관 위에 끼워 놓는 것은 손수 베긴 경문인지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나가서도 하관할 때 폐백과 함께 이 종이 봉지도 횡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불타의 대자대비한 공덕에 안겨 안온히 잠들지 모르나,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자의 소임이나 향의⁽⁵⁾를 기울인 데에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

- (주) (1) 산역: 무덤을 만드는 일.
- (2) 호상차지: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
- (3) 성복제: 처음 상복을 입을 때 지내는 제사.
- (4) 관상명정: 관 위에 씌우는 명정.
- (5) 향의: 마음을 기울임. 또는 그 마음.

■ 작품 해설

1949년 8월 《문예》 창간호에 발표된 염상섭의 단편소설로, 한 인간이 죽기 직전에 심리 변화와 병자를 둘러싼 가족들의 심리를 그린 작품이다.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면 삶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인다는 것과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병들게 되면 사람들은 귀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죽음이란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의 순간이다. 존재의 상태에서 비존재의 상태로 넘어가는 경계의 지점에 죽음의 순간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상섭은 죽음의 순간을 극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한 개인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는 치유 가망이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퇴원하라는 권유를 받지만, 한약을 지어오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겠다고 버틴다. 주인공의 이러한 행위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과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자신을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생 명호와 자신의 부인을 불신하면서 회생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장례비와 장례절차를 유언으로 남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달라는 청년의 권유에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는 것은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개인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이익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임종」은 죽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음을 통해 어떻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 참고

☒ 제목 알기

‘임종’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죽음을 맞이함’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이라는 뜻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병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인간의 속성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병자 가족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 군상들의 이기적이고 속물적 태도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작품의 서술상 특징

이 작품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낱낱이 묘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이다. 서술자가 임종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심리 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인간들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지만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작품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삶과 죽음에 대한 인물들의 이해 관계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한 사람의 임종을 소재로 하고 있다. 완치될 때까지 병원에 있으려 하고 죽음을 앞두고 한약을 짓게 하는 병자의 행동을 통해서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경제적 사정을 앞세워 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원시키고 산

사람들의 편의대로 장례를 치르려 논의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듯 작가는 임종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욕망을 통해 다양한 관계 안에 놓인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그려 내고 있으며, 경건해야 할 임종이라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죽음이라는 신성한 의식과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의 속물적인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8 백학선전, 작자미상

■ 전체 줄거리

명나라 홍무 연간에, 남경에 사는 유 태종은 벼슬이 삼공이고 충효의 가문 사람이다. 조정의 간신인 병부시랑 처전이 해하려 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한가히 지내는데, 자식이 없어 부인 진씨와 후원에 단을 모으고 기도하던 중, 부인 꿈에 선동이 나타나 '천상에서 죄를 지어 당신의 자식이 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잉태, '이 아이의 배필은 서남에 있다'는 선녀의 말을 들으며 아들을 순산한다. 이름은 유 백로로 용기 있고 풍채가 좋았다. 성남의 운수 선생에게 배우고자 길을 떠난다.

이부상서 조 경노와 순씨 사이에도 자식이 없어 절에 빌어 '천상의 시녀'가 딸로 태어나게 되니, 이름을 은하라 하였다. 운수 선생에게 가던 백로는 길가에서 열 살의 은하를 만나, 집안 대대의 보물인 백학선에 '窈窕淑女 君子好求'(오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라는 글귀를 써서 주고는 훗날을 기약한다.

병부상서 문 상서가 유 백로를 사위로 청혼하나, 벼슬을 얻은 뒤에 하자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는다. 최 국양도 은하를 머느리로 맞고자 하나, 백로를 생각하고는 거절하자 앙심을 품는다. 유 백로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순무어사로 부임하며 은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병이 들어 벼슬을 버린다.

이 때 오랑개 가달이 쳐들어 오자, 최 국양이 입궐하여 출전하며 백로의 외숙 전 홍퇴에게 은하를 죽이도록 한다. 은하의 신세가 딱함을 알고 전 홍퇴는 은하를 놓아 준다. 방황하는 은하에게서 유 태종이 백학선을 뺏으려고 욕에 가두나 실패하자 일 년만에 풀어 준다. 유 백로가 최 국양에게 원하



여 대원수가 되어 가달을 막으려 하나, 최국양이 군수를 해 주지 않아 군사들은 몰살 당하고 백로는 가달에게 잡히고 만다. 방황하던 은하가 주막에서 점괘를 보고 백로가 위험함을 알고는 임금에게 자원한다. 이 때는 최 국양의 모함으로 백로의 가족이 옥에 갇힌 때다. 병법과 무술에 신통력이 있음을 본 임금은 조 은하를 원수 가달을 치게 허락한다. 선녀의 도움으로 오랑캐를 물리치고 가달을 잡으며 백로를 구해 돌아 온다.

최 국양은 처벌을 받고, 유 백로, 조 은하는 연왕, 연왕비가 되며 팔순에 하늘로 올라 간다.

■ 작품 읽기

유 자사는 백학선을 찾으려고 남자로 변복한 조 소년을 오래 옥중에 가두고 추궁하였으나, 그의 철석간장을 굽히지 못하여 주야로 근심하다가, 하루는 홀연히 깨닫고,

"소년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도 잔인하다. 백학선을 잃은 것도 또한 하늘이 주신 운수니 할 수 없다."

하고, 조 소년을 옥에서 석방하였으나, 은하 낭자는 옥중에서 수척한 심신이 일시에 긴장이 풀리는 통에 새로운 충격으로 기절하더라. 시비 춘당이 정성껏 간호한 공으로 낭자가 소생하여 꿈에 본 천상의 사면을 생각하고 심중으로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모하는 천정배필인 유 한림과 만날 희망을 품게 되더라.

출옥한 은하 낭자는 유 한림을 찾으려고 곧 청주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수십 일 만에 수백 리를 갔으나 기력이 더욱 좋아져서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달려 가니, 하루는 도중에서 홀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다행히도 시비 춘당이가 아는 형주 사람이나. 춘당이 반가워하면서 순무 어사의 소식을 물으니,

"그 유 어사께서는 신병으로 황계계 표를 올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서 휴양하신다더라."

춘당이 낙망하고 은하 낭자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낭자가 깜짝 놀라며,

"네가 잘못 들은지 모르니 다시 자세히 물어 보라."

하고 반신반의로 근심하였으니, 춘당이 다시 아는 사람에게 물기를,

"순무 어사께서 병환으로 고향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인가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군관으로서 직접 호송해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 말을 다시 춘당에게 전해들은 은하 낭자는 하는 수 없이 길을 돌이켜서 남경으로 향하더라.

한편 유 어사는 백학선을 선사한 옛날의 여자를 사방으로 염탐하였으나 종시 만나지 못한 탓으로 심화병을 얻고 증세가 날로 위독해 갔으므로, 하는 수 없이 황송한 사연으로 표를 지어서 병치료의 휴양을 황계계 청하였더니 황제가 보시

고 병세가 위중함을 아시고 근심한 끝에, 어사를 대사도로 승진시키고, 그의 부친 형주 자사를 예부상서로 삼아서 즉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므로 위전⁽¹⁾이 더욱 융성하고, 부귀 또한 혁혁하더라.

대사도가 병중의 행차를 강행하여 꺾히에 명령을 받드니, 황제가 반갑게 맞아 위로하시고, 어서 물러가서 병을 조리하라고 분부하시니,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중으로 돌아와서 휴양하였으나, 가슴에 품은 근심은 더욱 간절하기만 해서, 부귀공명도 헛된 꿈만 같고, 사모하는 여자의 생각만 인생의 보람 같아서 믿을 수 없더라. 뒤 이어 상경한 부친이 아들 사도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근심하고 천하의 명의를 청하여 약을 쓰는 한편 병의 원인이 여자를 사모하는 점에 있음을 짐작하고, 좋은 규수에게 구혼하려고 널리 간택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으며, 부친은 근심 끝에 멀리 하황현의 현령 전홍뢰를 청하여 상의하기를,

"내 아들의 성질이 특이하여 공명을 이룬 후에 숙녀를 구하겠다 하므로, 그 뜻에 맡겨서 지금껏 성혼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공명이 족하게 되었으니 더 기다릴 것이 없어서, 널리 구혼코자 하나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근심 중이니, 형은 나를 위하여 마땅한 숙녀를 천거해 주시오."

하고, 신신 부탁하였다.

"사도의 혼사는 염려 마십시오."

전 현령은 뜻밖에 침착한 태도로 대답하거늘,

"그게 무슨 말이요?"

유 상서가 놀라서 다시 물기를,

"소제가 벼슬살이를 할 때 이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조 소제가 무죄 애매함을 가련히 여겨서 이리이러하여 피하라고 일러서 놓아 보냈사옵니다. 그 후에 백로의 말을 들은즉, 그 여자가 분명히 백로가 심중에 맹약한 여자라 믿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후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유 상서가 다시 놀라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애가 왜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병이 되도록 있느냐고 탄식하기를,

"그러니 생각나는 일이 있소. 내가 기주에 자사로 있을 때 어떤 관속이 보고하기를 어떤 선비가 백학선을 가졌다고 하기에, 내가 곧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세로 백학선을 바치라고 위협하였으나 끝끝내 죽기로 거절하기로 옥중에 가두어 두었으나, 해가 지나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므로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석방한 일이 있었소. 그런데 그 선비의 음성이 옥소리 같아서 여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몸을 검사하려다가, 아직 소년이라 음성이 그러려니 다시 생각하고 그냥 석방하였는데, 지금 현령의 말을 듣고 보니, 여자가 위급한 경우에 남복을 하고 난을 피하려 하였던 모양이구료."

하고, 아들 사도를 돌아보고 은근히,

"부자지간에 이런 사연을 왜 오래 속이고 있었느냐. 네가

그 여자의 생각으로 병까지 났지만, 그 여자들 어찌 참혹하지 않으랴. 그 여자 역시 필경 너를 찾아다니며 천신만고 할 테니 어찌 가엾지 않으랴. 그 여자가 필경 남경으로 갔을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오랑캐 가달이 남경을 점령하고 있으니, 혹은 그 여자가 도적의 화를 입고 죽었을지도 모르니 이 일을 어찌하랴. 옛말에 일녀함원하면 오월비상⁽²⁾이라 하니, 어찌 너에겐들 양화⁽³⁾가 없겠느냐?"

"부친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막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 사도는 망연히 앉아 있었고 사도의 외숙인 현령이 위로하며,

"조카는 부질없이 너무 염려 말고 마음을 진정하고 몸을 회복하라. 하늘이 이런 숙녀를 내심이니, 어찌 조카의 정열이 헛되리오.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것이니, 머지않아 만나게 될 거다."

"아아, 그 여자가 저를 위하여 천만간고를 다 겪고,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제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마땅히 죽기를 결심하고 남경으로 가서 그 여자를 찾아서 비상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 (1) 위전: 지위에 따른 위세

(2) 일녀함원하면 오월비상이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3) 양화: 죄의 양값음으로 받는 재앙.

■ 작품 해설

천상 세계에서 죄를 지은 선관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와서 갖은 고초와 역경을 겪은 끝에 행복을 찾고 영화를 누리다가 삶을 마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보다 적극적인 인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박씨전'과 같은 여성 영웅 소설로도 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두 주인공 사이의 애정이 중심 화두가 된다는 점에서 애정 소설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또한 두 주인공이 맺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점에서 '혼사 장애담'에 해당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유교적 충의보다 남녀 간의 애정관념을 중시했던 조선 후기의 경향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천상	천상의 선관 선녀가 죄를 지어 지상을 내쫓김
	↓
지상	유백로와 조은하로 환생하여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사랑을 이룸
	↓
천상	인간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다가 천상으로 돌아감

■ 참고

☒ 중심 소재 '백학선(白鶴扇)'

'백학선'은 흰 학이 그려진 부채를 말하는데, 사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설정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이다. 부채가 등장하는 부분이 유백로와 조은하의 만남이요, 그 부채에 쓰인 말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조은하의 집안은 몰락하고 그녀의 부모는 죽게 된다. 부채를 소유한 조은하는 시아버지로 인해 옥에 갇히고, 후에 대원수가 되어 적을 무찌르는 대목에서 부채에 그려진 학이 솟아 도움을 받는다.

남자 주인공인 '유백로'의 이름 또한 어머니인 김씨의 꿈에 백학을 타고 내려온 청의동자를 보고 낳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이미 태몽과 이름에서 '백학선'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학선'은 주인공 자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귀중한 존재가 된다. 이 작품의 제목이 '유백로전'이 아니라 '백학선전'이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백학선전"에서는 주인공의 탄생 그 이전에 "백학선"이 먼저 존재한 것이다.

☒ '백학선'의 의미와 기능

① '조 낭자'가 '백학선'을 귀하게 간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 낭자'의 절개를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② '유백로'와 '조 낭자'가 다시 만난다고 가정할 때, '조 낭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③ '유백로'가 '백학선'에 새긴 글귀로 보아 '유백로'가 '조 낭자'를 반려자로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④ '조 낭자'가 처음 본 소년에게서 '백학선'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유백로	↔	백학선 (사랑의 징표)	↔	조은하
-----	---	-----------------	---	-----

☒ 애정 소설로서의 '백학선전'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남녀 주인공들의 애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철저한 애정 소설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주인공이 혼인을 할 때 부모나 임금의 뜻보다는 당사자들의 뜻이 더 존중되고 선뜻 받아들여진다는 점, 남녀 주인공이 각기 싸움터에 지원하여 출전하는 것이 국가나 군왕에 대하여 충성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애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점 등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29

호질, 박지원

■ 전체 줄거리

대호(大虎, 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으려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다. 의사를 잡아먹자니 의심이 나고 무당의 고기는 불결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청렴한 선비의 고기를 먹기로 하였다. 이 때 고을에 도학(道學)으로 이름이 있는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선비가 동리자(東里子)라는 젊은 과부와 정을 통하였다. 그녀의 아들들이 북곽선생을 여우로 의심을 하여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의 방을 습격하였다. 그러자 북곽선생은 허겁지겁 도망쳐 달아나다 그만 어두운 밤이라 분뇨구덩이에 빠졌다. 겨우 머리만 내놓고 발버둥치다가 기어나오니 이번에는 큰 호랑이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이중인격 등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북곽선생은 정신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만 살려주기를 빌다가 머리를 들여보니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아침에 농사일을 하러 가던 농부들만 주위에 서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농부에게, 자신의 행동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 작품 읽기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육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해서 '동리과부지려'라고 정표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 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지껄이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삽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며,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저기 저 가마솥 세 발 솥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홍야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근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쭈서 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째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 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아뢰다.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든건대 유(선비, 유학)는 유(아첨하다)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너희들의 떠드는 천 소리 만 소리는 오른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¹⁾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변잡한 저자에 코 베이고, 발꿈치 찢리고, 얼굴에다 자자⁽²⁾질하고 다니는 것들

것들 다 오류를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 (주) (1) 사강: 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도리를 뜻함.
- (2) 자자: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

■ 참고

☒ 제목 ‘호질(虎叱)’의 의미

호랑이의 질책(꾸짖음). 호랑이(범)가 자신들과 인간의 행동을 비교, 대조하여 인간의 부도덕한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에게 교훈을 주려는 훈계조와 연설조의 어투를 취하고 있다.

☒ 인물

- ① 북곽 선생 : 학식 있고 고매한 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선적, 이중적, 허위적인 인물이다. 강자 앞에서 아침을 일삼는, 부정적인 사대부의 전형이다.
- ② 동리자 : 과부. 열녀로 알려져 있지만,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두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
- ③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공통점 : 위선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 ④ 다섯 아들 : 북곽 선생을 여우로 오해하는 등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이다. 허위의식을 희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 작품의 비판 대상

중심 사건	비판 대상
범이 어떤 인간을 잡아먹을지 고민함.	창귀들이 추천한 먹잇감인 의원, 무당, 선비를 비판함.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밀회함.	양반과 열녀의 위선과 가식을 비판함.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음.	인간 사회의 문제점과 선비의 이중성을 비판함.

☒ ‘범’의 구실

작가의식의 대변자이다. 지배층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온 범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위선과 부도덕한 모습을 우회적으로 폭로하고자 한 것이다. 범이 비판하는 인간의 부정적 속성 → 탐욕과 불인(不仁)

☒ 우화적, 풍자적, 해학적

동물을 의인화하여(우화적) 인간 세상을 풍자, 조롱하고 있다.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위선과 허위의식, 다섯 아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인물의 희화화된 언행을 통하여(해학적) 스스로의 위선이 폭로되고 있다.

30

까치전, 작자미상

■ 전체 줄거리

까치가 나무 끝에 높이 보금자리를 짓고 낙성연(건물이 완성됨을 축하하는 잔치)을 베풀어 즐겁게 두루미, 까마귀, 피꼬리 등 온갖 날짐승들을 초대한다. 그런데 초대를 받지 못한 비둘기가 불만을 품고 까치를 찾아가 다투다가 까치를 죽이게 된다. 이에 과부가 된 암까치가 군수에게 고발하여 낙성연에 모였던 날짐승들의 증언을 듣게 되나 비둘기가 두려워 아무도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에 마을의 원로인 두꺼비가 관가로 소환되나, 비둘기의 뇌물을 받은 두꺼비는 까치가 다투다가 저절로 떨어져 죽었다고 위증을 하여, 비둘기는 혐의가 풀려 석방된다. 까치의 장례를 치르고 삼년상을 지낸 뒤, 할미새가 키운 난춘(닭과 비슷하게 생긴 상상의 새)이 암행어사가 되어 이 사실을 바로잡아 뇌물을 먹고 거짓 증언한 두꺼비를 유배 보내고, 암까치로 하여금 살해자인 비둘기에게 보복을 하게 한다. 그 뒤 암까치는 남편의 영혼과 교접하여 1남 1녀를 얻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며 부귀를 누리고 살게된다.

■ 작품 읽기

[앞부분의 줄거리] 까치가 봄을 맞아 좋은 집을 지은 후 온갖 동물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행실이 안 좋은 비둘기만 초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비둘기가 잔칫집에 찾아가 온갖 심술을 부렸다. 이를 못 참은 까치가 비둘기와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까치가 비둘기의 발에 차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된다. 이 일을 암까치가 군수인 보라매에게 고발하니 군수가 여러 증인을 불러 사건에 관해 묻는다.

차시에 두민⁽¹⁾ 섬 동지의 이름은 두꺼비요, 자는 불륙이라. 일찍 육도삼략과 손오명서를 능통한지라. 이전 쥐나라와 싸울 적에 다람쥐의 도원수 되어 쥐나라를 파하니 다람쥐 그 공으로 그에게 동지란 품계를 주어 세상이 그를 섬 동지라 하더라. 섬 동지는 피가 많아 옳은 일도 그르게 하는 인물이더라.

마침 비둘기의 처자 동생이 심야에 찾아가 금, 비단, 주옥 등을 많이 주며 이르되,

"동지님의 넓고 깊은 도량으로 이 일을 주선하와 아무쪼록 희실⁽²⁾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지 답하여 가로되,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하였으니 염려 말라. 내 들으니 책방 구진과 수정기생 앵무가 총명하다 하오니 금은보패를 드러 좌우청축⁽³⁾ 한 후에 여차여차하자."



하고 약속을 정하고,

"각 청 두목과 제반 관속에게 뇌물 쓰고 이리이리 하면 고독 단신 암까지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즉 자연 희살이 되리라."

비둘기 크게 기뻐하여 그 말같이 하니라. 섬 동지 두민인지라 관령을 좇아 불려가니 나이가 80이라. 숨이 차서 배때기를 불룩이며, 눈을 껌벅거리고 입을 넓적이며 여쭙오되, "명정지하에 일로나 기망(4)하리이까. 본 대로 아뢰리이다." 하되, 군수 크게 기뻐하여 가까이 앉히고 물어 가로되, "너를 보니 나이 많고 짐작은 백성이라 추호도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라."

섬 동지 일어 절하고 다시 여쭙오되,

"이 늙은 것이 남의 지극히 원통한 일을 어찌 조금이나 기망하리이까. 신은 근본 주수(5)이오나 나이 많은 연고로 두민이라 하와 까치 낙성연에 참여하여 본즉 3천 우족을 다 청하였오되, 오직 비둘기를 청치 아니하였기로 괴이히 여겼삽더니 까치와 비둘기가 서로 꺼리는 마음 있삽던데 마침 비둘기 지나가는 것을 까마귀가 청하여 말석에 참여하고 이르되, '금일은 봉황대군의 국기일인데 풍악이 불가하다' 하온즉 까치 취중에 분하여 비둘기를 책하여 가로되, '남의 잔치에 왔으면 음식이나 주는 대로 먹고 갈 것이지 청치 아니한 데에 와서 묻지 아니하는 말을 하느냐' 하되 모든 객이 그 말이 옳다 하거늘 비둘기 무료하여 가로되, '저 높이 제 잔치에 왔다 하고 날더러 욕하는 것이 구태여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에 팽두이숙(6) 하였으니 제객인들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국기일에 잔치를 벌여 즐거이 지나치면 중죄를 당할 것이니 돌아감이 옳다' 하온즉 까치가 제 기분을 이기지 못하여 비둘기에 게 달려들어 견어찰 적에 수만 장 높은 가지에서 떨어져 죽으니 유아이사라 하고 비둘기가 정범이 되었나이다."

하되 군수 그 말을 듣고 동지를 돌려보낸 후,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니, 책방 구진이 뇌물을 받았는 고로 이때에 아뢰되,

"나도 염탐하온즉 비둘기의 입장이 난처한 게 분명하더이다. 성정이 조급한 까치 성급히 제 곁에 질려 죽고 못 깐 것을 애매한 비둘기로 정범을 삼으니 어찌 악하지 아니하리오."

말할 적에 앵무새 여쭙오되,

"비둘기의 처가 소녀의 사촌이오니, 복원 사또님은 하랑하옵소서."

하며, 애걸하니 군수 즉시 희살 보장 후 정범을 잡아들여 국문하니 비둘기 울며 아뢰되,

"의신이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 외가서(7)를 많이 보았으니 죽히 옥십사괘를 짐작하였으며 충효를 본받았더니 근년 정월분에 종급새 딸밤각시에게 신수를 본즉, 근년 수가 불길하와 관재구설수가 있으니 연락하는 곳에

는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정녕 알지 못하옵기로 무심히 알았삽더니 까치 낙성연에 우연히 지나오다가 이 지경을 당하오니 오는 수는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옳사오며, 일전에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한단 말이 옳사이다. 저 암까치 사리도 알지 못하고 의심을 모함하였사오니 의신의 사생은 명철하신 사또 처분에 있사오니 아뢰을 말씀 없나이다."

하거늘 군수 듣기를 마치고

"감영에 보고한 후 명을 기다렸다가 죄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리라."

하고, 죄인들을 가두어두었더니 하루는 감영에서 명이와 판결을 내리되 증인들을 방송하고 정범은 엄형 삼차에 방출하거늘 비둘기 크게 기뻐하여 춤추며 하는 말이,

"큰 죄를 면키 어렵다는 말은 허언이요, 돈만 있으면 귀신을 부릴 수도 있다는 말이 옳도다."

하며 의기양양하여 돌아가는지라. 슬프고 애닦도다. 이적에 암까치 주야로 대살(8)하기를 바라더니 희살됨을 보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나 할 수 없어 지아비 시신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슬피 통곡하더라.

(주) (1) 두민: 동네의 나이가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

(2) 희살: 장난을 하다가 잘못하여 죽음.

(3) 좌우청측: 이리저리 갖은 방법을 다 써 가며 여러 곳에 청함.

(4) 기망: 남을 속여 넘김.

(5) 주수: 땅 여덟 곁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를 바치는 일을 말아 하던 사람.

(6) 팽두이숙: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는 뜻으로 한 일이 잘되면 다른 일도 저절로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외가서: 유교의 경서와 사기 이외의 모든 서적의 총칭.

(8) 대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함.

■ 작품 해설

☒ 인물

① 보라매(군수) - 엉터리 증언만을 믿고 비둘기의 죽음을 단순 사고사(事故死)로 판결하는 군수. 안이하고 무능한 관장을 대표함.

② 비둘기 -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인물. 그의 성격은 '놀부전'의 놀부나 '옹고집전'의 옹고집과 유사함. 비둘기는 당대 향촌사회의 신흥출부이면서 수령이나 관아 주변의 인물들과 결탁하여 서민층을 수탈하던 인물을 대표함

③ 두꺼비, 구진, 앵무새 - 실세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는 지방 관아의 주변인물.

④ 까치, 할미새, 두견새, 까마귀, 따오기 - 지배층과 유력자의 횡포에 시달리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

는 조선후기 서민들을 대표함.
 ⑤ 할미새 - 처음에는 양심상 거짓 고변을 회피하려 미친
 이로 행세하다가 나중에 용기를 내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게 한 인물.

☒ [송사 모티프]

	첫 번째 송사	두 번째 송사
재판관	군수 ;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무능한 관리	어사 : 탐관오리의 횡포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
결과	비둘기의 승리 (불공정한 재판)	암까치의 승리 (공정한 재판)
재판의 의미	뇌물과 청탁으로 서민층이 핍박당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풍자함.	부정부패한 관리들의 응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됨.

31 토지, 박경리

❖ 전체 줄거리

발단	1890년대, 경남 하동군의 지주인 최 참판 덕에 집안 어른인 윤 씨 부인, 그의 아들 최치수 내외, 치수의 딸 서희가 살고 있었다. 치수가 심여 세 때 윤씨 부인은 동학군의 대장 김개주에게 겁탈당해 아들 환을 낳는데, 성장한 환이 최씨 덕의 머슴으로 들어온다.
전개	환은 치수의 아들은 병당 아씨를 사랑하게 되어 결국 두 사람은 야반도주를 하는데, 이에 분노한 치수는 지리산을 뒤희며 이들을 죽이고자 한다.
위기	재산을 노린 자들의 계약으로 치수가 죽고, 전국을 휩쓴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최 참판 덕의 어른인 윤씨 부인도 목숨을 잃어 서희만 남는다.
절정	치수의 외척 형 조준구 내외는 최씨 덕의 만석 살림을 탐내서 계약을 꾸미는데, 끊임없이 서희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결말	조준구의 압박과 일제의 탄압에 견디다 못한 서희는 뜻을 같이 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땅 북간도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다.

❖ 작품 읽기

S#. 118. 윤 씨의 방

윗목에 무릎 꿇고 앉은 준구.

준구: 제가 기별해서 집을 팔아 그간의 부채를 정리하라고
했사온 바 집을 방매하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당
분간만 아주머니께 폐를 끼치려고 내려오라고 기별했사
옵니다.

윤 씨: …….

소리: 서울 아씨 마님께서 인사드리러 드셨습니다.

삼월이가 열어 주는 문으로 흥 씨가 들어선다. 옥색 향라
치마저고리 옷고름에는 남빛 오장수술에 밀화장도. 손에는
옥가락지 끼고 검정 자주의 감 땀기를 감은 쪽에는 옥비녀에
비취로 된 나비잠 말뚝잠 어느 유족한 사대부집 부인 못지않
다. 흥 씨는 윤 씨 부인에게 절을 올린다.

윤 씨: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준구: 젊은이들이 필요.

윤 씨: 거처할 곳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준구: 네?

윤 씨: 우선 비어 있는 사랑 협실도 있고 하니 그 방을 쓰는
게 어떨까? 차차 마련토록 하고.

준구: 네, 네. 그거야 뭐.

윤 씨: 그럼 물러가서 쉬도록 하게.

S#. 119. 안채--사랑채

준구와 흥 씨가 물러나온다.

흥 씨: 아녀자가 어떻게 사랑에서 거처하겠소?

준구: 셋! 차차 마련토록 하신다 하셨잖소.

흥 씨: 별당, 그곳을 썼으면 뜰도 시원하고 연당도 있어서 좋
던데.

준구: 거긴 안 될 게요. 서희 있는 곳이라.

흥 씨: 할머님 옆에 오면 될 거 아니요? 안채도 넓어서 별유
천지 같은데.

준구: 며칠만 참으시오.

흥 씨: 안 오겠다는 사람을 천 리 길을 오게 해 놓고 …….

S#. 120. 채마밭

김 서방 덕이 채마밭을 손보고 있다. 김 서방이 온다.

김 서방: 해 안으로 짐을 옮기얏긴데.

김 서방 덕: 짐은 와요, 난리가 났소?

김 서방: 서울서 온 손님 때문에.

김 서방 덕: 짐을 챙기면 어디로 갈기요?

32

불꽃, 선우희

■ 전체 줄거리

1919년 3월 서울에서 북으로 백여 리 떨어진 P교회에서 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태극기를 나누어 주던 키 큰 젊은이가 선두에 선다. 경찰에 의해 군중들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일행의 선두에 선 젊은이는 다리에 총을 맞고 부영산 산마루 동굴 속으로 피한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여 죽는다.

아들의 시체를 인도받은 짜전가게 주인 고 영감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들을 공동묘지에 묻는다. 스무 살의 과부인 며느리는 아홉달 후 현을 낳는다. 고 영감은 며느리에게 재가를 권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몰래 교회에 나간다. 영감은 이러한 며느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열일곱 살 되던 해 여름 아버지의 묘를 찾은 현은 아버지가 예수교를 믿으면서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학교를 마친 현은 그저 평범한 농사꾼으로 지내려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일 년만에 어머니의 권유와 할아버지의 허락으로 유학을 떠난다. 일본의 승전은 대학의 강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 년 후 전세가 반전되자 하급간부의 부족을 느낀 일군 당국은 젊은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몬다. 전쟁터로 나가는 야오야기를 보고 그는 측은하게 여긴다.

고향에 돌아온 현은 어떤 범죄의식에 사로잡혀 불안한 상태가 된다. 형사가 방문하자 그는 지원서에 서명한다. 입대한 현은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탈영한다.

해방이 되자 그는 고향인 P마을로 돌아온다. 교사가 된 현은 교장과 전투적인 교사 사이에서 불미스런 사건으로 분노를 느끼고 사직한다. 전쟁이 나자 현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모든 것을 외면한다. 월북한 연호는 현을 찾아와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피력한다. 연호는 현의 태도에 증오를 느끼고 인민재판에 불리낸다. 재판 광경에 분노를 느낀 현은 총을 난사하고 도망친다. 저녁 무렵 현은 감추어둔 소련제 소총을 찾기 위해 부영산 산마루에 있는 동굴을 찾아가 간다. 어제 저녁 현이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한 연호는 고 노인을 앞장세워 부영산 산마루 동굴을 향해 올라간다. 고 노인은 마지막이라고 느끼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바둥거려 온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본다. 현을 살리려고 한 고 노인은 동굴을 향해 고향을 지르다가 연호의 총을 맞고 쓰러진다. 동시에 불을 뿜은 총에 연호가 쓰러진 것을 보고 현은 바위에 쓰러진다. 현은 목숨이 끊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은 태양의 빛을 꺼린 채 한번도 '살아본 일'이 없고 '있었을 뿐'이라고 느낀다. 현은 예기치 못한 새로운 힘이 움터올을 느

끼고 부서지는 껍질과 함께 무수한 불꽃이 튀는 상쾌함을 느낀다. 새로운 생명이 날개를 치면서 퍼득이기 시작한다.

■ 작품 읽기

S# 48. 고 영감네 안채(밤)

고 영감: 아니 애비가 정한 일인데 왜 못한다는 거여? 안 되긴 왜 안 되여? 악착같이 해 볼려구 앓고 왜 안 된다는 거여?

그 앞에 병약하게 생긴 영선.

영선: 꼭 면서기가 되란 법은 없잖아요.

고 영감: (버럭) 뭣이 어찌?

김 씨: (아들을 두둔하며) 글썄 영감두

고 영감: 아, 듣기 싫어. (영선에게) 왜 못한다는 거여? 아, 중구란 놈 자식 놈이 시험을 친다는데 넌 왜 못혀? 그놈한테 저서 될 뻔이나 혀? 그놈이 애초 내 집에서 나갈 때 어떡하고 나갔는지 알아? 내 집 물건 빼돌려다 술장사를 차렸어. 그리고 놈이 허구헌날 내 욕만 허구 다녀.

영선: 아는 소리 자꾸 하실 것 없잖아요.

고 영감: 뭣이 어찌? 잘 알아? 잘 알면 그런 놈이 나보다 잘 돼야 혀? 그놈 아들이 면서기가 돼야 혀?

영선: 그건 아버지허구, 연호 아버지허구 케케묵은 얘기 아네요? 왜 이제 와서 제가 그런 케케묵은 경쟁심의 희생자가 돼야 합니까?

고 영감: 뭣이 어찌구 그것이 어찌? 애비보구 하는 소리여? 이 망할 놈의 자식.

목침을 집어 던진다.

영선: (분연히 일어나며) 하여튼 전 면서기두 될 수 없구, 그런 희생물도 될 수 없습니다.

탕, 문 닫고 나가버린다.

고 영감: 저, 저런 불효막심한 놈.

김 씨: 글썄, 고정히시구

그때 눈이 둥그레 들어서는 현 모와 현.

고 영감: 너희들 왜 왔나

현 모: 싸우신단 소리를 듣고

고 영감: 울 것 없다. 돌아가

탕, 장지문을 닫아버린다. 어안이 병병한 현 모와 현.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 나가는데 왈각 다시 장지문 열리며



고 영감: 야, 현아.

현: 네?

못 박듯이 현을 뚫어지게 보는 고 영감

고 영감: 현이 높, 놀았다고 해서 전에 한 공부 다 까먹은 건 아니지.

S# 49. 방 안(밤)

마주앉은 현을 뚫어지듯 보다가

고 영감: 제 놈의 자식이 면서기면 넌 군수가 돼야 혀. 아니 군수보다 더 높은 판검사가 되거라.

현: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 영감: 저 녀석은 애저녁에 틀렸구. 믿는 건 너 하나밖에 없다. 중구놈 아들이 면서기면 넌 꼭 판검사가 돼야 혀. 그래 판검사 되는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본에 가야 한다 지?

현: (놀라서)

고 영감: 네 놈은 될 거여, 암, 네 놈은 될 거여.

참고

☒ '현' 의 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 도피 ■ 소극적 순응 ■ 자기중심적인 삶 ■ 할아버지 방식 	(동굴) → <입체적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 참여 ■ 적극적 투쟁 ■ 저항적, 참여 ■ 아버지 방식
--	-----------------	--

■ '동굴'의 상징성 : 동굴은 소멸과 재생의 공간이다. 현의 아버지가 죽은 죽음의 공간이며, 동시에 고 노인과 현에게 새로운 각성을 가능케 하는 재생(再生)의 공간이다.

■ '불꽃'의 상징성 : 친구인 '연호'를 향해 총을 발사했을 때, 현은 '생명에의 불꽃'을 느끼게 된다. '불꽃'은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삶, 즉 행동적인 삶의 생명력, 새로운 차원의 비약을 다짐하는 생명력을 뜻한다.

33

주생전, 권필

전체 줄거리

촌나라 주생의 이름은 회, 자는 직경, 호는 매천이다. 조상 대대로 전당 땅에서 살았으나, 아버지의 벼슬로 촉에서 산다.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어 천재로 통하고 열 여덟에 태학생이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으나,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자 깨닫기를, '인생이 무상한데 어찌 과거에 의해 공명에 매이겠는가'하고는, 작은 배를 타고 오에서 촉으로 장사를 하며 강호 유람으로 살아간다.

술에 취해 옛 고향 전당에서 노닐던 중, 옛 여자 친구 배도를 만난다. 기생이 된 배도는 아름답고 재주도 많았으며 도가 있어, 이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바뀌어 도덕에 얽매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랑을 실행한다. 육체의 아름다움에 탐닉한 주생은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도덕 군자로 지내다가 배도의 남자 관계를 의심한다.

어느 날 주생은 과부 승상 집에 갔다가 승상의 딸 선화를 본 뒤 그리워한다. 배도의 결백은 드러나나, 배도에게서 선화의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화를 정복하리라 마음먹는다. 무르익은 배도의 육체보다 선화의 어리고 탄탄한 몸에 충동을 느끼자, 배도의 소개로 승상집 아들 국영의 선생이 되어 출입하게 된다. 주생은 선화를 그리다가 선화의 시에 화답하고 선화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매일 밤 몰래 여러 담을 넘어 드나든다. 어느 날, 선화가 주생의 집에서 배도의 시를 보고는 질투가 나서 먹칠을 하고는 자기의 시를 써 넣는다. 승상 부인이 주생을 의심하여, 주생을 술 취하게 한 뒤 짐을 뒤져 선화의 시를 발견하고는 자기 딸과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주생을 다그쳐 사실을 듣는다.

이에 선화는 병이 나고, 약한 국영이 병으로 죽으며, 배도도 병들어, 선화와 결혼하고, 자신을 주생이 다니는 길가에 묻어 달라며 죽는다. 실의에 빠진 주생은 인생무상을 느끼며 배도를 묻고 정처 없이 배로 방랑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한다.

이 때, 조선에 왜적이 쳐들어와 원군으로 참전하였다가 병이 나서 누워 있던 중, 나는 송경의 역관에서 그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작품 읽기

[이전 줄거리]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자 장삿길로 나서 강호를 돌아다녔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옛 고향 땅에서 노닐던 중, 어릴 적 함께 놀았던 기생 배도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 주생은 노 승상 댁에 가는 배도를 몰래 따라 갔다가 노 승상의 딸 선화를 본다. 배도의 소개로 선화의 동생 국영의 개인 스승이 된 주생은 선화와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생각했다. 그녀가 이상히 여길까 두려워 그녀의 집으로 가서 갔다. 밤사이 선화는 기다리다 못해 주생의 방에까지 갔다. 선화는 주생이 쓰던 단장주머니를 풀어 보았다. 그녀는 배도가 지은 시 두어 폭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가 뿌듯이 치밀었고 질투

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까맣게 지워 버렸다. 그 밑에다 안아미사 일 절을 지어 푸른 비단에 써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나가 버렸다. 그 사는 다음과 같았다.

창 밖의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풍류 이뤘 요란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집안에 가득한데,
깊은 밤 고요는 수심을 자아내네.
이 외로운 밤 방탕한 임은 소식조차 없으니,
어디서 노니느라 나머지 잊었는가.
아서라 생각말자 잊으려 하나,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해,
그래도 행여나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화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원망스런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또 주머니를 끌러 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생 스스로 깨달아서 부끄러워하게 하고자 함이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주생의 학행(學行)을 칭찬했다. 아들 글 가르치는 데 수고를 한다고 치사했다. 그리고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로 하여금 주생에게 잔을 권하게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배도는 혼자 앉았으니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주생의 주머니를 끌러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사가 먹으로 지워진 것을 보았다. 마음은 자못 언짢았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밑에 '안아미사'를 보니 선화가 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 사를 소매 속에 감춘 다음 주머니를 전처럼 싸매 두고 앉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짐작하게 물었다.

"낭군님은 이곳에서 무작정 머물러 있을 건가요? 도대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생은, / "국영이가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탓이요." / 하고 대답했다.

"그래요? 처의 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 불가분 마음을 다 해야겠지요."

주생은 얼굴을 붉히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하고 물었다. 배도는 얼마동안 말이 없었다. 그럴수록 주생은 당황하여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방바닥만 응시했다. 배도는 그 사를 꺼내어 주생의 면전에 던지며 말했다.

"유장상중이요, 찬혈상규구료.⁽¹⁾ 이 어찌 군자가 할 짓입니까. 난 지금 곤장 들어가 부인에게 말씀 올리렵니다."

배도는 몸을 일으켰다. 주생은 황망히 그녀를 붙잡아 앉히

고 사실대로 고백을 했다.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빌었다.
"선화는 나와 백년해로를 굳게 언약한 사인데, 어찌 죽을 곳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오."

배도는 마지못해 뜻을 돌리고는,
"그렇다면 곧 저와 같이 돌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낭군님이 저와의 언약을 어긴 바에야 제가 무어라고 맹세를 지킬 것이오리까." / 하고 말했다.

주생은 허는 수 없었다. 부인에게만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 배도는 선화와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다시는 주생을 선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평이 끓어올라서였다.

주생은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했다. 몸은 나날이 여위어 갔다. 끝내는 병을 빙자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스무 날이 지나갔다. 돌연 국영이 병으로 죽었다는 전갈이 왔다. 주생은 제물을 갖춰 영구 앞에 나아가 전을 올렸다. / 선화 역시 주생과 이별한 후 상사의 병이 깊어 기거동작도 남의 손을 빌려야 했다. 문득 주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났다. 담장 소복을 하고 주렴 안에 혼자 서 있었다.

주생은 전을 끝냈다. 멀리 선화가 보였다. 눈을 찡긍해 정을 표시했다. 머리를 숙이고 서성거리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배도마저 병들어 눕고 말았다.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했다.

"저는 봉비하체⁽²⁾로서 그늘에만 의지하여 살아오다가 아름다운 청춘이 다 가기도 전에 시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저는 낭군님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비단옷이며 좋은 관현악기가 소용이 없고, 전날의 소원도 다 그만입니다. 다만 원하옵는 바는, 제가 죽은 후에 낭군님은 선화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죽은 뒤 시신은 낭군님이 왕래하시는 길가에 묻어 주신다면 죽더라도 산 것같이 여기고,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배도는 말을 마치고 기절했다.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나 주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랑, 주랑이여! 부디 부디 몸조심 하시어요. 몸조심 하……."

이러기를 몇 번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주생은 배도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그는 그녀의 유언대로 시체를 호산의 길가에다 고이 묻어 주었다.

(주) (1) 유장상중이요, 찬혈상규구료.: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만나고, 담에 구멍을 뚫어서 서로 보는구료.

(2) 봉비하체: 여자가 젊어서는 예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나, 늙으면 미워서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비유함.



■ 작품 해설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인 권필이 지은 한문 전기(傳奇) 소설. 촉주(蜀州)에 사는 주생(周生)은 누차 과거에 실패하자 벼슬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재물을 팔아 강호를 유람한다. 전당에 이르자 기생 배도(俳桃)를 알게 되어 백년약을 맺고 배도가 드나드는 노승상(盧丞相) 집에 갔다가 탁월한 학식을 인정받아 승상의 아들 국영(國英)을 가르치게 된다. 또 주생은 승상의 딸 선화(仙花)와도 사랑을 맺게 되나 배도에게 발각되어 헤어지고 배도는 세상을 떠난다. 장씨의 중매로 선화와 정혼했으나 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종군, 두 사람은 인연을 맺지 못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과감하게 과거 시험을 청산하고 천한 직업으로 매도되던 17세기에 시작된 조선 후기적 특징을 찾아 볼 수 있고, 몰락한 양반층으로서 현실 세계의 모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 있으며, 배도는 주생과의 사랑이 자신의 신분 상승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선화는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내적 욕구 실현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인 점에서는 '이생규장전'의 최랑과 같은 인물이다.

우리 고소설에 흔히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이 작품은 삼각 연애를 중심으로 남성의 탐욕과 이기적인 사유, 여성의 선천적인 애욕과 질투심을 그린 것이라 평가되는데, 작자인 권필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불우하게 살다간 자신의 운명을 주인공의 낭만적인 생애로 재생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모든 인물들이 불우한 상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거대한 자연과 운명 앞에 인간이 그 왜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슬픔을 서정시로 표현, 작품 전체를 우수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의 서술자는 남성 중심의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배도의 비극적 삶보다는 선화와 혼사를 이루지 못한 주생의 비극적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춘향전같은 소설이 여주인공의 삶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민중적 서술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34

사수, 전광용

■ 전체 줄거리

'나는 병원에서 눈을 뜬다. B와의 마지막 대결을 회상하며 어찌면 지금도 자신이 B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B와의 첫 대결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꿈'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내는 "엠" 소리를 세다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서로의 뺨을 때리다가 '꿈' 선생님에 대한 반감이 B에게 옮겨지며 서로 손에 힘을 더하게 되고, '나는 B의 손에 맞아 코피를 흘렸다.

같은 중학 한 반이었던 '나'와 B는 실력 경쟁에서도 치열했다. 또, '나'와 B는 모두 '경희'를 좋아했다. 졸업반이 되던 해 B는 '나'의 책갈피에서 '경희'의 편지를 발견했다.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다. 그러나 B는 양보보다는 대결을 택했다. 상대편을 나무 옆에 세워 놓고 귀 높이 되는 나무통 복판을 공기총으로 정확하게 맞춰 이기는 쪽이 '경희'를 차지하기로 하고 대결을 벌였다. '나는 헛방을 쏘았지만 그의 총알은 내 컷바퀴에 상처를 내면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그 후 '나'와 '경희'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약혼한 바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6·25 동란을 계기로 모두 흩어지고 '나'가 새로 전속된 부대에서 B를 다시 만났다. B는 '경희'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휴가 중 외출에서 돌아오다가 B의 아내가 된 '경희'를 우연히 만난다. 결국은 B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에 대한 패배감을 맛보게 되었다.

B가 이적(利敵)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후 '나는 '경희'를 찾아갔다. '나는' 그간 B와의 대결은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불가피한 '운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B의 구명(救命) 운동을 한다. 그러나 허사였고 오히려 사형 집행 사수로 지명된다. "쏘아"라는 구령이 끝나기 바쁘게 일제히 '뽕' 소리가 났지만,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B가 다른 네 명의 사수가 쏜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 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 작품 읽기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삼십 년의 지나는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중략>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게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

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餘燼)*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몇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뚫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다.

안전 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중 컷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호두껍질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없이 한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온다. B와 경희와 곰과 공기총과 건잡을 수 없는 작잡한 감정이다.

“겨누어, 총!”

구령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B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슴쇠구멍으로 내어다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 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人指)의 안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쓰지 않아도 다른 네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의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 “쏘아!”

구령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뽕’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종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통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가는가 봐요.” /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가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 여신(餘燼) : 1 타고 남은 불기운. 2 나중까지 남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패잔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나’가 B의 사형을 집행하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지난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대결 의식을 그리고 있다.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B의 대립 관계가 전개된다. 이와 같은 대립 관계를 통해서 인간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대결 의식과 그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곰 선생이 서로 뺨 때리기를 시킨 이유는 합심으로 곰 선생을 놀렸지만, 그런 합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무모한 경쟁심을 부추긴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가 사격을 망설인 이유는 무방비 상태의 친구를 죽인다는 갈등, 친구에게 총구를 겨누는 상황에 대한 반발감,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망설임 때문이었으나, 결국, 방아쇠를 당기고 또다시 B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에 빠진다.

인간이 겪는 무수한 대립 관계는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대립을 부추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미묘한 인간 관계를 통하여 비극의 본질과 그 책임의 궁극적 요인인 외부적 상황을 탐구해 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 주제 : 인간 사이에 운명적으로 존재하는 대결 의식

☒ 인물

① 나 - 어린 시절부터 친구 ‘B’와 끝없는 대결의 상황을 맞이하는 인물. 그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지금까지의 대결에서 늘 ‘B’에게 져 왔다는 패배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② B - ‘나’의 친구이자 영원한 적수. ‘나’보다 우위에 있는 인물로 ‘나’가 사랑했던 경희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한다.

③ 경희 - ‘나’의 연인. 어릴 적에 ‘나’가 끊임없이 의식하던 인물이었으며 이후에도 ‘나’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B’의 아내가 됨으로써 ‘나’에게 ‘B’에 대한 패배감을 안겨 준다.

☒ ‘나’와 ‘B’의 운명적 대결 : 외부적 요인에 의한 대립 상황이다.

- ① 1번째 대결 : 곰 선생의 수업 시간에 서로 뺨 때리기에 ‘나’가 코피 터지고 끝남. ‘나’의 패배감
- ② 2번째 대결 : 경희와의 삼각 관계경희는 B의 아내가 됨.
- ③ 3번째 대결 : 6·25(사형대) 망설이다가 쏘.



35

옥루몽, 남영로

■ 전체 줄거리

- ① 1권: 천상에서 달을 감상하던 문창성군과 다섯 선녀는 관세음보살의 발원으로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옥루봉 아래에서 태어난 양창곡은 16세에 과거길에 오르는데, 도중에 만난 항주 기녀 강남홍과 운우지정을 나눈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점점 엇갈려, 양창곡은 과거에 합격한 후 남쪽의 전쟁터로 나아가고 강남홍은 소주자사의 접탈을 피해 강물에 투신한다.
- ② 2권: 남쪽 이민족(남만)과 전투를 벌이던 양창곡과 홍흔탈(강남홍)은 일지련을 사로잡고 결국 남만왕을 굴복시킨다. 그러나 근방의 홍도국이 침략해 이들은 발길을 돌려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계속되는 전투의 가시밭길에서 이들의 운명은 생사를 넘나들고, 홍흔탈은 스승 백운도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헤쳐간다.
- ③ 3권: 연왕에 오른 양창곡은 노균 등의 간신 무리에 맞서지만 천자는 간신들의 음모에 빠져 사리분별을 못 하고 양창곡을 유배보낸다. 간신에게 휘말려 황성을 비운 채 불로장생을 기원하던 천자는 북쪽 홍노족의 침략으로 황성을 빼앗기고 만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동초와 마달 등 용맹한 장수들이 나서서 방어하기 시작한다.
- ④ 4권: 벽성선을 모해하다 실패하여 궁벽한 시골로 귀양간 위부인과 황소저는 죄를 뉘우쳐 개과전신하고, 양창곡과 다섯 여인은 화목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갈 때가 있다는 걸 깨달은 양창곡은 표문을 올려 연왕직을 사임하고, 근교에 터를 잡고 여러 여인들과 풍류를 노닌다.
- ⑤ 5권: 양창곡에게서 태어난 다섯 아들이 성장하여 한 명씩 과거에 급제하고 증원을 호령한다. 문무에 능통한 맏아들 양장성은 남만을 평정하고, 후덕한 양경성은 강서 지역의 민심을 진정시킨다. 호탕한 풍류남아 양기성은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청무를 드나들고, 가무와 자색이 뛰어난 설중매에게 접근한다. 이렇게 해서, 연왕 양창곡은 두 부인인 윤부인, 황부인과, 세 첩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과 함께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마침내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 작품 읽기

그는 4백 명의 군사를 선발하여 열두 대의 수차를 가지고 오계동 물가로 갔다. 지형을 살펴서 배치를 하니 열두 방위였으며, 각각의 수차마다 33명의 군사를 배치하니 33천(天)이다. 일제히 물을 끌어서 붓자 마치 큰 고래가 모든 시냇물을 마셔 버리는 듯, 은하수가 하늘 끝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

하였다. 우레 같은 물소리와 안개 같은 물방울이 허공을 요란케 하면서 비가 오듯 쏟아 부었다.

양창곡은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몇 가지 조치를 해 둔 상태였다. 뇌천풍은 5천 기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계동 북문 밖에 매복하도록 하고, 동초와 마달은 2천 기를 이끌고 오계동 서문 밖에 매복하도록 하였으며, 소유경은 1천 기를 이끌고 수군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양창곡과 홍흔탈은 대군을 이끌고 오계동 남문 밖에 진을 치고 골짜기 안의 동정을 살피며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탈해와 소보살은 오계동 안으로 들어가 모든 장군과 병졸을 점검했다. 만여 명 장졸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이 반이 넘는다. 탈해가 칼을 잡고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명나라 도둑과 원수는 젓비린내 나는 어린애들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실로 항우가 등나무 덩굴에 걸려서 넘어진 격이다. 과인이 내일 혼자 출전하여 자웅을 겨루겠다.”

그러자 소보살이 말했다.

“명나라 원수는 천고에 다시없는 영웅입니다. 땅에서 전투를 해서는 대적할 수 없으니, 내일은 마땅히 수군을 징발하여 승부를 겨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의 말이 정말 절묘하구려. 그러나 수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자고성에 있으니 어찌 하면 좋겠소?”

“대룡동의 수군이 만여 명이나 되고, 대룡강의 전함이 백여 척입니다. 어찌 명나라 군사를 걱정하십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오계동 안이 요란해지고 모든 장졸들이 바빠 아뢰었다.

“대왕은 빨리 피신소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24회 남방의 도적을 평정하여 양창곡은 군대를 돌리고, 도관에 들어간 홍흔탈은 아름다운 이를 놀래주다

탈해가 급한 전갈을 받고 크게 놀라 소보살과 함께 지휘대에 올라가 바라보니, 어디서 흘러오는지 모르는 물이 공중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하늘이 터지고 바다가 기울어진 듯 순식간에 오계동이 물바다가 되었다. 탈해가 깜짝 놀라 말했다.

“명나라 병사들이 수차로 물을 쏟아 붓는 게 틀림없다. 골짜기 안에 물길이 없는데 물의 형세가 이러하니, 시간이 지난다면 몸을 벗어날 길도 없겠구나. 이때를 틈타서 급히 북문으로 탈출하는 것이 좋겠다.”

소보살이 말했다.

“안 됩니다. 명나라 병사들이 물을 부으면서 반드시 곳곳에 매복을 해서 앞길을 막았을 겁니다. 여기서 큰길을 버리고 성을 넘어서 각각 살아날 궁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탈해도 그렇게 여기고 즉시 소보살과 지휘대를 내려갔다.

그들은 말과 군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칼만 한 자루씩 들고 저녁 어스름한 빛을 타고 성을 넘어 걸어서 달아났다. 오랑캐 장수 몇 명만이 칼을 들고 뒤를 따랐다. 그렇게 이들은 대룡동으로 들어갔다.

한편 양창곡은 흥혼탈과 함께 남문을 지키면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물이 남문으로 넘치면서 골짜기 안이 바다처럼 되었다. 흥혼탈이 양창곡에게 아뢰었다.

“골짜기 안이 이와 같은데 탈해가 끝내 아무런 동정을 보이지 않으니, 필시 일찌감치 다른 길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들은 수차를 깨어 버리고 성 위로 올라갔다. 골짜기 안을 굽어보니 망망한 큰 바다에 닻이며 개며 말들이 오리 머리처럼 뗏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었다. 흥혼탈이 탄식하며 말했다.

“옛날 제갈공명이 등갑군을 불에 태우고 목숨이 줄었다고 탄식했다더니, 오늘 흥혼탈이 오계동을 물에 잠그면서 생명을 저렇게 죽이다니, 이 어찌 복이 없어지지 않았겠는가.”

■ 작품 해설

이 작품의 64회의 회장체(回章體)로 된 소설로서, <구운몽>분량의 3배가 되는 대장편소설이다. 조선 후기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소설 가운데의 하나로써, 구성이 치밀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표현 문장이 빼어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성격이 아주 개성 있게 부조되어 있어서, 고전소설 가운데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영웅적 주인공 양창곡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군담이 곁들여 지고 있는 이른바 영웅소설, 군담소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남홍에 초점을 맞추어본다면, 여걸소설 혹은 여장군소설에도 속한다. 그동안 원전의 작자 및 표기문자에 관하여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작자 문제는 남영로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원전이 한글로 먼저 지어졌는가, 한문으로 먼저 지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일신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여 부패 타락한 생활을 서슴지 않는 통치자들의 행태와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작가는 양창곡, 강남홍과 갈등 관계에 있는 간신들의 죄상을 낱말이 드러내 보여 주는 방법으로 통치자들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드러내어 이를 비판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파 싸움과 통치자 상호간의 세력 다툼에 대한 비판은 더욱 날카롭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비겁하게 뒷걸음을 치고 일단 싸움이 끝난 후에는 당파를 형성하여 서로 끊임없는 정치적 싸움을 벌이는 조정의 벼슬아치들과 옹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고 간신들의 농간에 놀아나며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군왕으로 인하여 나라의 정사가 극도로 문란해진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36

맹순사, 채만식

■ 전체 줄거리

8.15 해방 바로 뒤에 순사직을 그만 둔 맹순사는 순사 생활 팔 년 동안 아내에게 뉴퐁치마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한 지 지리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다. 열일곱에 서른 살 난 맹순사에게 후취로 시집온 그의 아내 서분은 신경질인 여자로 틈만 나면 과거를 들먹이며 맹순사를 타박한다. 맹순사는 아내에게 뉴퐁치마는 사주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 동안 깨끗하게 살아왔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맹순사는 다시 경찰에 지원한다. 그는 경력자로 인정 받아 경찰로 채용되고 어느 파출소에 배속을 받게 된다. 해당 파출소에 도착해 보니 그를 맞이한 사람은 과거 이웃에 살던 노마라는 청년이었다. 노마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술집을 드나들면서 주먹패의 풀마니 생활을 했는데 주먹질 때문에 파출소에 끌려간 그를 맹순사사 몇 번이나 풀려나오게 하기도 했었다. 맹순사는 속으로 ‘저런 것이 다 순사가 되니 요즘 순사들이 수모를 받아도 싸지’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맹순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전출 간 노마 대신에 온 새로운 동료 때문이다. 이 사람은 몇 년 전 맹순사가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유치장 간수로 있었을 때 살인 강도죄로 붙잡혀 들어왔던 강봉세였다. 그리고 강봉세는 맹순사에게 복수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후에 헐떡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맹순사는 강봉세의 칼에 배가 찢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직서를 썼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순사라는 게 살인강도와 다를 게 없다고 중얼거린다.

■ 작품 읽기

맹 순사(孟巡査)가 동양의 대현이라는 맹자님과 어떤 혈통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나라 명재상 맹고불이 맹정승과는 제 몇 대손이나 되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상고하여 보지 못하였다.

“칼자루 십 년에, 집안 여편네 뉴퐁 치마 하나 못 해 준 주변에, 헐 말이 무슨 헐 말이우?”

증왕의 순사 아낙에 세 가지 특색이 있으니, 가로되 언변 좋은 것, 가로되 건방진 것, 가로되 옷 호사 잘 하는 것이라고. 실로 이 계집의 허영으로 인하여, 순사들이 얼마나 더 악착히 ‘순사질’ 을 하였음이고. 맹 순사의 아낙 서분에도 미상불 언변 좋고, 똑똑하고(즉, 객관적으로 바꾸어 치면 건방지고) 하기로는 좀처럼 남에게 질 생각이 없으나, 오직 옷 호사 한 가지만은 어엿이 고개를 들 자신이 외곽 없었다. 천하에 순사의 아낙 되어 옷 호사를 못 하다니, 유감이 깊을지 때, 자못 동정스런 노릇이었다.



그러나 서분이가 순사의 아낙으로 옷 호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결단코 서분이 스스로의 무능한 소치거나 과실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소위 칼자루 십 년에 - 실상은 팔 년이었다. - 팔 년 순사에, 집안 여편네 뉴똥 치마 한 벌도 해 주지 못할 지경으로, 남편 땡 순사란 위인이 지지리 주변 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15 바로 후에 칼을 풀어 놓았고, 그래서 시방은 순사 적이라는 것이 이미 옛말같이 된 터이었지만, 그러니 놓친 찬스를 두고두고, 심하여는 임종하는 자리까지 내내 미련 겨워하기를 마지아니하는 것이 항용 아녀자의 넓지 못한 속..... 해서 오늘 아침만 하여도 하찮은 일로 시초가 되어, 쫓쫓대고 쟁쟁거리고 하던 끝에 필경은 나오는 것이 그 뉴똥 치마의 푸념이요 주변 없음의 공박이요 하였던 것이었다.

“거, 옷은 그대지 많이씩 장만해 무얼 하는구? 입구 벗을 거면 고만 아냐? 난 참, 여자들 그러는 속 모르겠드라.” / 부드럽고 조용한 말씨다. 이와 정반대로 서분이의 음성은 높고 가시 같다.

“입구 벗을 옷이 어딴어? 날 언제 옷 해 줬길래, 옷 많이 씌어나는 건구?”

“아-니, 해필 입자가 옷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말야.”

“넉살두 좋으이. 날 같은 입이 팡우리 구멍이라두 헐 말 없겠네. 바보, 빈충이, 천치.”

“못난 남편 싫어?”

“졸 게 어딴어?” /

“그럼, 갈릴까?”

“제 - 말 줘.”

“히!” /

“아주 신물이 나요.”

“그러든지, 순살 도루 땡기든지.”

“집안 여편네 옷 한 가지 어엿이 못 채려 내놓는 사내가 무슨 사내값에 가는고.”

“그러니깐 도루 순사 땡겨서, 뉴똥 치마 해 주구, 감장 낙타 두루마기두 해 주구 양단 저구리두 해 주구, 백금 시계두 사 주구.....”

“그따위 주변에 순살 두 번 아냐 골백번 땡겨 보지. 뉴똥 치마커녕 거지 치마 한 감 얻어 들이나.”

“허허허허,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고나, 이런 노래 들어 보지 못했어?”

“정신차려요, 왜 - 니. 인전 돈두 몇 푼 남은 거 없구, 무얼 가지구 살림은 해 나가랴 탕구? 널 모리른 쌀, 남구 들어와야 해요.” / “나두 걱정이야말로 그 걱정이로세.”

그러면서 땡 순사는 식후에 피워 물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는 출입할 채비를 차리려고 푸시시 일어선다.

흐렸던 하늘이 부실부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서분이는 올에 스물다섯, 새파란 젊은 색시였다. 열입곱에, 서른 살 난 땡 순사의 후취로 시집을 왔었다. 땡순사는 그 전해에 상처를 하였었다.

서분이는 그의 호릿하고 가냘픈 외형대로 성질도 날카로웠다. 이른바 신경질이요, 요망스런 부류의 여자였다.

성질은 그러한데다 겹하여 나이 많은 남편의 향차 후취요 하니, 응석을 삼아서도 남편한테 포달을 떨고, 볶아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하염직은 한 노릇이었다. 땡 순사는 그것을 잘 받아 주고, 땡 순사는 나이 서른여덟이었다. 열세 살이나 어린 아낙이, 딸자식 같아서 더욱 귀여웠다. 자식이고 계집이고 간에 귀여우면, 흥이 흥이 아니요, 흥도 이쁜 법이었다.

땡 순사는 내일 모레가 사십이다. 사람이 나이 사십이 되 노라면, 속이 대개는 썩을 대로 썩고, 모나던 성질이 둥그러지고 하여, 감정 생활이 누그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나이가 시키는 외에 땡 순사는 타고난 천품이 분시도 유한 인물이었다. 웬만한 일에는 성 같은 것이 나지를 아니하였다. 남에게다 나의 의견이나 고집을 굳이 세우려 들 줄을 몰랐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지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시비와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 일이 드물었다. 좋게 말하면 원만이요, 사실대로 말하면 반편스럽고 지조 없고 무능이요 하였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해방 직후에 미온적이었던 친일파 청산 문제와 허술한 행정 체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땡순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해방된 뒤 잠시 숨죽여 지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맞아가 했더니 곧 원직 복귀되어 군정 아래에서 경찰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경찰 동료로 그를 맞이하는 인물이란 것이 옛날 자신이 세 살던 주인댁의 행랑 아들 노마였다. 노마는 일자무식에 우미관을 드나들면서 주먹패의 톨마니로 뼈가 굵은 청년인데, 이제 버젓이 땡순사의 동료 경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땡순사를 더욱 기막히게 한 것은 전출 간 노마 대신 새로 온 인물이었다. 이새 동료는 땡순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살인강도요 무기 징역수인 강봉세로, 그는 해방이 되자 정치범과 사상범이 석방되는 와중에 함께 석방이 되어, 역설적이게도 경찰에 투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순사 출신인 ‘땡순사’가 직접적인 풍자와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친일 경찰을 원대 복귀시킬 뿐 아니라, 해방 전에 우미관 깡패를 하던 일자무식꾼에서부터, 살인강도로 무기 징역을 살고 있던 흉악범까지 버젓이 경찰관 행세를 하게 만드는 혼탁한 현실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37

동행, 전상국

■ 작품 해설

낮선 두 사람이 동행이 되어 강원도 산골, 눈 덮인 밤 길을 가면서 추천 근화동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키 큰 사내, 그리고 키 작은 사내 '억구'이다. 둘은 어릴 적의 일을 말하게 된다. 키 큰 사내의 회고담은 토끼 사냥에 얽힌 이야기이다. 새끼 토끼를 잡고 어미 토끼는 놓쳤는데, 어미 토끼의 '살기 차고 공포에 질린' 모성을 확인했던 것이다. 소년은 생물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해부되었다가 술 안주가 될 토끼 새끼를 구하려 했지만, 도덕적 규범 때문에 생물 선생님 집 앞은 담을 넘지 못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억구'가 유년의 일을 들려준다. 아홉 살 때였다. '억구'는 자신을 멸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득수'의 장갑 낀 손을 물어뜯어 살점이 드러나게 했고, 그 벌로 계모한테 붙들려 광 속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추위와 어둠의 공포를 강박 관념처럼 갖고 살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동네의 천더기로 따돌림당하던 그는 6.25때 빨갱이로 부터 감투를 얻어 쓰고 '득수'를 죽였다. 국군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억구'의 아버지는 '득수' 동생 '득철'에게 죽임을 당하고, '억구'는 도망을 쳤다. 끈덕지게 버둥거리며 서른 여섯 해를 살아왔다. 그리고 부친을 죽인 '득철'을 죽이고 부친의 무덤에서 죽으려고 구둣치 고개를 오르고 있는 것이다. '억구'는 부친의 무덤이 있는 산에 이르자 스스로 '득철'을 죽인 사실을 실토했다. 그를 놓칠까 경계하던 키 큰 사내 -그는 형사인데 -는 새끼 토끼를 구하기 위해 넘으려다 무서워 넘지 못한 담을 회상하며, 이제야 넘을 결심을 하게 된다. 어린 시절 헛된 도덕 관념 때문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지 못했던 심약함을 넘어서는 것이다. 형사는 그를 체포하지 않는다. 권총이나 수갑 대신 열여덟 개피 남은 담배갑을 건네며 하루에 한 개피씩만 피우라고 웃어 보인다. '억구'는 그 사내의 신분도 모른 채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린다.

■ 작품 읽기

“난 기어코 득술 죽이고야 만 겁니다. 거 왜, 사변 때 말입니다. 파리 새끼 적이듯 사람 막 적일 때 말이지. 놈을 죽일 때 보니 그놈은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차마 그걸 벗겨 버릴 순 없었는데 울화통은 더 치밀더군요. 여하튼 난 득술 죽이고야 말았다 - 이겁니다. 허나 그뿐인 줄 아슈? 육친을, 즉 제 애비까지 잡아먹은 게 바로 나요. 이 죄역구라는 인간입니다.”

결국 이용당했더라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동네의 천더기로 따돌림 당하던 자기를 빨갱이들이 용하게 이용했더라는 것이다.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니 하는 감투를 떠억 씌워서. 그

래 결국 자기 부친까지 참사를 당하게 하고 만 것이었다. 늙은 부친과 함께 한방에서 자고 있었다. 계모는 이미 억구가 철들기 시작할 무렵 달아나 버렸고, 그래 부친은 늘 억구에게 장가가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와야리에선 힘든 일일 수밖에.

억구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 소변보러 밖에 나갔던 부친이 돌아 모여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밖에 눈이 펍 내렸다고, 올해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은 분명히 풍년일 게라고- 하던 부친이 이불을 뒤집어쓰며 푸욱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그 깊은 한숨 소리에 억구는 그만 잠을 뺏기고 만 것이다. 자기 때문에 마을도 한번 변변히 못 나가고 (그렇게 이 억구란 놈이 악종으로 날뛰었던 겁니다.) 방 안에서만 늘 풀이 죽어 있어야만 했던 부친의 한숨 소리에 자꾸 헛기침만 해 대던 억구였다. 그 밤, 부친은 죽창에 찔려 죽고, 어쩌다 자긴 이렇게 여기 살아 있다고 억구는 또 고개 오르기를 멈추며 조용히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우리 부자만 몰랐지. 동네에서들은 모두 국군이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걸 알고들 있었던 거죠. 결국 자기들 손으로 우리 부잘 처치해 버리자는 생각들이었겠죠, 억구란 놈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네다.”

그들이 고개 오르기를 잠시 쉬는 동안도 산속의 소나무 위에 앉았던 눈은 제 무게가 겨운지 찝르르 쏟아져 내리곤 했다.

“그날 밤, 난 집을 빠져 나와 뒷산으로 치뛰며 아버님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득수 동생놈이 잡았다! 하고 소릴 치더군요. 잡았다, 하고 말입네다. 그래두 이놈은 살겠다고 정갱이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맨발로 달아나구 있었죠.” / 그는 카악 가래침을 돋워 입안에 꼰거리며, “그러니까 그때 와야릴 떠나구 이번이 처음 가는 겁네다. 십 년이 넘는 오늘에야 아버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꽤- 가래침을 뱉어 버리고 다시 고개를 허우적허우적 오르기 시작했다. 큰 키의 사내는 이제 눈길을 걸기에 지칠 대로 지친 듯 헉헉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러나 억구의 이야기에 흠뻑 끌리고 있는 투였다. 드디어 우중충 흐렸던 하늘이 눈을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 버리며,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리고 못 견딜 추억 같은 걸 뿌리면서 눈이 내렸다. <중략>

“아까두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거냈죠.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질 잡았겠다? 그래 별초를 매년 해 왔다가? 아 고마워, 고마워……. 하고 말입네다. 헌데 그 득철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썬, 나두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철일 죽였는지…….”

여직 들어 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루 저 산에 가친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의 눈을 쳐 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두 눈이 펴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루 봐선 내년두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폭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ন길을 몇 걸음 건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잠, 바루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 돌아감 거기가 바로 와야됩니다. 가서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우.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폭 몸을 녹이서,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ন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짓가랑이가 서걱 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길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으로 따라가며, / “노-형,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가 깔려 있는 듯싶었다. 언 바짓가랑이를 데려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오버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 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젓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넌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레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아 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담을 불러 놓군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억구가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

지 못한 채.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선, 그리고 거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별 양반도……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행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강퍽한 양복 윗주머니에 빠져죽하니 2흡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 작품 해설

눈 쌓인 강원도 외아리 마을까지 신분을 감춘 두 사내가 동행한다. 서로의 과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한 사내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끝내는 사건의 정점인 '고개'에 도달하여 두 사내는 감정의 교류와 함께 헤어진다.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의 단순 구조 속에서 6·25의 상흔(傷痕)이 깊게 드러난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로형(旅路型) 소설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범인과 형사가 서로의 신분을 감춘 채 동행인이 되어 눈길을 간다. 진행되는 사건은 너무나 단순하다. 범인과 동행하던 형사는 범인의 과거를 알게 되지만 그를 놓아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단순한 사건의 전개가 입체감을 얻게 되는 것은 길을 가면서 삽입되는 두 사람의 과거담(過去談) 때문이다. 길은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그 중앙에 '구둑치 고개'가 위치한다. 길을 찾아 이 고개를 향해 오르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상승되어 가다가 내리막길을 가는 중에는 대립과 갈등이 서서히 풀리면서 결말에 이른다. 이것은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뜻하는 것으로 구성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립적 인물의 설정이 구성의 치밀함을 더한다. 한 사람은 쫓기는 자요, 또 한 사람은 쫓는 자이다. 전자는 키가 작고, 좁고 험한 길을 나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차림새에 걸음걸이마저 허전한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후자는 키가 크고, 방한(防寒)에도 빈틈없이 준비된 차림에 걸음걸이도 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대조적이다. 앞 뒤 가리지 않는 저돌성과 잔인성을 가진 사람은 쫓기는 범인이고, 조심성과 내성적 성격, 이성(異性)과 감성(感性)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형사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인물을 같은 길 위에 놓음으로써 위기와 긴장감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구성상 안정감을 얻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범인 '억구'의 유년 시절의 일(광속의 추위와 공포를 겪은 일)과 형사가 경험했던 소년 시절의 일(토끼 사냥과 새끼 토끼 구출을 위해 담을 넘으려다 넘지 못했던 일)도 중요한 복선적(伏線的) 기능을 지닌다. '억구'의 것은 그의 성격, 인생의 질(質)까지도 암시하면서 살인의 발단으로

작용하고, 형사의 과거사는 성격을 드러내 주는 동시에 결말 처리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소설은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6·25와 닿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이 6·25가 남긴 정신적 외상(外傷)을 그린 것이라면, 이 소설은 더욱 깊숙하게 그 상처를 드러내 주고 있다. 주인공 '억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인을 하고 보복을 당하고, 그 후 다시 보복 살인을 하고 36년 동안 쫓겨 다니는, 6·25의 최대 피해자인 것이다.

■ 참고

☒ 여로형 소설

범인과 형사가 동행하는 길의 중간에 '구둑치 고개'가 위치한다. 이 고개를 오르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상승되다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갈등이 풀리고 결말에 이른다.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통해 구성의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다.

☒ 토끼 이야기와 결말 관계

'억구'가 '득칠'이를 죽인 사실을 실토했을 때, 억구를 체포해야 할지에 대해 갈등하던 형사가 어린 시절 사회 도덕이 무서워 담을 넘지 못해 토끼를 살리지 못했던 자신의 안타까운 과거를 회상하고, 비로소 '담'을 넘게 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억구를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로서의 직분을 벗어나 휴머니티를 선택한 것이다. '담'은 도덕적 규범이자 현실적 제약을 뜻한다.

☒ 배경 '눈'의 역할

두 사내는 '눈'을 통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억구는 '눈덩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어 득수를 물어뜯은 기억이 있다. 또한 '발목까지 빠져드는 눈길'은 억구의 삶의 역정을 상징한다. 작품의 결말 부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 버리며,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리고 못 견딜 추억 같은 걸 뿌리면서 눈이 내렸다.'는 형사가 범인을 놓아 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졌다는 아내를 떼어놓고 눈이 날리는 거리를 지나 밤차로 K시로 향한다. 버스 안에서 양주를 마시며 나는 회상에 잠긴다.

친일파였던 할아버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던 아버지, 그리고 서자이기 때문에 갖은 수모를 당하며 집안 하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숙부로 구성된 가정은, 해방이 되자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떨어진 위세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가 되고 만다. 더욱이 아버지는 공비가 되어 좌익 계열에 가담했기에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만다. 이러한 가정을 구한 사람은 군대에 자원 입대한 숙부였다.

어느 날 공비가 출현하여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먼 주재소가 불탔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어머니를 치욕스럽게 학대했다. 마침 휴가를 나온 숙부가 어머니를 구해 주었다. 그 후, 숙부는 상이용사가 되어 제대를 했다. 날마다 심해져 가는 몸을 살리기 위해 가슴속에 박혀 있는 파편을 꺼내기로 하지만 그 수술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로 인해서 밝고 낙천적이던 숙부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고 만다. 주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숙부는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회상에서 깨어나 K시에 도착한 나는 어느 식당에서 국밥을 먹은 후 상가로 향한다.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한 상가가 나를 맞이하였고 숙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숙모로부터 전해 듣는다. 경찰이 와 사체를 검시하고 염하는 과정에서, 숙부의 가슴에 난 흉터를 보고 나는 악몽 같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고인은 수술이 실패한 후, 이런 저런 사건으로 인해 네 번이나 감옥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몇 해 후,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열을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버지의 기일(忌日)을 가르쳐 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짐작하게 되고 또 그것이 숙부의 가슴에 남은 상처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한다. '나'는 고인의 죽음과 화장으로,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화장이 끝난 후 숙부의 가슴에 깊숙히 박혀 있던 파편 조각을 손에 쥔 채 나는 심한 자괴에 빠진다.

38

파편, 이동하

■ 전체 줄거리

어느 겨울 저녁, '나'에게 전보가 날아든다. 그 전보에는 숙부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나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숙부는 젊은 시절에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말년에는 침구사의 일에 흥미를 붙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숙부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이틀 간의 휴가를 신청한 뒤, 갈

■ 작품 읽기

두말없이 나는 앞장섰다. 서둘러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렵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은 것은 해가 싹뿔한 때였다. 내 어머니의 봉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석 앞에다 2홉들이 소주 한 병과 쥐치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오



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자네 아버님 제살랑 오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즐거운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 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얽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닝가? 빈 껌테기만 남아서 녀마매로 굴러대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 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늑늑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채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골잘 끙끙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한 해가 가까워 오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었다. 구닥다리 엠원 소총을 몰래 꺼내 들고 사냥을 나갔던 그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것이다. 공판정에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표적물을 착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단호히 대답했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쯤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임디. 낯선 얼굴이었습디.”

“낯선 사람을 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럼 다시 묻겠는데 자기 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산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니 생각했습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됐습디. 가슴쇠 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디.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의(殺意)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졌습디.”

“최초의 일 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두 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아쇠를 당긴 기억도 또 총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디.”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둬된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오선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 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 들였지만 결혼 두 해 뒤에 그는 다시 재범을 했고, 재출감 1년도 못 되어 삼범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강도 미수, 세 번째는 강도 상해였다. 전과가 거듭될수록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동기가 단순해져 갔고 그에 비례하여 죄질도 저열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기이한 행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까닭은 그가 결코 경제적인 동기에서 범법을 거듭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가계라고는 해도 그에게는 상속받은 유산이 있었을 뿐더러 그나마 경영하는 일에도 그는 도무지 뜻이 없어 했던 것이다.

사자는 이제 말이 없다.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 버린 것이다. 생애의 태반이 그러하듯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남겨 둔 채 그는 영영 함구해 버린 것이다. 또 한번 관 뚜경을 열어젖힌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죽음, 그의 생애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의 침묵을 보다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고, 따라서 이 지긋지긋한 장례가 빨리 끝나 주기만을 열렬히 소망했다.

고인을 다시 대한 것은 일몰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유해를 받아 안았을 때 상주인 중수가 보인 반응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재간이 없다. 그의 표정은 차라리 백치의 그것에 가까웠다고나 해야 할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더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지에 쌓인 한 줌의 재도, 그것을 받아든 중수의 표정도 아니었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아주 작고 단단한 파편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쇠골(碎骨) 과정에서 발견했다면서 작업장 인부가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 장난스럽게 올려놓았을 때 나는

흡사 쇠공이 같은 것으로 정문(頂門)*을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고인의 오른쪽 가슴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 있던 바로 그 파편 조각이었다. 외과 수술로도 적출해 낼 수 없었던 그 작고 단단한 쇠조각은 암처럼 체내에 뿌리를 내린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인의 생명을 지배해 왔음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둠이 서서히 묻어 오는 하늘에 눈발은 여전히 얽게 날리고 있었다. 매운 바람 속을 묵묵히 걸어 내려오면서 나는 문득 심한 자괴(自愧)를 의식했다.

* 정문(頂門) : 정수리.

■ 핵심 정리

☒ 등장 인물

* 숙부 : 서자로 태어나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지만 낙천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 6.25 전쟁 중 국군으로 입대하여 가슴에 상처를 입은 채 상이 제대를 한 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슴속에 '파편'과 같은 한으로 가지고, 기이한 범 죄를 저지르고 자학하며 살다가 죽는다.

* 나 : 작품의 서술자로, 전쟁 속에서 비극적인 유년 시절을 보낸 인물이다. 친일 조부의 몰락, 좌익 활동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받은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후 이런 기억을 뿌리째 뽑아 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숙부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자괴를 느낀다.

* 아내 : '나'와는 달리 가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

* 어머니 : 남편의 좌익활동으로 모진 세파를 겪는 비극적인 인물

☒ 구성

① 발단 : 사촌 중수로부터 '삼촌'의 부고를 전보로 전해 받은 나

② 전개 : 아내의 동행을 만류하고 기어코 혼자서 기차를 타고 고향 마을로 내려감.

③ 위기 : 광복 후의 암울했던 가족사를 회상함.

④ 절정 : 화장터에서 삼촌의 몸에서 나온 '파편' 하나를 발견함.

⑤ 결말 : 돌아가신 삼촌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보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낌.

☒ 주제 : 전쟁으로 인한 내면적 상처와 그 극복의 문제

■ 작품 해설

1982년에 발표된 이동하의 단편 소설 '파편(破片)'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룩해 낸 분단 문학 중에서 수작(秀作)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숙부의 사망을 알리는 한 장의 전보로부터 시작된다. 그 전보에는 간명하게 숙부의 죽음을 알려 주고 있다.

'나'는 그 전보를 받고 오랫동안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나'의 행동은 숙부와 관계되어 있는 과거의 끈질긴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의식적인 행위와 연관이 된다. '나'가 벗어나고자 하는 끔찍한 기억은 바로 광복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과 관계되어 있다. 친일파였던 조부는 광복이 되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더욱이 아버지의 좌익 활동으로 인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 그 풍비박산의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은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비록 몰락의 과정에서 집을 구원한 사람이 숙부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부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데, 그것은 과거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잊고자 하는 나의 의식적인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간직한 '나'가 과거와 결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기에, 숙부의 죽음을 확인하려 가는 길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확인하려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작품의 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가 숙부의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숙부를 폐쇄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가 전쟁 때 입은 외상 때문이지만, 그것은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다. 숙부는 그 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처를 전쟁터에서 입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장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숙부'가 아버지의 기일을 '나'에게 알려 주는 것으로 암시된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숙부가 간직했던 '홍곽'안의 '파편'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삼촌이 지금까지 꺼안고 산 이물질인 동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의 상처를 암시한다. 삼촌은 그 분단의 상처를 온몸으로 감싸면서 그것을 극복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의 기억을 끊임없이 은폐하려 한 것이다. 이런 '나'가 숙부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엄연히 살아 있는 분단의 현실에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39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박완서

■ 작품 해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나'는 그간의 생활을 되돌아 본다. '나'는 그동안 분주함으로 위장된 허구의 삶으로 가득찬 서울 생활에서 마음의 피로를 느낀다. 동창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변했다는 친구들의 말에 '나'는 부끄러움과 같은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과거의 경험, 즉 한국 전쟁 당시 피란 간 마을이 기지촌으로 변하면서 어머니가 생계 유지를 위해 '나'에게 몸을 팔기를 강요했던 상황과 두 번씩이나 이혼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동창들과 함께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경희네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의 가식적인 언행 속에서 속물적인 근성을 발견하고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 일본어 학원을 다니던 '나'는 일본인 관광객이 모인 서울 한복판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관광 안내원의 말을 우연히 엿듣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다시 느끼게 된다. '나'는 모처럼 돌아온 부끄러움의 감정이 자신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작품 읽기

정말 보고 싶어 죽겠다는 듯이 안달을 떠는 전화가 예서 제서 걸려 오더니, 몇몇이 모여서 나를 만나기로 약속이 된 모양이다. 저희들 멋대로 정한 시일과 장소가 나에게 통고됐다. 나는 옛 동창을 만나는 일이 좀 뜨악하고 좀 귀찮았지만, 만나기가 아주 싫을 것도 없어서 그냥 쫓고 까부는 대로 당하고 있을밖에 없었다.

나는 보고 싶다는 느낌, 특히 여자 친구끼리의 보고 싶다는 느낌을 암만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되레 남편이 적극적인이었다.

“거 참 잘됐구려. 오래간만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와요. 사람은 그저 사람을 많이 알아 봐야 되는 거야. 다 씨떡을 떼가 있다구. 있구말구. 줄이나 뺨이 별건가. 그렇구 그런 거지. 당신 동창 중에라도 재벌이나 고관 사모님 없으란 법 없잖아. 하다못해 세리(稅吏) 마누라라도 있어 봐. 그게 어디게.”

공연히 흥분해서 눈을 번쩍이고 샷대질까지 했다. 그리곤 엄숙하게 덧붙였다.

“어떡허든 우리도 한밀천 잡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나는 울컥 징그러운 생각이 났다. 그리곤 아아, 아아, 징그럽다고 생각했다. 내가 남편을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나쁜 징조였다. 더 나쁜 것은 숨가쁘게 아아,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첫 남편과 헤어질 때도 그랬었고,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질 때도 그랬었다. 남들이 알기로는, 내가 첫 남편과 헤어진 것은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난 것으로, 두 번째 남

편과 헤어진 것은 그까짓 일부중사 못 한 팔자 두 번 고치나 세 번 고치나지 하는 팔자 사나운 현 계집이면 으레 그렇게 하는 뻘한 소행쯤으로 되어 있을 터였다. 내가 겪은 아아 징그럽다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나는 이번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려나 싶어 다시 콤팩트를 꺼내 얼굴을 비춰 본다. 또 한번 시집을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확인으로 스스로를 겁주기 위해서다. 눈가의 뚜렷한 늙음보다 차라리 더 짙은 온몸의 피로, 그냥저냥 안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새삼 간절하다.

<중략>

나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비교적 소상히 그날의 얘기를 했다. 만나 본 동창 중 경희 같은 소위 고위층의 부인이 있다는 소리에 남편은 점괘를 맞힌 박수무당처럼 징그럽게 좋아했다.

“거 보라구 내가 뭐랬나. 당신 친구 중에라고 고관의 부인 없으란 법 있겠느냐고 내가 안 그랬어. 잘됐어. 잘됐어. 뭐? 일본어 학원? 다녀야지. 암 다녀야구말구. 그런 여자하고 같이 다닐 기횡 놓치면 안 되지. 그게 다 처세술이라구. 교제술이란 게 다 그렇구 그런 거지 별건가.”

그리고 나선 개화기의 우국지사처럼 자못 엄숙하고 침통해지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구. 배워야 산다구. 배워서 남 주나.”

하고 악을 썼다.

경희의 권유에서라기보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곧 일어 학원엘 나가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만약 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자립의 밑천을 삼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요샌 관광 안내원이 괜찮은 직업이라 하지 않나.

일어 학원에서 경희를 만나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는 중급반이요 나는 초급반인 탓도 있었고, 그녀는 별로 열심스러운 학생이 못 되어서 결석이 잦았다. 간혹 만나더라도 암만해도 강사를 집으로 초빙해야 할까보다느니, 아무한테도 재가 아무게 부인이라 발설을 말라느니, 이를테면 자기 신분에 신경을 쓰는 소리나 해서 거리감만 점점 느끼게 했다.

내 일본말은 늘지 않았다. 일제 때 배운 거라 대강은 알아 들으니 쉬 익힐 법도 한데 강사인 일녀의 발음에 따라 ‘오 하요’ 니 ‘사요나라’ 니 소리가 도무지 돼 나오지를 않았다.

일어 학원이 있는 종로 일대에는 일어 학원 말고도 학원이 무수히 많았다. 서울 아이들은 보통 학교를 두 군데 이상이나 다니나 보다. 영수 학원, 대입 학원, 고입 학원, 고시 학원, 예비고사반, 연합고사반, 모의고사반, 종합반, 정통 영어반, 공통 수학반, 서울대반, 연고대반, 이대반……. 이 무수한 학원으로 무거운 책가방을 든 학생들이 물려 들어가고 쏟아져 나오고 했다. 자식을 길러 본 경험이 없는 나는 이들이 은근히 탐나기도 했지만 이들의 반항적인 몸짓과 곧 허물어

질 듯한 피곤을 이해할 수 없어 겁도 났다.

어느 날 어디로 가는 길인지 일본인 관광객이 한 떼, 여자 안내원의 뒤를 따라 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어느 촌구석에서 왔는지 야박스럽고, 경망스럽고, 교활하고, 게다가 촌티까지 더덕더덕 나는 일본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안내원 여자는 너무 멋쟁이라 개발에 주석 편자처럼 민망해 보였다. 그녀는 멋쟁이일 뿐 아니라 경제 제일주의의 나라의 외화 획득의 역군답게 다부지고 발랄하고 궁지에 차 보였다. 마침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관광객과 아무렇게나 뒤섞였다. 그러자 이 안내원 여자는 관광객들 사이를 바느질하듯 부비며 소곤소곤 속삭였다.

“아노, 미나사마, 고치라 아타리카라 스리니 고주이 나사 이마세(저 여러분, 이 근처부터 소매치기에 주의하십시오).”

처음엔 나는 왜 내가 그 말뜻을 알아들었을까 하고 무척 무안하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차츰 몸이 더워지면서 어떤 느낌이 왔다. 아아,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그 느낌은 고통스럽게 왔다. 전신이 마비됐던 환자가 어떤 신비한 자극에 의해 감각이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필시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환희롭게. 나는 내 부끄러움의 통증을 감수했고, 자랑을 느꼈다.

나는 마치 내 내부에 불이 켜진 듯이 온몸이 붉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내 주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출렁이고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론 모자라 ××학원, ○○학관, △△학원 등에서 별의별 지식을 다 배웠을 거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쳤을 거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깃발을 펴러덜덜덜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라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아아,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 작품 해설

중년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물질적 가치에 전도된 형식적 근대화의 부정적 이면을 날카롭게 꼬집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성이 상실되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사의 내력 및 결혼 생활에 대한 고백적 서술과 동창들의 피상적 삶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작품의 전개, 화자가 우연히 일본인 관광객을 안내하던 여자의 속삭임을 듣는 것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맞기에 이른다.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그 여자의 말로 인해 화자는 부끄러움의

감각을 불현 듯 느끼게 되는 바,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에 경도된 채 형식적인 근대화에 치중하는 현실적 상황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공백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의미한다. 마지막 장면은 세속적인 출세욕을 상징하는 각종 학원 간판의 밀림 속에서 돌연 부끄러움을 가르치자고 외치는 화자의 반어적 태도가 나타난다. 형식적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상실된 삶의 진정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계몽적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굳이 깃발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날려야 할 것 같다’는 표현에서는 그 절실함이 느껴진다.

이 작품의 제목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이다. 여기에서 ‘부끄러움’의 감정은 화자가 속물적인 세태 속에서 현실적으로 변모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순수한 감정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긴장감의 표현이며, 주체와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전후의 폐허적 상황 속에서 출발한 급격한 근대화의 흐름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한 채, 물질적인 개발에 치우치는 과도기적 불균형 상태를 드러낸다. 그와 같은 피상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성은 상실되고, 물질적 가치만이 유일한 삶의 지표로 작용하는 전도된 가치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러한 세계는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지만, ‘부끄러움’도 없이 추구되는 세속적 출세의 욕망과 금전적 가치 위에 구축된 허구적 삶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추악한 현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은 ‘전도된 가치의 질서 속에서 삶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

☒ ‘부끄러움’의 의미

6. 25 전쟁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부터 ‘나’는 부끄러움을 잃어간다. 여기서 부끄러움의 감정은, ‘나’가 세속적인 삶에 휩쓸리기 이전에 지녔던 순수한 감수성, 즉 삶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던 때에는 삶에 대한 긴장감을 지닌 채 주체와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후 정신적 가치를 외면한 채 물질적인 개발에만 치우치는 근대화 과정을 겪는 동안, 삶의 진정성이 상실되고 물질적 가치를 삶의 지표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나’ 역시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만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세속적이고 물질적 가치 위에 세워진 허구적 현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에, ‘나’는 모처럼 찾은 부끄러움의 감정이 나만의 것이 아닌 사회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40

타인의 방, 최인호

■ 전체 줄거리

'그'는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다가 이웃 사람들과 언쟁을 벌인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선다. 실내는 어두웠다. 아내는 친절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채 외출하고 없었다.

그는 심한 고독을 느낀다. 아내로부터 더운 음식으로 대접받기를 기대했지만 집 안에는 음식조차 못 먹게 되어 있었다. 신문을 보려 했으나 신문도 없었다. 시계는 일주일 전의 날짜로 죽어 있었다. 날짜를 맞추려다 시계를 내동댕이친다. 욕실에서 목욕을 한다. 몸을 정성 들여 닦는다. 그 후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 길게 눕는다.

그러다가 화장대에 놓인 아내의 쪽지를 보다가 문득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원래 그는 내일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오늘 전보를 받았다고 써 놓았다. 아마 아내는 그가 출장 간 날부터 집을 비웠을 지도 모른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는 사납게 주위의 가구를 노려본다. 가구들이 일제히 움직이다가 도로 제 자리에 가라앉는다. 그는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이미 어제의 물건들이 아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콩초를 찾아 담배를 피운다. 안심이 되지 않아 집 안 여기저기를 살펴본다. 갑자기 책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안의 가구와 온갖 기물들이 날뛰기 시작한다. 그는 도망가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다.

다음 다음날 오후, 한 여자가 아파트에 돌아온다. 여자는 '새로운 물건'이 하나 있음을 발견한다. 여자는 며칠 동안 '그 물건을 돌보다가 이내 싫증이 나 방을 떠난다. 그녀는 전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화장대 위에 남긴다.

■ 작품 읽기

“사실은 말입니다.”

그는 방귀를 쩌다 들킨 사람처럼 무안해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그는 익숙하게 찰랑이는 대여섯 개의 열쇠 중에서 아파트 열쇠를 손의 감촉만으로 잡아 들었다.

“전 이 집의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여인이 의심스럽게 그를 노려보면서 높은 음을 발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구요?”

“그런데요.”

그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아니 뭐 의심나는 것이라두 있습니까?”

“여보시오.”

아무래도 사내가 확인을 해야 마음놓겠다는 듯 다가왔다. 사내는 키가 굉장히 큰 거인이었으므로 그는 사내를 올려다 보았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거의 삼 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

“아니, 뭐라고요?”

그는 뒤어오를 듯한 분노 속에서 신음 소리를 발했다.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을 당신 스스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나두 이 방에서 삼 년을 살아왔소. 그런데두 당신 얼굴은 오늘 처음 보오.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소.”

그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쨌든.”

사내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시오.”

“그건 나두 마찬가지라니깐.”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리면서 방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들이밀었다. 방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정 못 믿겠으면 따라 들어오시오. 증거를 뵈 주겠소.”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캄캄하였다.

“여보!”

그는 구두를 벗고, 스위치를 찾으려고 벽을 더듬거리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방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기랄. 그는 너무 피로해서 통통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간신히 벽면의 스위치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힘껏 올려붙였다. 접촉이 나쁜 형광등이 서너 번 채집병 속의 곤충처럼 꺾벼거리다가는 켜졌다. 불은 너무 갑자기 들어온 기분이어서, 그는 잠시 동안 낮은 곳에 들어선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아직도 문 밖에서 사내가 의심스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조금 어처구니없어서 방문을 랭 닫아 버렸다. 그때 그는 화장대 거울 아래 무슨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는 힘들여 경대 앞까지 가서 그 종이를 주워 들었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보가 왔는데, 친절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피로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가신 것을 잘 말씀드리겠어요. 편히 쉬세요. 밥상은 부엌에 차려 뒀어요. 당신의 아내가

그는 울분에 차서 한숨을 쉬면서, 발소리를 쿵쿵 내면서, 한없이 잠겨 들어가는 피로를 느끼면서,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는 일관 작업을 매우 천천히 계속하

이프처럼 굽혀 바지를 벗고 그것을 아주 화를 내면서 옷장 속에 걸었다. 그때 그는 거울 속에 주름살을 잔뜩 그린 늙수그레한 남자를 발견했고, 그는 공연히 거울 속의 자기를 향해 맹렬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제기랄. 겨우 돌아왔어. 제기랄. 그런데두 아무도 없더니.

그는 심한 고독을 느꼈다. 그는 별거벗은 채, 스템 기운이 새어 나갈 틈이 없었으므로 후텁지근한 거실

을, 잠시 철책에 갇힌 짐승처럼 신음을 해 가면서 거닐었다. 가구들은 며칠 전하고 같았으며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트랜지스터는 켜지 않고 나간 탓으로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껐다. 아내의 옷이 침실에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고, 구멍난 스타킹이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중략>

다음다음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고도 생각했었지만, 놀란 가슴을 누르며 온 방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새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안심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밧하긴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었다. 하지만 나중엔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방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메모지를 찢어 달필로 다음과 같이 써서 화장대 위에 놓았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보가 왔는데,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피로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가신 것을 잘 말씀드리겠어요. 편히 쉬세요. 밥상은 부엌에 차려 놨어요. 당신의 아내가

■ 작품 해설

1971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최인호의 미학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대인의 소외 의식과 그로 인한 정신 병리적 현상을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인의 소외 의식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찾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 제기의 원인은 바로 1960~1970년대의 급격한 근대화 및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물적(物的) 척도에 의해 가늠되는, 이른바 사물화와 그에 따른 파편화(破片化) 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특정한 사건의 전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대신, 방 안에서의 ‘그’의 행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에 대한 묘사가 무미건조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물들에 대한 묘사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가 자신을 그러한 사물들과 같이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물들에 대한 묘사는 바로 현대 사회의 사물화 된 인간에 대한 묘사가 되고, 이러한 묘사가 건조하고 무의미할수록 인간의 존재 가치 역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 참고

☒ 초현실주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경향으로, 근대 문명이 가져온 합리주의와 자연주의에 반대하고 비합리적 인식과 잠재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여 기성 미학과 도덕에 관계없이 표현의 혁신을 꾀하고자 한 문예 운동을 가리킨다. 1924년 A. 부르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그 명칭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 사조는 일반적으로 기괴한 주제나 꿈, 환영(幻影), 무의식의 시각 등을 이용하여 낯익은 사물들을 비논리적 관계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현실의 관습적 이해가 가진 피상성을 폭로하려 자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1930년대, 이상이나 삼사 문학파의 작품들을 초현실주의로 보고 있으나, 이는 의식의 흐름 기법과 같은 초현실주의적 기법이 일부 차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

별, 황순원

■ 전체 줄거리

의붓어머니에게 자란 아홉 살 난 사내 아이는 어느 날, 동네 과수 할머니로부터 자기의 못생긴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사내 아이의 생각 속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어머니였다. 단지 죽은 어머니와 자기가 누이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어머니가 그렇게 못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내 아이는 누이의 애정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사내 아이는 누이에 대한 혐오감과 반발이 심해져서 누이의 호의를 번번이 뿌리치는 한편, 누이에게 공격적이 된다. 누이가 만들어 준 형겅 각시 인형을 버린다든지, 당나귀에서 떨어진 아이에게 애정을 보이는 누이의 호의를 거부한다든지, 누이가 건네준 옥수수를 버린다든지 하는 등 누이의 애정을 번번이 물리치는 것이다. 또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는 누이에게 다가가 이복동생의 영덩이를 꼬집어 곤경에 빠뜨리기도 한다.

어느 날 소년은 예쁜 소녀를 알게 되지만 곧 실망을 느낀



다. 소년의 누이에 대한 반발은 누이가 시집갈 때까지 계속 된다. 그러나 시집간 누이의 부고를 받게 된 후에는 누이를 추억하게 된다. 누이가 만들어 주었으나 파묻어 버린 형겔 인형을 찾으려 하지만, 이미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과거 누이가 사내 아이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내 아이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으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다. 사내 아이가 열네 살 때였다. 그러나 끝내 사내 아이는 왼쪽 눈에 내려온 누이의 별을 몰아 내면서 오른쪽 눈에 내려온 어머니 별과의 동일시를 거부하고 만다.

■ 작품 읽기

아홉 살 난 아이의 눈은 별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 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속으로 찬찬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오마니는 이 누이의 얼굴과 같았을까. 그러자 제법 어른처럼 갓난 이복동생을 업고 있던 열한 살잡이* 누이는 전에 없이 별나게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복 남동생에게 마치 어머니다운 애정이 끓어오르거나 한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입 새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누이에게서 돌아간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우리 오마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게스레 무척 이뻐으리라. 그냥 남동생이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누이에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무서운 상을 해 보였다. 미운 누이의 얼굴이 놀라 한층 푹 꺼지려 할 만큼. 생각다 못해 종내 아이는 누이가 꼭 어머니 같다고 한 동네 과수 노파를 찾아 자기 집에서 왼편 쪽으로 마주 난 골목 막다른 집으로 갔다. 마침 노파는 새로 지은 저고리 동정에 인두질을 하고 있었다. 늘 남에게 샅바느질을 시켜 말쑥한 옷만 입고 다녀 동네에서 이름난 과수 노파가 제 손으로 인두질을 하다니 웬일일까. 그러나 아이를 보자 과수 노파는 아이보다도 더 의아스러운 듯한 눈치를 하면서 인두를 화로에 쫓는다. 아이는 곧 노파에게, 아니 우리 오마니하구 우리 뉘하구 같이 생겼단 말은 거짓말이디요? 했다.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나 남의 일에는 흥미 없다는 얼굴로, 왜 닮았디,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구 뉘 입하구 다르게 생기디 않았이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 노파는 이번에는 화로에 쫓았던 인두를 뽑아 자기 입술 가까이 갖다 대어 보고 나서, 반만큼 세운 왼쪽 무릎 치마에 문대고는 일감을 잡으며 그저, 그리고 보문 다른 것 같기두 하군, 했다. 아이는 인두질하는 과수 노파의 손 가까이로 다가서며 퍼뜩 과수 노파의 손이 나이보다는 젊고 고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마니 닳뎀은 우리 뉘 닳뎀처럼 검디 앓고 이뻐디요? 했다. 과수 노파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어둡다는 듯이 갑자기 인두 든 손으로 아이를

물러나라고 손짓하고 나서 한결같이 흥없이, 그래엔, 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여 과수 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달음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미워셔야 될 말이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안뜰에 들어서자 누이가 안 보임을 다행으로 여기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가 란도셀* 속에서 산수책을 꺼내다가 그 속에 인형을 발견하고 주춤 손을 거두었다. 누이가 비단 색형겔을 모아 만들어 준 낭자를 뜬 예쁜 각시 인형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란도셀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과목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도셀 속에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 있었다.

아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의 여태까지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 나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곧 아이는 인형을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걸 품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그들이 내린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끝으로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 품속의 인형을 묻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 할 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 골목을 다 나온 곳에서 달구지를 벗은 당나귀가 아이의 아랫도리를 찼다. 아이는 굴러 나가동그라졌다. 분하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 채로 해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럼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생겼단 말인가? 뉘처럼 생겼단 말인가? 하고 당나귀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이의, 뉘처럼 생겼단 말인가? 하는 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다가 별안간 뒤에서 누이의, 대런! 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아이는 그만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아이는 다리 하나를 약간 뻗 채로 나자빠져 있었다. 누이가 분주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위에서 굽어보며 붙들여 일으키려는 것을 무지스럽게 손으로 뿌리치고는 혼자 벌떡 일어나, 뻗 다리를 예사롭게 놀려 집으로 돌아갔다.

<중략>

누이가 시집 간 지 또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 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 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하는 곳을 손으로 폈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 힘껏 파냈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 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도로 골목

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매어 있는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체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나처럼, 우리 널 왜 죽엔! 왜 죽엔! 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뛸수록 아이의, 왜 죽엔! 왜 죽엔! 하는 지름 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은 거로 착각하면서, 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돌아났다가 눈물 권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속의 별을 내몰았다.

* 잡이 : 나이를 세는 '살' 따위에 붙어 '그 나이의 아이' 를 나타냄. (예) 세 살~.

* 란도셀 :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학용품 따위를 놓고 양어깨에 메는, 네모난 배낭 형태의 가방.

■ 작품 해설

누이의 동생에 대한 섬세한 마음 씀씀이도 그렇거니와 그에 대한 아우의 거부 심리가 섬세하게 그려진 이 작품은 한편의 서정시와 동화를 떠올리게 한다. 소위 '성장소설'의 하나로 판단되는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이라는 경험을 겪은 후에야 '모성고착(Motherfixation)'으로부터 벗어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게 된 사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즉 '성장과 찾음'이라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9개의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사내 아이의 누이에 대한 미움은 사실은 미움이 아니라 죽은 어미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역설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불필요한 대화의 생략과 암시를 통해 아이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 심리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지극히 평범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아동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나, 작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자기 조성'과 '성숙 이전의 인간의 삶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별'은 죽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한 소년의 마음의 방향을 그린 작품이다. 어렸을 때 여윈 어머니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소년은 현실 속에서 어머니의 영상을 찾으려는 강한 집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다. 그러다가 미움의 대상이었던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누이의 참사랑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의식의

의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누이를 미워하고 누이가 만들어 준 인형을 땅에 묻어 버리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결핍된 모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악의적인 보상 심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누이가 시집을 가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죽은 뒤, 아이는 누이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 누이도 이제 하나의 별로 새겨지게 된다. 아이는 애써 누이의 죽음을 부정하려 하지만 이미 누이는 또 하나의 별이 되고 말았다. 그 별은 아이의 영원한 그리움이고, 또 그를 성숙하게 하는 아름다운 상처이기도 하다. 결국, 아이에게는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별이 생긴 셈이다.

'별'은 주인공 아이가 이웃집 과수 노파로부터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누이의 사랑을 어머니의 모성으로 느끼고 누이가 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수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상적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이의 못생긴 누이가 죽은 어머니를 닮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 속의 누이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의미 있는 반복;pattern)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비슷한 사건들의 나열인 것 같기도 하지만 누이가 연애 사건을 일으켜 죽은 어머니를 욕되게 했다고 생각하여 강변에 데리고 간 부분에서 아이의 누이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이 부분에서는 아이가 누이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절정(climax)은 갈등이 가장 고조된 순간이며, 그 결말이 불가피해진 순간이다. 소설의 전체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순간이 마지막 결말 부분이다. 결말 부분은 주인공의 운명의 전환을 포함한다. '전환'은 대부분 '발견'에 의존한다. 발견이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어떤 것을 주인공이 깨닫는 것을 말한다. 아이는 시집간 누이의 부고를 접해 듣고는 마침내 누이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아이에게는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아이는 누이가 어머니와 같을 수는 없다며 어머니의 별과 다른 누이의 별을 가슴속에 새김으로써 이 이야기는 결말을 맺는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상향이고, 현실에서 얼굴은 못생겼지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누이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 참고

☒ 성장 소설

성장 소설(initiation story)의 initiation 이란 말은 '신참(新參)'이라는 말이다. 원래 인류학의 개념은 유년이나 사춘기에서 성인 또는 성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는 으레 주인공에게 시련과 고통, 금기, 고립화가 수반된다. 이런 인류학의 용어를 소설에 차용함으로써 어리거나 사춘기의 소년이 어떤 경험의 충격을 겪으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한다.



42

토끼전, 작자미상

전체 줄거리

용왕이 병이 나자 도사가 나타나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용왕은 수궁의 대신을 모아놓고 육지에 나갈 사자를 고르는데 서로 다투기만 할 뿐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때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토끼화상을 가지고 육지에 이른 자라는 동물들의 모임에서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하면서 지상의 어려움을 말한다.

이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이른다. 간을 내라는 용왕 앞에서 속은 것을 안 토끼는 피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크게 토끼를 환대하면서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어떻게 간을 내놓고 다니느냐고 자라에게 욕을 하면서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어이없는 자라는 육지에서 죽거나 빈손으로 수궁으로 돌아간다.

작품 읽기

이때 용왕이 세 사람을 보내고 즉시 만조(滿朝)를 모아 하교(下敎)하여 가라사대,

“과인의 병에는 아무러한 영약(靈藥)이 다 소용 없으되, 오직 토끼의 생간이 신효하다 하니, 뉘 능히 인간에 나가 토끼를 사로잡아 올꼬?”

문득 한 대장이 출반(出班)하여 아뢰니,

“신이 비록 재조 없사오나, 한번 인간에 나가 토끼를 사로잡아 오리이다.”

하거늘, 모다 보니 머리는 두루주머니 같고 꼬리는 여덟 갈래로 갈라진 수천 년 묵은 문어라. 왕이 대희(大喜)하여 가로되,

“경의 용맹은 과인이 아는 바라. 경은 충성을 다하여 급히 인간에 나가 토끼를 사로잡아 오면 그 공을 크게 갚으리라.”

하고 장차 문성 장군(文星將軍)을 봉하려 할 즈음에, 문득 한 장수가 뛰어 내달으며 크게 외어 문어를 꾸짖어 가로되,

“문어야, 네 아무리 기골(氣骨)이 장대하고 위풍(威風)이 약간 있다 하나, 언변(言辯)이 없고 의사 부족하니 네 무슨 공을 이루겠다 하며, 또한 인간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영락없이 잡아다가 요리조리 오러내어, 국화 송이, 매화 송이 형형색색 아로새겨, 혼인 잔치며 환갑 잔치에 큰상의 어물 접시 웃기*로 긴요하고, 재자가인(才子佳人) 놀음

상과 남서한량(南西閑良) 술안주에 구하노니 네 고기라. 무섭고 두렵지 아니하나? 나는 세상에 나아가면 칠종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이 신출귀몰(神出鬼沒)한 피로 토끼를 사로잡아 오기 여반장(如反掌)이라.”

하거늘, 모다 보니 수천 년 묵은 자라니, 별호(別號)는 별주부(龍主簿)라. 문어, 자라의 말을 듣고 분기충천(憤氣衝天)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다리를 엉버티고 검붉은 대가리를 설설 흔들면서, 벽력같이 소리를 질러 꾸짖어 가로되,

“요망한 별주부야, 네 내 말을 들어라. 강보(綱褸)에 싸인 아희 감히 어른을 능멸하니, 이는 이른바 범 모르는 하룻강아지рода. 네 죄를 의논하면 태산(泰山)이 오히려 가배 얹고 하해(河海) 진실로 열을지라. 또 네 모양을 볼작시면 괴괴망측(怪怪罔測) 가소롭다. 사면이 넓적하여 나무 접시 모양이라. 저대도록 적은 속에 무슨 의사 들었으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두 손으로 움켜다가 끓는 물에 솟구쳐 끓여내니 자라탕이 별미로다. 세가자제(勢家子弟) 즐기니, 네 무삼 수로 살아올꼬?”

자라 가로되,

“나는 우물 안 개구리다. 오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도다. 자서(子胥)의 겸인지용(兼人之勇)도 검광(劍光)에 죽어 있고, 초패왕(楚霸王)의 기개세(氣蓋世)도 해하성(垓下城)에 패하였나니, 우직한 네 용맹이 내 지혜를 당할쏘냐? 나의 재조 들어 보라. 만경창파(萬頃蒼波) 깊은 물에 청천에 구름 뜨듯, 광풍에 낙엽 뜨듯, 기영등실 떠올라서 사족을 바투 끼고 긴 목을 뒤움치고 넓죽이 었디면은 등글등글 수박 같고 편편넓적 솔두꺼라. 나무 베는 초동(樵童)이며 고기 잡는 어옹(漁翁)들이 무엇인지 몰라보니 장구하기 태산이요, 평안하기 반석(盤石)이라. 남 모르게 변화무궁 육지에 당도하여 토끼를 만나 보면 잡을 묘계(妙計) 신통하다. 광무군(廣武君) 이좌거(李左車)의 초패왕을 유인하던 수단으로 간사한 저 토끼를 잡아올 이 나뿐이라. 네 어이 나의 지묘묘략(智謀妙略)을 따를쏘냐?”

문어, 그 말을 들으니 언즉시야(言則是也)라. 하릴없이 뒤통수를 툭툭 치며 흔들흔들 물러나니, 용왕이 별주부의 손을 잡고 술을 부어 권하여 가로되,

“경의 지모와 언변은 진실로 놀랍도다. 경은 충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어 수이 돌아오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대대로 유전하리라.”

자라, 다시 아뢰되,

“소신은 용궁에 있삽고 토끼는 산중에 있사온즉 그 형상을 알 길이 없사온지라, 바라옵건대 성상(聖上)은 화공(畫工)을 폐초(牌招)하사, 토끼의 형상을 그리어 주옵소서.”

용왕이 옳이 여겨 도화서에 하교하여 토끼 화상(畫像)을 그려 들이라 하니, 여러 화공이 둘러앉아 토끼 화상을 그리

는데, 각기 한 가지씩 맡아 그리되, 천하 명산승지(名山勝地) 간에 경개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저귌 제 소래 들던 귀 그리고, 동지 설달 설한풍(雪寒風)에 방풍(防風)하던 털 그리고, 만학천봉(萬壑千峰) 구름 속에 펄펄 뛰던 발 그리니, 두 눈은 도리도리, 앞다리는 짚막, 뒷다리는 길쭉, 두 귀는 쫓긋하여 완연한 산 토끼라. 왕이 보고 크게 기꺼워 여러 화공을 금백(金帛)으로 상급(賞給)하고, 그 화본을 자라에게 하사하고, 왕이 천일주(千日酒)를 옥배(玉杯)에 가득 부어 거둬 삼배를 권하더라.

* 웃기 : 떡, 포, 과일 따위를 권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엮는 재료.

■ 작품 해설

〈토끼전〉에는 작자군(作者群)의 서민의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풍자와 익살스러운 해학이 잘 나타나 있고, 이것이 주제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풍자성은 작자군인 서민계층이 당시 피지배층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형성시기로 추정되는 17, 18세기는 지배관료계층의 부패와 무능으로 서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커가던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지적 능력의 결여와 사회적 신분의 제약으로 표출할 방도가 없었고, 다만 민란(民亂)이라는 폭력적 수단과 민속극·판소리·민요 등 서민예술을 통한 간접적 배설의 길만이 있었다. 우화적 이야기로서의 〈토끼전〉은 그러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세계는 용왕을 정점으로 한 자라 및 수궁대신들의 용궁세계와, 토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짐승들의 육지세계로 나뉜다. 전자는 정치 지배 관료층의 세계를, 후자는 서민 피지배 농민층의 세계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색에 빠져 병이 들고 어리석게도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용왕과 어전에서 싸움만 하고 있는 수궁대신들은 당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사회의 인물들을 투영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토끼는 서민의 입장을 취한다. 수궁에서 호의 호식(好衣好食)과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에 속아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끝내 용왕을 속이고 수궁의 충신 자라를 우롱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작품의 귀결은 토끼가 작자군을 대변하는 존재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이 작품의 주제가 서민의식에 바탕을 둔 발달한 사회풍자에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곳곳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서민적 해학도 주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본에 따라 자라의 충성을 주제적 측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충성이 이 작품의 본래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는 아니다. 외래의 짚막한 동물우화를 장편의 의인체 풍자소설

로 발전시킨 데서 조선 후기 서민들의 예술적 창작력이 높이 평가된다.

아울러 단순한 동물소설이 아니라 당시의 비판적 서민의식을 우화적 수법을 통하여 드러낸 점에서 고소설사상(古小說史上)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작품은 소설·판소리·전래동화 등으로 전해지고, 지금도 마당극이나 창무극(唱舞劇)으로 계속 공연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고전이다.

43

적성의전, 작자미상

■ 전체 줄거리

강남 안평국왕의 맏아들 향의는 쾌짌하고 엉큼한 마음을 가졌고, 둘째 아들 성의는 남다른 기풍이 있으며 재덕을 겸비하여 사랑을 받았다. 형 향의는 장자이기 때문에 세자가 되었으나 성의를 미워하여 음해(陰害)할 뜻을 두었다. 이때 마침 왕비가 병이 들어 수많은 약이 효험이 없자 도사의 말에 따라 성의는 격군 10여명을 데리고 일영주(日映珠)를 구하러 서역으로 떠난다.

선관의 도움으로 서방 세계에 이른 성의는 천성금불보탑존사(금강경천불도사)를 만나 구슬 같은 환약 두 환의 일영주를 얻어, 동방삭의 도움으로 파초선을 타고 약수(弱水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를 건너온다.

한편, 향의는 동생을 시기하여 그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사공과 무사 수십 명을 데리고 성의를 마중나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두 눈을 칼로 찢러 바다에 빠뜨린 뒤 돌아와 일영주로 어머니의 병을 고친다.

맹인이 된 성의는 어느 해변에 표류하여 대나무로 단저를 만들어 불며 지낸다. 이때 마침 안남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던 중국의 호승상에게 구출되어 천자의 후원에 머물게 된다. 거기에서 채란 공주와 사귀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 간다.

한편, 안평국의 성의 모후는 성의의 생사를 궁금히 여겨 성의가 사랑하던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날려 보낸다. 기러기는 공주와 함께 있던 성의에게로 와서 슬피 운다. 공주가 읽어주는 편지로 소식을 들은 성의는 반가움에 별떡 일어나는 순간 두 눈을 뜨게 된다. 성의가 장원 급제하여 채란 공주와 가약을 맺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향의는 무사를 이끌고 가서 성의를 죽이려 하나 도리어 죽음을 당한다. 성의는 안평국 세자가 되고 부왕의 뒤를 이어 요순(堯舜)의 정치를 편다.

■ 작품 읽기

달빛 고요히 밝은 밤에 날짐승은 수풀에 자고 길짐승은 굴에 들어 천지가 고요한데 홀연히 들리는 소리가 나거늘, 모



두 잠잠히 앉아 들었더니 문득 동남으로부터 기러기가 슬피 울며 점점 가까이 오더니 허공에 높이 떠서 금각전을 향하여 울고 돌아다녔다. 공주와 좌우 시녀가 난간에 내려가 밝은 달 아래 하늘을 우리러 살펴보며 심히 이상히 여겨 서로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성의는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지라. 진정하여 생각하기를 ‘이 기러기는 분명히 내가 기르던 기러기이다. 만일 다른 기러기 같으면 가지 않고 내가 앉은 전각 위에서 지금까지 소리 질러 나의 심장을 상하게 하겠는가? 이 내 심사를 들 곳이 없다. 소리는 듣지만 눈은 어이 못 보는가?’ 하며 애갈자진(哀竭自盡)*하여 미친 듯 취한 듯하였다. 낮 없이 앉았는데 기러기 점점 날아 내리더니 두 날개를 반만 펴고 궁전의 사면을 돌며 슬피 우니 뜻 깊은 저 기러기가 주인을 찾을 줄을 그 누가 짐작하리오? 공주와 모든 시녀들은 정신이 아득하여 매우 의아히 여기는데, 기러기가 금각전 난간을 날개로 치며 고성을 지르더니 성의의 앞에 들어와 앉으며 그제서야 목을 늘어 슬피 울더니 고개를 들어 성의에게 몸을 부대끼니 성의가 그제서야 자기가 기르던 기러기가 온 줄 쾌히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온 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하기를,

“네가 이제 나를 찾아 여기 오니 반드시 중전께서 승하하셨다.”

말을 마치자마자 기러기 목을 안고 기절하니 좌우의 시녀들이 급히 구완하는데, 공주가 신기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한 통의 서찰이 매어 있거늘 바빠 끌러 보니 겹봉에, ‘안평국 국모는 내 아들 성의에게 부치노라.’ 라고 하였다.

<중략>

이때 안평국 왕비가 기러기 발에 편지를 매어 보내고 회답 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내전에 들어 왕비와 더불어 옥루에 올라 난간에 비기어 앉아 성의를 생각하시고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홀연 기러기가 중전에 높이 떠서 긴 소리로 아뢰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 왕비 앞에 앉거늘, 왕비가 기러기만 보아도 성의를 본 듯하여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어루만지며 살펴보니 기러기가 발에 한 통의 편지를 매고 왔는지라. 일희일비하여 급히 풀어 뜯어 보니 그 사연에 이르기를,

“불효자 성의는 삼가 백배(百拜)하옵고 부왕 전하와 모비 마마께 올리나이다. 이별이 오래되었사온데 양 전하의 기후* 강녕*하심을 기러기 편으로 듣자오니 반갑고 설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사옵니다. 연전에 모비의 병환을 위하여 슬하를 떠나 서역을 갈 때에 천신만고 끝에 십생구사(十生九死)로 수만 리 서천에 이르러 일영주를 얻었습니다. 돌아오던 도중 바다 가운데에서 포악한 변을 만나 뱃사람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

전하였으나 두 눈을 잃고 한 조각 나무판에 태워져 푸른 파도 속으로 밀렸으니 십이 세 어린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파도에 밀려서 지향없이 가옵더니 여러 날 만에 겨우 한 섬에 다다랐습니다. 짐작하니 언덕이어서 더듬어 보니 바위가 있기에 바위 위에 올라 정신을 수습하였더니 바람결에 대 우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더듬어 보니 과연 대밭이 있었습니다.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 슬픈 마음을 털고 앉아 오작에게 실과를 얻어먹고 있었더니 천지신명이 도우사 중국 호승상이 남일국의 사신으로 다녀오시는 길에 소자를 데려다가 보살핌을 입어 승상부에 머물게 되었던 일이며, 과거에 급제하여 부마 된 전후 사연과 호승상의 수양자 된 말씀은 날날이 아되고, 공주와 더불어 고국으로 즉행하오니 또 중도에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양친은 살피옵소서.”

하였다.

왕비가 보기를 다함에,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때 세자 향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엎드려 여쭙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悲愴)*하십니까?”

왕비가 향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향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향의가 말하기를,

“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 나가시옵소서.”

하더라.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中路)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때 상이 향의에게 칙교(勅敎)*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였다.

차설*, 향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이날 향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

하니 적부리가 크게 기뻐 말하기를,

“이 일은 소장의 손끝에 달렸으니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동궁께서는 다만 후일을 준비하소서.”

하며 하직하니 향의가 크게 기뻐하여 잔을 잡아 술을 권하며 즐기다가 잔치를 마치고 비밀리에 의논하더니 적부리가

돌아와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더라.

.애갈자진(哀竭自盡) : 슬퍼하기를 매우 심히 하여 몸의 힘이 다 빠져.

.기후(氣候) : =기체(氣體). 몸과 마음의 형편이라는 뜻으로, 웃어르게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쓰는 말.

.강녕(康寧) : 주로 윗사람에게 쓰는 말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비창(悲愴) :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칙교(勅敎) : 임금의 몸소 이름. 또는 그런 말씀이나 그것을 적은 포고문.

.차설(且說) : 주로 글 따위에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 =각설.

■ 참고

☒ '적성의전' 의 서사 구조

이 작품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순차적 서사 구조와 함께 ① 신선 세계에 약을 구하러 떠나는 여행 ② 공주와의 결혼 ③ 형제 갈등의 세 삽화가 병렬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삽화 ①은 집을 떠나서 호기심과 위험으로 가득 찬 미지의 세계에서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인가를 귀환하는 순서로 전개되는 탐색적 사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삽화 ②는 주인공이 눈이 먼 상태로 중국 황성의 후원에 기거하면서, 신기에 가까운 단소(短簫) 숨씨 때문에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되고, 이어서 신체적 결함을 해소하고, 과거에 장원 급제함으로서 결혼에까지 도달한다는 삽화이다.

삽화 ③은 형제 갈등이면서 이와 동시에 성의로 대변되는 선과 향의로 대변되는 악의 대결 양상으로 유형화된다. 선은 항상 수동적임에 반해 악은 능동적 주제로 활약하지만, 결국에는 선에 의해서 악이 징치되는 군담 소설적 구조를 보여 준다. 이 작품에 보이는 이러한 이질적 세 삽화는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하나의 통일체적 구조로 통합된다.

☒ 특징

- ① 효도와 우애를 동시에 강조
- ② 도교적, 불교적 색채가 나타난
- ③ 주인공 성의의 효성과 개안(開眼)은 <심청전> 과 비슷
- ④ 성의는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친화(親和)의 힘으로 지향 욕망(指向慾望)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도덕적으로 선하면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존재의 우월성을 인정받아 기존 세력에 영예롭게 편입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 ⑤ 작품은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러 오는 과정, 공주와의 결

혼과정,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은 '집을 떠나서 → 모험과 고난 끝에 무엇을 찾았 → 돌아와 명예를 얻는' 서사구조이다. 이를 탐색주지서사유형(探索主旨敘事類型)이라고 할 수 있다.

44

이춘풍전, 작자미상

■ 전체 줄거리

숙종 대왕 평화로운 시기, 서울 다락골에 이춘풍이 살았다. 춘풍은 부자집의 독자로 인물과 재주가 뛰어났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자 방탕하게 재물을 탕진하여, 아내에게 집안을 맡긴다는 수기를 써 주게 되었다. 아내가 열심히 길쌈하여 오 년만에 제법 넉넉히 살게 되자, 춘풍은 아내를 억박질러 가산을 긁어 모으고 호조 돈 이천 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평양에 간 춘풍은 객사에서 추월에게 홀려, 일 년이 안 되어 이천 오백 냥을 모두 날리고는 추월에게서 쫓겨나 하릴없이 추월의 사환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부인이 듣고 궁리하던 중, 뒷집의 자제가 평양 감사를 할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대부인을 대접하여 인심을 얻어 놓고는, 그 아들이 평양감사를 하게 되자 사정을 말하고 남장을 하고 감사의 회계비장으로 평양으로 떠난다.

평양에 가자 비장으로서 춘풍을 잡아 호조 돈을 없앤 죄로 곤장을 치고, 이에 추월이까지 잡아 족쳐 오천 냥을 십일에 해 놓아 춘풍더러 서울로 가져 오라 명령한다

춘풍이 돈을 받아 서울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장사로 그동안 돈을 벌었다 자랑하며 또 평양으로 가려 한다. 이에 아내가 다시 비장 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나 그의 아내가 없어 허둥지둥한다. 비장이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리라며 옷을 벗으니 비장이 자기 아내임을 안다. 이에 춘풍은 개과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살았다.

■ 작품 읽기

이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을 잡아들여 돈 오천 냥 바치라 하시니 뉘 영이라 거역할까? 성화같이 재촉하여 불일 내어* 받아가니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갓 망건 의복 치레하여 은안준마* 높이 타고 한양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하시닛까?”

춘풍이 반기면서, / “그 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바리 돈을 여기저기 벌이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 “자시오.” /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태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피다. 호조 돈이나 다 셈하고 약간 전량을 수취*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 하고, 오동수복* 화간죽*을 한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하여 여쭙오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댁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외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올까?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나으리 좌정하신 데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때는 상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찬을 들이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네게 일을 시키느냐? 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들며나며 찾아도 무가내*라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 할 제 형영도 참혹하고 걸인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누더기 감발*버선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안절부절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말하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갔다가 술이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해갈이나 하게 갈분*이나 한 그릇 하여 오나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적주적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 차왈피왈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한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주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들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른밥 토장덩이에 이지러진 손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 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탕건 벗어 놓고 웃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연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이 묵묵 무언 앓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 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리한가?”

* 불일 내에 : 며칠 내에.

* 은안준마 : 은으로 꾸민 안장을 엮은 좋은 말.

* 수취 : 흠어진 재산이나 물건을 거두어 정돈함.

* 오동수복 : 백통으로 만든 기구에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로 ‘목숨 수(壽)’ 나 ‘복 복(福)’ 자를 박은 글자 형.

* 화간죽 : 꽃무늬를 새겨 넣은 담뱃대.

* 일조에 : 하루 아침에. .무가내 : 어찌 할 수 없음.

* 감발 : 버선이나 양말 대신으로 발에 칭칭 감는 좁고 긴 무명. 흔히 막일 하는 사람이나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

* 갈분 : 칫뿔리를 짓뿔어 양금을 물에 가라앉혀 다시 말려서 만든 녹말가루.

* 체중 : 지위가 높고 중함.

■ 작품 해설

<이춘풍전>은 정확한 창작 연대와 작자를 알 수 없는 세태 소설(世態小說, 그 사회의 풍속·인심·유행 등을 묘사한 소설)이다. 조선 시대 말기, 즉 19세기의 작품으로 추측되며, 세태 소설이라는 이 작품의 갈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사회상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서민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로 가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이춘풍전>과 같은 세태 소설이 창작될 당시, 사회는 이미 굶을 대로 굶아 버린 여러 가지 모순에 심한 몸살을 겪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당파 논쟁의 혼란이 극에 달해 소수 양반 가문만이 모든 관직을 독점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리하여 결국 많은 몰락 양반이 발생했고, 더 나아가 관직을 사고파는 일까지 생겨났다. 또한 농촌에 널리 퍼진 광작(廣作 - 넓은 면적의 토지를 혼자서 경작함) 현상은 영세 농민을 농촌에서 몰아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에서는 도고(都賈 - 한 가지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독점적 도매상) 상인들이 상공업을 지배하고 부를 축적하여 영세업자들을 몰아내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어지러워진 사회 속에서 문학 특히 소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중국을 배경으로 과장된 인물과 허황된 사건을 소재로 하던 기존 소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배비장전>이나 <삼선기(三仙記)>처럼 무대를 국내로 하고, 잘난 척해도 별수 없는 인물을 등장시켜,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작품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특히 사회에 대한 불신을 그 내용으로 하여 그 당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기생에게 매혹된 양반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참고

☒ <이춘풍전>의 인물에 나타난 사회상

<이춘풍전> 역시 기생에게 매혹된 양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세태 소설로 다락골에 사는 이춘풍이라는 양반 건달이 공연히 뽐내다가 기생에게 매혹되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아내가 구출해 주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전형적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공 이춘풍은 현찰한 풍채, 멀끔하고 미끈한 차림으로 기생 몇 명쯤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물려준 돈은 물론 아내가 바느질을 하여 번 돈까지 모두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날려 버린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호조(戶曹)에서 빌린 많은 돈을 기생과 어울리며 다 써버리고 만다. 이러한 춘풍에게는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 의식이라고는 없다. 다만 위선과 허세에 가득 찬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춘풍을 홀리는 기생 추월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춘풍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온갖 교태를 부리며 홀리다가 수천 냥 돈을 탕진하고 나자 “청루 물정 몰랐던가. 평양 기생 추월 소문 못 들었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었던가.” 라고 말하며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

이들과 반대로 춘풍의 아내는 모범적인 여인의 전형이다. 그러면서도 조선 시대 여인들은 실제로 하지 못하는, 상상에 서나 가능한 일을 하는 여중호걸이다. 소극적이며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시대의 여인상인 것이다.

조선 시대의 여성은 유교 윤리에 의한 구속 때문에 다른 시대보다 더욱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생업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고,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혼인을 하고, 정해진 도리에 따라서 시부모를 섬기며 남편을 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의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규범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는 없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다행히 <이춘풍전> 같은 소설이 있어서, 규범에서의 탈출과 남녀의 지위 역전을 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같은 간접적 경험으로 여성들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깨우침을 얻기도 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잠재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춘풍, 추월 그리고 춘풍의 아내는 모두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양반의 허세와 위선이 가득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그리고 여성들이 억압받는 사회 현실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춘풍전>은 여러 인물들을 통해 그 당시 사회상을 풍자와 해학으로 비판한 서민 문학으로 그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45

민옹전, 박지원

■ 전체 줄거리

남양에 사는 민유신(민옹)은 이인좌의 난에 종군한 공으로 첨사를 제수받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로 벼슬하지 않았다. 민옹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하였다. 그는 옛사람들의 기절(奇節)과 위적(偉蹟)을 사모하여 7세부터 해마다 고인들이 그 나이에 이룬 업적을 벽에다 쓰고 분발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한다. 70세가 되자 그 아내가 올હે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느냐고 조롱하였다. 민옹은 아내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범증(范增)은 기이한 계교를 좋아하였다고 쓰고는 태연하였다.

그때 내 나이 17·18세였는데 병으로 누워 음악·서화·



골동 등을 가까이하고 때로는 손님을 청하여 해학과 고담을 들으며 마음을 위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울한 증세는 풀 길이 없었다. 마침 민옹을 천거하는 이가 있어서 그를 초대하였다. 민옹은 도착하자마자 인사도 나누지 않고 때마침 피리 불던 이의 뺨을 때리고는 주인은 기뻐하는데, 너는 왜 성을 내느냐고 꾸짖었다. 나는 웃으며 악공들을 돌려보내고 그를 맞이했다. 이때에 민옹의 나이는 73세였다. 민옹은 기발한 방법으로 나의 입맛을 돋우어주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민옹은 어느 날 밤에 함께 자리한 사람들을 마구 골려대고 있었다. 그들은 민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어려운 질문을 퍼부었으나 민옹은 끄떡도 않고 대답하였다. 귀신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어두운 데 앉은 사람이라 대답하고, 신선은 세상 살기를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은 글을 많이 읽는 사람, 가장 맛있는 것은 소금. 불사약은 밥.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 등 이처럼 그의 대답은 쉽고 막힘이 없었으며,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옆사람을 놀리기도 하여서 모두 웃었으나 자신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다.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 관가에서 황충잡이를 독려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민옹은 곡식을 축내기로는 중로 네거리를 메운 칠척 장신의 황충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그것들을 잡으려 하나 커다란 바가지가 없는 것이 한이라고 하여 일좌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곧이 듣고, 참으로 그런 벌레가 생겼는가 싶어 두려워하였다.

어느 날 민옹이 찾아오자 나는 파자(破字)로 그를 놀렸다. 그러나 민옹은 놀리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 버렸다. 그 다음 해 민옹은 죽었고, 그의 사후 그의 두 아들은 모두 무과에 올랐으나 아직 벼슬하지 못했다. 올 가을에 나는 병이 더해졌으니 민옹을 만날 수 없게 되어 드디어 그에게 듣고 본 말과 행동들을 모아 전을 지었는데 때는 정축년(1757) 가을이었다.

■ 작품 읽기

지난 계유(1753), 갑술년(1754) 사이에 내 나이는 열일곱 여덟이었다.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노래, 글씨, 그림, 옛갈, 거문고, 골동품 등의 여러 잡물들을 제법 좋아하였다. 게다가 지나는 손님들을 모아놓고 익살스럽거나 우스운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었지만, 깊숙이 스며든 우울증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민 영감은 기이한 사람이지요.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도 잘 한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나고도 괴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결직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치고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지 않는 이가 없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서 그에게 ‘함께 놀러오라’고 부탁했다.

<중략>

하루는 밤늦도록 민 영감과 이야기하였다. 민 영감이 같이 앉은 손님들에게 농담도 하고 꾸짖기도 했는데, 민 영감을 막아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한 손님이 민 영감을 궁색하게 하려고 물었다.

“영감님은 귀신을 보았소?” / “보았지.”

“귀신은 어디에 있소?”

민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한 손님이 등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향하여 소리쳤다.

“귀신이 저기 있다.”

그 손님이 성내면서 민 영감에게 따졌다. 민 영감이 말하였다.

“밝으면 사람이 되고, 어두우면 귀신이 되는 법이랴. 지금 당신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밝은 곳을 살피고, 얼굴을 숨긴 채로 사람을 엿보았으니, 어찌 귀신이 아니겠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손님이 또 물었다.

<중략>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갈아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불사약(不死藥)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조?”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 만에 복령(茯苓)이 되지. 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뚫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옛날에 신농 씨(神農氏)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五穀)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셈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

우.”

민 영감은 언제나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았지만, 끝에 가서는 모두 이치에 맞았다. 게다가 속속들이 풍자를 머금었으니, 변사(辯士)라고 할 만하였다. 그 손님도 물을 말이 막혀서 다시금 따지지 못하게 되자,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럼 영감님도 역시 두려운 게 있소?”

하고 물었다.

민 영감이 잠자코 있다가 별안간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였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우. 내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거든. 허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지요. 내 마음을 잘 가지면 어린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도 될 수 있다우.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끊고 망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도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 고 하였고, “사심(邪心)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 하였지요.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신 거라우.”

민 영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메아리처럼 빨랐다.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했으며, 곁에 앉은 사람을 놀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잡고 웃어도, 민 영감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다디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는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蠶)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니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 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내 보기엔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입니다.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요.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습니다.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은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황충(蝗蟲) : 메뚜기의 일종.

■ 작품 해설

☒ '민옹' 의 작가 의식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민옹전」은 서술자인 ‘나’가 실존 인물로 여겨지는 민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 말미에서 작가는 “나는 그와 더불어 나누었던 은어(隱語), 해학(諧謔), 풍자(諷刺) 등을 모아서 이 「민옹전」을 지었다. 때는 정축년(1757) 가을이다.” 하는 말로 민 영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에 바탕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의 목적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며 뚜렷한 작가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의 서술자는 민옹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려 내고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옹전」의 내용 형성에 있어서 민 영감의 이야기만큼이나 이를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서술자의 역할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술자의 역할이나 작가의 창작 의식에 초점을 맞춰 이 작품을 이해한다면 민옹은 작가가 지닌 문제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 「민옹전」의 구성

「민옹전」은 한 인물의 생애를 기반으로 한 일대기 속에 서술자인 ‘나’가 경험한 민 영감과 관련된 일화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즉, 「민옹전」은 거시적으로는 일대기적 구성의 틀을 따르면서, 세부적으로는 일화를 토대로 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 영감의 이력	‘나’가 경험한 민 영감과 관련된 일화	민 영감의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소개 * 어린 시절과 성격 소개 * 7살부터 70살까지의 생애를 벽에 글씨 쓰는 것을 통해 압축하여 소개 * 민란을 평정한 공로로 첨사 벼슬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병을 고쳐 줌 * ‘귀신, 신선, 맛있는 것, 나이 많은 숲, 불사약, 두려움’ 과 관련된 질문에 답함 * 인간을 황충에 비유함 * 파자 놀이에 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 영감에 대한 세인들의 평 소개 * 자식들에 대한 소개 * 「민옹전」의 창작 동기 제시 * 민옹을 애도하는 시 제시



46

조웅전, 작자미상

전체 줄거리

중국 송나라 문제(文帝) 때 공신이자 좌승상인 조정(또는 조정인)은 간신인 우승상 이두병의 참소를 입고 음독 자살한다. 천자는 조 승상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나머지 조 승상의 아들 조웅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태자와 함께 있게하고, 태자는 조웅을 형제처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두병은 천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웅을 후한이 두려워 죽이려고 한다.

하루는 조웅이 거리에 나가서 이 승상(이두병)에 대한 욕을 거리에 써 붙이고 돌아오는데, 그날 밤 조웅의 어머니가, 이 승상이 조웅을 죽이려고 한다는 몽조(夢兆)를 얻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조정에서는 문제(文帝)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등극한다. 이에 간신 이두병이 권세를 마음껏 부리다가 마침내 어린 황제를 외딴 섬으로 축출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자칭 천자(天子)라 하니, 만조 백관이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조웅 모자는 고향을 떠나 정치없이 방랑하다가, 부친의 초상을 그려 준 월결대사를 만나 산사(山寺)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어느덧 15세가 된 조웅은 모친과 대사에게 출세(出世)할 결심을 말하고 도승(道僧)을 찾아 가는데, 낙산 도사로부터 삼척 신검(三尺神劍)을 얻고, 철관 도사를 만나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게 된다.

조웅이 하루는 모친을 만나러 가는 도중 위국공 장 진사의 집에 우연히 들러 장 진사의 딸 장 소저와 부모 몰래 백년 가약을 맺는다. 조웅을 보내고 장 소저는 연모 끝에 병이 들어 죽는다. 조웅은 도사로부터 장 소저가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도사가 주는 선약(仙藥)을 가지고 가서 소저를 소생시킨다. 이에 장 진사는 자기 딸과의 결혼을 승낙한다.

조웅은 산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사의 분부를 받들어 변방의 오랑캐들과 역적 이두병을 격멸하고 송나라 황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선다. 도중에서, 서번(西番)이 침입하였을 때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황 장군의 영혼으로부터 갑주와 보검을 얻는다. 이 때, 서번이 위국(魏國)을 침공하므로, 위국으로 달려가서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는다. 조웅은 위왕과 이별하고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남해 절도로 간다.

한편 강호자사(江湖刺史)가 상처(喪妻)하고 후실을 구하던 중, 장 소저가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매파를 보내어 청혼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강제로 취하고자 한다. 장 소저가 이를 피하여 산양사(山陽寺)에 있는 강선암(降仙庵)으로 가서 조웅의 모친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조웅이 남해로 가던 도중 강호자사를 베고, 강선암으로 가서 모친과 장 소저를 만나 보고는 즉시 떠난다. 태자가

는 곳에 도달하여 마침 이두병이 사자를 보내어 태자를 죽이려는 것을 물리치고 태자를 구출한다.

서번왕이 조웅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웅이 태자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조웅에게 곤욕을 당한다. 조웅은 다시 서번왕의 항복을 받고 중국으로 와서 영웅.명장을 규합하여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관리들을 차례차례로 치치하면서 위국으로 들어간다. 조웅은 위왕의 청에 의하여 위왕의 장녀를 태자의 비로 삼고, 차녀는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뒤 강선암을 가서 모친과 소저를 찾는다. 그 뒤 위왕과 연합하여 수십 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태자를 등극시킨다. 이에 송실이 회복되니 조웅의 명성은 천하에 널리 떨치게 된다.

작품 읽기

슬프다! 세월이 물같이 흘러 떠돌아다닌 지 삼 년에 웅의 나이가 십일 세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족히 어른을 능가하는지라. 길을 가다가 혹 강을 만나면 어머니를 업고 건너기도 했다.

하루는 종일토록 가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인가도 없는지라. 기갈이 심하여 길가에 앉았는데, 동남쪽 산골짜기의 험한 길에서 한 무리의 중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거늘 웅이 반겨 그들을 기다리니, 그 중들이 와서 반기며 다과를 내어 부인에게 드리며 말하기를,

“다니기에 시장하실 것이니 요기나 하소서.”

하거늘, 웅의 모자가 다행히 여겨 다과를 받아먹으니 요기가 착실히 되는지라. 부인이 감사하여 말하기를,

“과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기갈이 심하여 죽게 되었는데 뜻밖에 활인지불(活人之佛)을 만나 배 부르게 먹으니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하니, 그 중이 웃고 말하기를,

“잠깐 요기하신 것을 은혜라 하실 것 같으면, 소송은 부인에게 천금을 얻어 왔사오니 그 은혜가 어땠다 하리이까?”

부인이 놀라 말하기를,

“소송은 본래 가난한 중이라, 사방에 다니며 결식을 면치 못하옵거늘 내가 어찌 천금의 재물을 알리오?”

그 중이 웃고 말하기를,

“대국 조충공의 부인이 아니십니까? 일신(一身)을 감추고 굳게 변장하고 다닌들 소송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인과 웅이 대경失色(大驚失色)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종적이 드러나 여기에 와서 잡혀 원수의 칼에 죽을 것이로다.”

하고, 모자가 통곡하며 그 중에게 애걸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잡아 황성에 바치면 천금의 상과 만호후(萬戶侯)에 봉해지겠지만, 세상의 부귀는 일시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풍의 한 조각 구름 같고, 물 위의 거품과 같은

지라. 한순간의 영화를 생각하지 말고 인명을 살려 주소서. 중은 또한 부처의 제자이니, 어진 도(道)로써 인명을 구제하시면 후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을 것이니, 었드려 바라건대 존사(尊師)는 남은 목숨을 보전케 해 주십시오.”

하며 붙들고 애걸하니, 그 중이 웃으며 말하기를,
“부인은 조금도 겁내지 마옵소서. 소송은 부인을 잡아갈 중이 아니오니 진정하시고 소송의 말씀은 자세히 들으소서.”

부인이 정신을 차려 다 듣고 나자 중이 말하기를,
“부인은 살펴보소서. 어찌 소송을 모르시나이까? 소송은 부인 덕 승상의 화상을 그리던 중 월경(月鏡)이로소이다. 그때 승상의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에게 보여 드리니, 부인께서 천금을 주시기에 받아갔는데 부인은 어찌 소송을 모르시나이까?”

그제야 부인이 자세히 보니, 그때 화상을 그리던 중과 비슷하지만 세상일을 어찌 알리오?

“천금을 줄 때에는 확실했겠으나 마음에 분명히 새겨 둔 일이 아니라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니, 존사(尊師)는 꺼리지 말고 바른대로 일러 주소서.”

하고 간히 애걸하니, 그 중이 민망하게 여겨 위로하여 말하기를,

“부인께서 유한한 간장을 객지에서 여러 해 근심하였기로 정신이 상하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송이 또한 명백히 밝힐 증거가 있으니 가져오신 화상을 내어 보십시오.”

부인이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화상이 있사오리까? 존사는 무지한 인생을 대하여 숨기지 말고 바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도마 위에 오른 고기인지라, 죽고 살기는 존사의 처분에 달려 있으니 마음대로 하소서.”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중이 절박하여,
“어찌 이토록 의심하시나이까? 그때 화상을 그려서 부인을 뵈었는데, 잉태하신 지 일곱 달이었기에 짐작되는 일이 있삽기로 부인의 상을 보고 앞날의 어려움을 기록하여 화상의 등에 넣어 두었사오니, 화상을 내어 그 글을 보시면 의혹을 풀고 소송의 허실을 폐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부인이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여겨 그제서야 화상을 내어 등의 중이를 떼고 자세히 보니 과연 글을 지어 등에 넣었는지라. 그 글에 쓰여 있기를,

“꽃같이 아름다운 왕 부인이 삭발은 무슨 일이고? 파강(破江) 천경파(千頃波)에 거북을 만나도다. 성주(城主)는 뉘시던가. 굴삼려의 충혼(忠魂)이라. 복중(服中)에 끼친 혈육 활달한 기남자라. 공자(公子)로 상좌 삼고 변장을 굳게 한들 화상이 불변커늘 필법조차 고칠소냐.

이 글은 위나라 산양땅 강선암 월경이 삼가 쓰노라. 경오년

추 칠월 십오일 상봉(上封).”
이라 하였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웅 모자는 월경도사에게 구함을 받고, 응은 글과 술법을 배운다. 그 후 세상에 나와 한 노인에게서 명검을 얻고 칠관도사를 찾아가 수련한다.

“인마역동(人馬亦同)이라. 임자를 모르느냐?”
그 말이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고 꼬리를 치며 반기는 듯 하거늘 응이 크게 기뻐하여 목을 안고 굴레를 갖추어 마구간에 매고 도사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이 말의 값을 따져 보면 얼마나 하나이까?”
도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용마를 내심에 반드시 임자가 있거늘, 이는 그대의 말이라. 남의 보배를 내 어찌 값을 따져 말하리오? 임자 없는 말이 혹시나 사람을 상할까 염려하였더니,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실로 다행이로다.”

응이 감사하고 절하여 말하기를,
“도덕문(道德門)에 구휼하신 은덕이 망극한데, 또 천금의 준마를 주시니 은혜가 더욱 난망(難忘)이로소이다.”

도사가 말하기를,
“곤궁(困窮)함도 그대의 운수요, 영귀(榮貴)함도 그대의 운수라. 어찌 나의 은혜라 하리오?”

응이 도사를 더욱 공경하여 선술(仙術)을 배우니 일 년이 지나자 신통 묘술을 배워 달통하니 진실로 괘목상대(刮目相對)일리라.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영웅의 일생’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주인공의 탄생에 있어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정성이나 태몽, 혹은 천상인의 하강과 같은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작가의 목소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전체분량의 약 3분의 1이나 되는 군담도 구체적, 사실적이기보다는 추상적, 설명적이다. 다른 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천상계 인물의 후신으로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가는 데 비하여,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힘보다는 초인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해 간다.

이 작품의 애정담은 특히 전통적 유교윤리와는 어긋나는, 부모의 허락 없는 혼전성사(婚前性事)를 그리고 있어 이채롭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7인의 삼입가요는 모두 10여 개나 되는데, 그 중에는 88구나되는 장편도 있다. 작자는 조웅을 철저한 천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잘 그리고 있다.



47

차마설, 이곡

■ 작품 해설

이 글은 말을 빌려 타는 일상의 사소한 체험에서 삶의 이치(자세)를 깨닫는 내용의 작품이다. 차마(借馬)로부터 인간의 소유의 문제에 이른 지은이의 상상과 유추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적 의미를 깨닫는 데에 이 글을 읽는 가치가 있다. 말을 빌려 타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삶의 자세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빌리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빌린 것을 자기 소유로 알고 반성할 줄 모르니 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모두 빌린 것이기에, 쓸데없는 소유욕을 버리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작품 읽기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으나,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君)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臣)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지어미는 남편으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위에 있던 임금도 짝 잃은 지아버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견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도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48

옛날옛적에 휘어이 휘이, 최인훈

■ 전체 줄거리

늦은 겨울 밤, 오막살이집에 만삭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농사에 쓸 씨앗을 구하러 갔던 말더듬이 남편은 아내에게 도적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준다. 둘은 새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자리에 든다. 봄이 되고 아기가 태어난다.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웃의 개똥어머니가 도토리묵을 가지고 온다. 개똥어머니와 아내는 용마의 울음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개똥어머니는 용마가 울면 그 고장에 장수가 태어난다는 전설 때문에 관가에서 용마를 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준다.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용마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간다. 아내는 개똥어머니 돌아간 뒤 아기를 살펴보러 방문을 열다 아기가 팔을 벌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방안을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굴러 떨어진다. 이때 남편이 돌아오고 남편도 방안을 들여다보고 놀란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장수라는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 하지만, 남편은 용마의 울음소리와 용마를 부르는 아기의 소리를 듣고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남편은 아기를 자루로 눌러 죽인 뒤, 밤을 틈타 아기의 시체를 묻는다. 이튿날 새벽 남편은 목을 맨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다. 용마를 타고 살아온 아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오지 말라며 손을 흔든다.

■ 작품 읽기

[앞부분의 줄거리] 나물죽으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난다. 그 무렵 관가에 불을 지른 도적이 잡혀 처형되고, 건너 산에서는 용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용마가 울면 세상을 바꿀 장수가 나타난다고 하여 나라에서는 병사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용마를 잡으려 한다. 그러나 용마가 잡히지 않자 결국 나라에서는 아기 장수를 직접 잡는다고 하며 마을을 들쭉신다. 그때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관군이 찾는 아기 장수임을 알고 절망한다. 그리고 돌아온 남편은 아이를 죽인다. 아이를 묻으러 남편은 나가고, 처형당한 도적을 아들로 둔 노파가 잠시 들러 물을 청한다.

넷째 마당

이튿날 새벽 새소리. 무대에는 사람이 없다. 방문은 닫혀 있다. 멀리서 노랫소리 들려온다.

우리 애기 착한 애기 / 젓 안 먹고 크는 애기
보채면서 자란 애기 / 흥년 들면 도적 되지.

노랫소리 차츰 가까워진다. 거친 쉼 목소리. 그러나 뚜렷한, 할머니 나온다. 먼젓번처럼 누더기 옷이다. 다만 허리에 두른 붓짐이 불룩하다. 바가지를 찬 것 같다. 아내 뒤꼍에서 나온다. 뚫어지게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 찾았소. (붓짐을 앞으로 가져온다.) 내 새끼를 찾았소.

아내 뒤꼍으로 들어간다. 할머니 땅에 앉는다. 보파리를 어루만지면서 떡엄떡엄 중얼중얼 자장가를 부른다. 거의 들리지 않는다. 가끔 가락이 높아질 때면 아직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 뒷 빠진 사람처럼 나온다. 할머니에게 물그릇을 준다.

할머니: 고맙소. (마신다.) 고맙소. (사발을 땅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보파리를 도로 바로잡는다.) 너는 출지도 않고, 덩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는 착한 내 새끼야. (일어선다. 아내, 바가지처럼 불룩한 데를 눈으로 좇는다.) 가자. 가서, 새 울고 별 좋은, 이 예미가 김매는 밭머리께 물어 주마. 가자. (걸으면서 한 손으로 보파리를 토닥거린다.) 가법기도 하지. 갓 낫을 때보다 더 가법구나. (나간다. 자장가를 부르면서.)

아내, 할머니가 떠나는 것을 바라본다. 할머니가 사라진 쪽을 바라본다. 새소리, 화창한 봄날이다. 새소리와 섞여 할머니의 자장가가 들릴 듯 말 듯 들려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다. 방안으로 들어간다.

<중략>

말이 우는 소리, 사립문 쪽에서 용마를 탄 애기(말, 애기 모두 인형, 추상적인 구조의), 마당으로 들어온다.

무대, 캄캄해지고, 각각, 말과 애기, 남편의 머리 위로 비추는 부분 조명 및 방안에 누운 아내의 위에서 비추는 조명.

남 편: (마당에 내려서다가, 용마와 애기를 보고 주저앉으며.) 너, 너, 너, 너를 무, 무, 무, 무, 묻고 오, 오, 오, 오는 길인데.

애 기: (고개를 저으면서, 들고 있던 진달래꽃 묶음을 아버지한테 준다.)

남 편: (꿈결처럼 걸어가서 받는다.)

애 기: 엄마, 엄마!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

남 편: (방으로 들어가 꽃묶음을 아내 가슴에 얹는다.) 여, 여, 여보, 다, 다, 당신, 애, 애, 애, 애기가, 가, 가, 가, 가져왔소, 다, 다, 다, 당신 애, 애, 애, 애기가, 사, 사, 사, 사, 살아왔소.

아 내: (인형) 꽃묶음을, 들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선다.

아내, 애기한테로 걸어가서 애기를 끌어안는다.

애 기: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 엄마 아빠, 빨리 타오.

남 편: (아내를 말에 태우면서) 자, 자, 자, 자, 가, 가거라, 어, 어, 어, 어-어, 어, 어서 가거라, 사, 사, 사, 사람들이 오, 오, 오, 오, 올라. 네, 네, 네, 네, 네가 주, 주, 주, 주, 죽었다고 해, 해, 해, 해, 했으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올게다.

애 기: (손짓하면서)

아 내: 빨리, 빨리, 포졸들이 와요.

남 편: (소매로 눈물을 씻으면서) 오, 오, 오, 오나.

끝내 타지는 않고 용마의 고삐를 잡고 사립문을 나간다. 무대, 다시 밝아진다.

빈 무대

마을 사람들 여럿과 포졸들 여럿 들어선다.

마을 사람 1: 여보게.

포졸 하나, 다짜고짜로 문고리를 나꿔챌다.

포졸 1: 어딜 갔나?

포졸 2: 분명하겠지?

마을 사람 1: 예, 경기를, 일으켜서, 간밤에.

포졸 3: 흠.

마을 사람 1: 산에, 가져다, 묻고 오는, 길이더라군요.

마을 사람 2: 저것 보게, 저기.

사람들: 아니, 저 세 식구가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군.

꽃을 던지는군. 가져던 옥황상제께 여쭙 주게. 우리 마을에 다시는 장수를 보내지 마시사구.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자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 애기 / 착한 애기

사람들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밭에서 새 쫓는 시늉을 하며)

하늘에서 젓 안 먹고 / 크는 애기.....

사람들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사람들, 어느덧 손짓 발짓 장단 맞춰 춤을 추며, 어갯짓 고갯짓 곁들여, 곳 춤추듯, 농악 맞춰 추듯, 춤을 추며 하늘에서보채면서 / 자란 애기 / 흥년 들면.....

사람들 휘어이,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점점 신명이 난 / 하늘과 땅이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 친철히

- 막 -



■ 작품 해설

☒ 구성 :

- 첫째 마당 - 바람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내
도적의 소식을 알려 주는 남편
- 둘째 마당 - 아기의 탄생
용마의 출현과 포졸들의 행태
- 셋째 마당 - 아기가 아기장수임을 알게 된 아내
아이를 살해하는 남편
- 넷째 마당 - 아내의 자결
용마를 타고 온 아기와 함께 승천하는 세 가족
다시 오지 말라며 손을 흔들며 춤추는 사람들

☒ 주제 :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민중으로 인한 비극성

☒ 이 작품은 평안북도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기장수’의 설화적 모티프를 통해 1970년대의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존재 양상과 내면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최인훈이 주목하는 것은 설화 속에 내재된 비극성이 아니라 당대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비극성이다. 이러한 비극성을 간결하게 압축된 대사와 리듬감 있는 시적 언어를 통해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문학적 상징성을 성취한다.

■ 참고

☒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의 비극성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최인훈은 ‘아기장수’ 설화 모티프를 통해 체제를 비판하거나 그에 도전하는 실천 의지를 촉구하지 않는다.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민중을 억압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것에 심리적으로 강박되는 민중들의 의식이다. 도적의 목이 내걸리는 사실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에 떨고, 아기장수의 출현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에 떨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거해 버리는 민중들의 패배 의식과 나약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중들이 것처럼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에서 그는 아기장수 설화에 내포된 비극성을 재확인한다.

48

산불, 차범석

■ 전체 줄거리

무대는 6·25전쟁 빨치산이 출몰하는 산촌이다. 소백산맥을 타고 내리는 남한 어느 산골짜기엔 이른바 과부마을이 있다. 문명도 교양도 사치도 모르는 채 오직 생존의 사실만을 알고 지내는 이들에게는 다시 비극이 시작되었다. 국군 UN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남한일대에는 다시 평화와 재생의 숨결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험준한 산악지대인 과부마을은 지도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아직도 밤이면 입산한 공비들이 활개를 치는 그늘진 고장이었다. 따라서 천왕봉을 근거지로 주둔하고 있는 공비들은 이따금 이 마을에 내려와서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오늘은 바로 그 식량공출 날이다. 이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과부 양씨와 이웃마을에 사는 과부 최씨는 항상 반목이 심했다. 양씨의 며느리 점례는 까막눈만 사는 이 마을에서 드물게 보는 유식자이며 아름다운 젊은 과부였다. 그리고 최씨의 딸 사월이도 젊은 과부였다. 차분하고 안전한 점례에 비해서 사월은 신경질적이고 병적이었다. 이날 밤, 산에서 내려온 공비대장은 식량을 약탈해 가면서 다시 야경을 명령했다.

천왕봉에 입산했던 한 청년이 어둠을 타고 내려 오다가 점례 집에 들어섰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당한데다가 추위와 허기증에 못 이겨 점례의 집 부엌으로 숨어 들었다. 이때 야경에 나가려던 점례와 마주치게 되었다. 청년은 칼로 점례를 위협하며 은식처를 요구한다. 점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뒷산 대밭에 숨겨 주었다. 그는 규복이라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친구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산을 했으나 그들의 기만과 허위 그리고 고된 생활을 참을 수 없어 탈출을 해 온 것이다.

규복은 자기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뒤우치면서도 경찰에 자수하면 총살을 당하리라 공포와 불안 속에서 번민하는 마음 약한 청년이다. 점례는 그에 대해서 차츰 동정심을 품게 되어 가족들의 눈을 속여가며 음식도 풍족하게 날라다 먹인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 점례는 상처가 나으면 경찰에 자수하라고 권한다.

사월에겐 어린 딸이 있었다. 가슴 속 깊이 타오르는 여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늙은 어머니와 자식을 버리고 재혼할 수도 없는 몸이 한스러웠다. 그러던 어느날 사월은 대밭에서 규복이와 점례가 밀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사월은 점례에게 규복의 정체를 따진다. 점례는 고민 끝에 규복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 사실을 실토한다. 사월은 자기도 규복을 돕겠다고 제의한다. 그로부터 삼개월이 흘렀다. 눈과 산과 추위 속에서 겨울을 난 과부마을에도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점례는 사월이가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

나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점례는 고민하는 사월에게 규복이와 함께 이 고장을 떠나라고 권한다.

며칠이 지난 후 공비도벌작전이 시작되고 국군이 와서 신나를 뿌렸다. 그것은 공비가 잠복할만한 숲에 기름을 뿌리고 초토작전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양씨의 소유인 대밭에도 불을 질러야겠다는 사전 통보였다. 양씨는 조상대대로 전해진 대밭을 불사른다는데 완강히 반대했다. 그리고 점례는 점례대로 비밀이 있었기에 국군에게 매달리며 통사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 작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대밭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놓고 말았다. 삽시간에 산불이 일어나고 사나운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퍼져나갔다.

대밭에서 총소리가 나고 사월이는 불타는 대밭으로 뛰어들어간다. 대밭은 모두 다 타버리고 동네 사람들은 양씨네 집앞으로 와 옥설과 저주의 말을 던진다. 이윽고 점례가 소복차림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오자 동네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한다. 자기 때문에 죽은 사월과 규복이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남은 생애동안 고행의 길을 걸겠다면 삭발한 머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점례는 마을을 떠난다.

■ 작품 읽기

[앞부분의 줄거리] 1951년, 소백산맥 줄기의 한 촌락에는 전쟁으로 과부가 된 여인들만 모여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낮이면 국군이 밤이면 공비들이 찾아오는 이 마을에 빨치산 소굴에서 탈출한 규복이 몰래 숨어든다. 이 마을의 여인인 점례와 사월은 규복을 대나무밭에 숨겨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친구였던 점례와 사월은 규복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인다.

사병 A: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볼 때 환히 보일 수 있어야만이……. (군중들은 그 참뜻을 알았다는 듯 수궁을 한다.)

양 씨: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온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서 해요.

사병 B: (딱하다는 듯)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소? (사병 A에게) 자, 가세.

(두 사람이 우편 헛간 쪽으로 가려고 하자 점례가 길을 가로막는다.)

점례: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사병 A: 당신은 또 뭐야?

점례: (빌면서)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식구를 살리려거든 대밭을 살려주세요.

(점례의 절실한 태도에 모두들 절박감을 느낀다.)

사병 A: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순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점례: 제발! 소원이예요. (하며 매달리자 양 씨는 사병 B에게 매달린다.)

양 씨: 여보시오. 당신네 집에선 제사도 조상도 모르오? 제발 우리 사정 좀 봐 줘요.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조를 때도 내가 싫다고 우긴 대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병 B: (획 뿌리치며) 어서 가……. (하며 급히 뛰어가자 사병 A도 급히 뒤를 따른다.)

점례: (미칠 듯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중략>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 간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인다. 훗훗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그저 허만 차고 있는 허탈한 얼굴들)

점례: (갑자기 일어서며) 선생님! 선생님! 안 돼요. (하며 뛰어가려 하자 몇 사람이 붙들고 말린다.)

쌀레네: 참어! 점례! 정신을 차리라니까.

점례: 나도 같이 타 죽을 테야. 대밭으로 보내 줘.

양 씨: (이제 지칠대로 지쳐서) 아이구,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 말대로 팔아나 버릴 것을.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며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 그와 함께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두들 겁에 질려서 오른쪽으로 몰려 간다. 점례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쌀레네: 무슨 소리야?

이웃 아낙을: 누가 있었나 부지?

(이때 방에서 김 노인이 나온다.)

김 노인: 오늘은 귀가 신통히도 잘 들리는구나. 무슨 사냥이나? 멧돼지 고기에 소주는 제 맛이 다만…….

(이때 사병 A와 B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질질 끌고 나온다. 군중들 사이에 새로운 파동이 퍼진다. 규복을 무대 한복판에 눕힌 다음 사병은 군중을 휘둘러본다.)

사병 A: 이 사람이 누구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사병 B: 이 마을 사람이 아니오?



이웃 아낙 갑: 우리 동네에서 사내 냄새가 없어진 지는 벌써 이태나 된 걸요.

(사병, 두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뭐라고 수근거린다.)

이웃 아낙을: 정말 귀신 곡할 일이지. 그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단니?

이웃 아낙 갑: 혹시 산에서 내려온 사람 아닐까?

(사병 A가 급히 한길 쪽으로 퇴장한다.)

사병 B: 대밭에다 움을 파고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던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오? (서로가 고개를 좌우로 젓는다. 점례는 멍하니 내려다보고만 있다.)

양 씨: 우리 대밭에 사내가? (점례에게) 너도 못 봤지?

점례: (고개만 저을 뿐 대답이 없다.)

쌀레네: 이상한 일이지……. (하다 말고 양 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 최 씨에게 집중된다. 아까부터 반신반의 상태에 있던 최 씨가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하자 화를 낸다.)

최 씨: 왜 나만 보고 있어? (사이) 옳지. 내 딸이 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던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와서 담판을 지을 테니. (하며 사월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간다. 이때 가까이 와서 시체를 들여다본 김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지른다.)

김 노인: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먼!

일동: (약속이나 한듯) 머슴?

양 씨: (큰소리로) 아버님, 아는 사람이예요?

김 노인: 응……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양 씨: 노망했어, 노망!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예요?

<중략>

(점례는 말없이 규복의 시체 옆에 다가와서 손발을 반듯이 제자리에 놓는다.)

사병: 손을 대지 말아요.

점례: (거의 무표정하게) 내가 손을 댄다고 시체가 되살아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재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하며 서서히 일어선다.)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규복의 얼굴에도 반영이 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인다.)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 마루 끝에 앉아 있던 김 노인이 또 밥을 재촉한다.)

김 노인: 밥은 아직 멀었나?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

■ 작품 해설

장막극 「산불」은 19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소백산맥 줄기에 있는 촌락을 배경으로 하여, 6·25 전쟁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데올로기보다 우위에 선 사랑의 가치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남자들이 죽거나 끌려가고 여인네들만 남아 있는, 욕망의 진공 상태가 한 남자(규복)의 등장으로 깨어지고 마침내 두 여인 사이에 욕망의 갈등이 빚어지고 갈등이 해소되려는 순간 남자가 죽게 된다는 구조를 가진 이 작품은 욕망의 삼각 갈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멜로 드라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점례는 빨치산에서 탈출하여 마을로 흘러 들어온 규복을 몰래 숨겨주고 그와 사랑을 나누다가 사월에게 발각되자 협박에 못 이겨 그를 양보하면서 고통과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멜로 드라마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욕망이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과잉 억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욕망과 애정의 삼각 갈등은 그리 통속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듯 산불은 6·25 전쟁의 한 단면을 압축하여 그리면서, 이데올로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임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과부촌이 설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본능 앞에서 이데올로기는 한갓 허위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유전적 요인(김노인의 노망과 그녀의 손녀인 귀덕은 전쟁 통해 정신 이상이 되었지만, 유전적 요인도 내재되어 있다)과 환경적 요인(6·25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한국적인 향토색에 의하여 전개되는 하층민의 실상을 과학적으로 그리면서 그 안에서 본능과 감정에 기인한 인간을 진솔하게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주의극의 한 전형이 되고 있다.

■ 참고

☒ 구성상의 특징

이 작품에는 이러한 애욕의 갈등보다는 오히려 근원적인 욕망을 차단하는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폭압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한 극점을 보여주는 것이 국군이 공비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대나무밭에 불을 질러 규복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결말의 비극성이다.

☒ 문학사적 의의

‘산불’은 차범석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리얼리즘 희곡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을 만큼 사실주의 희곡으로서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이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분단과 전쟁을 한 마을에다 몰아 놓고 조명하고 있는 데다가 인간의 원초적 애욕을 극히 자연스럽게 가미시킴으로써 작품을 밀도 있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